

찰스 덱스터 워드의 사 례

The Case of Charles Dexter Ward

H.P. 러브크래프트 (1890-1937)

1941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5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H.P. Lovecraft, "The Case of Charles Dexter Ward" ((사후 발표, 집필 1927))

저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Howard Phillips Lovecraft, 1890-1937)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73547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5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H.P. 러브크래프트가 남긴 탁월한 괴기 판타지 중 마지막 작품이자, 많은 이들이 가장 흥미진진하고 훌륭하다고 손꼽는 「찰스 텍스터 워드의 사례」가 있다.

수년간의 고된 탐색 끝에 마침내 발견되었다. 소설 속 찰스 텍스터 워드가 그 공포스러운 연구에 쏟아부었던 것만큼이나 세심하고 인내심 있게 조각들을 맞추어 나간 끝에, 어거스트 더레스와 도널드 완드레이는 마침내 흩어져 있던 러브크래프트 소설의 모든 페이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다.

다락방과 잊힌 상자, 그리고 오래된 서랍장에서 수년에 걸쳐 수집한 이 원고를 이제 《위어드 테일즈(WEIRD TALES)》를 통해 세상에 내놓는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은 크툴루와 공포스러운 네크로노미콘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페이지들 사이에서 새로운 전율이 주는 풍요로움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찰스 텍스터 워드의 사례》에서 당신은... 하지만 이야기를 빨리 읽고 싶어 안달이 난 당신에게, 굳이 여기서 더 말을 이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저 다음 페이지를 넘기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 * * * *

동물의 정수(essential Saltes)를 특정한 방식으로 조제하고 보존한다면, 영리한 자는 자신의 서재 안에 노아의 방주를 통째로 들여놓은

듯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재 속에서 동물의 정교한 형상을 원하는 대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학자는 인간의 유골에서 추출한 정수를 이용해 죽은 조상의 형상을 불러낼 수도 있다. 이는 범죄적인 강령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시신이 타버린 그 먼지 속에서 조상의 모습을 되살려내는 일이다.

보렐루스.

1. 결과와 서문

최근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인근의 한 사립 정신병원에서 매우 기이한 인물이 사라졌다. 그의 이름은 찰스 텍스터 워드였으며, 슬픔에 잠긴 그의 아버지는 마지못해 그를 병원에 구금했다.

환자는 스물여섯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기묘하게 노쇠해 보였다. 얼굴에는 보통 아주 고령인 이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미묘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신체 기능 또한 의학적 경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한 불균형을 보였다. 호흡과 심장 박동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불규칙했고,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져 속삭임조차 내뱉을 수 없었다. 소화 과정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느려졌으며 그 기능 또한 극도로 저하되었다. 피부는 병적인 냉기와 건조함을 띠었으며, 조직의 세포 구조는 지나치게 거칠고 느슨하게 얽혀 있는 듯했다. 오른쪽 엉덩이에 있던 커다란 올리브색 반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반면, 가슴에는 이전에는 전혀 없던 아주 기묘한 점이나 검은 얼룩 같은 것이 새로 생겨나 있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찰스 워드는 독보적이었다. 그의 광기는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상세한 의학 논문들에 기록된 그 어떤 정신 질환 과도 궤를 달리했다. 또한 그의 광기는 강력한 정신적 힘과 결합되어 있었는데, 만약 그 힘이 기괴하고 뒤틀린 형태로 변질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천재나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다.

찰스 텍스터 워드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의 신체와 정신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봐 온 월렛 박사만이, 워드의 앞날에 닥칠 자유를 생각하며 두려움에 떠는 듯 보였다. 박사는 끔찍한 경험을 했고 차마 회의적인 동료들에게는 털어놓지도 못할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다.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월렛 박사 자신도 그만의 작은 미스터리를 안고 있다. 그는 워드가 도주하기 직전 환자를 마지막으로 대면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대화를 마친 뒤,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묘한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세 시간 뒤 워드의 탈출 사실이 알려졌을 때, 몇몇 이들은 박사의 그 기묘한 상태를 떠올리곤 했다. 그 탈출 자체는 웨이트 박사의 병원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 중 하나로 남아 있다. 60피트 높이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로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월렛 박사와 대화를 나눈 직후, 그 청년은 분명히 사라진 상태였다.

그는 워드의 방에서 그를 발견했으나, 그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간병인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는 이미 소용없는 일이 되어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환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고, 그곳에는 열린 창문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4월의 서늘한 바람은 미세한 청회색 먼지 구름을 몰고 들어와 사람들의 숨을 막히게 했다. 사실

개들이 한동안 울부짖기는 했으나, 그것은 월렛이 아직 현장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그 이후로는 개들이 아무런 기척도 보이지 않았고 이상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워드의 아버지는 즉시 전화를 통해 이 소식을 들었으나, 그는 놀라 기보다는 오히려 슬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웨이트 박사가 직접 찾아왔을 때 월렛 박사는 이미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 워드의 탈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월렛과 워드의 부친이 신뢰하는 극소수의 측근으로부터 몇 가지 단서를 얻기는 했으나, 그 내용조차 너무나 황당무계하여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지금까지 남은 유일한 사실은, 행방불명된 광인이 남긴 흔적을 지금까지 그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뿐이다.

* * * * *

찰스 텍스터 워드는 어려서부터 골동품에 심취해 있었다. 언덕 꼭대기 프로스펙트 가에 자리한 부모님의 오래된 저택 구석구석을 채운 과거의 유물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유서 깊은 마을의 분위기가 자연스레 그의 취향을 형성했을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고물에 대한 그의 집착은 더욱 깊어졌다. 결국 역사와 계보학, 그리고 식민지 시대의 건축과 가구, 공예 기술에 대한 연구가 그의 관심사를 독점하며 다른 모든 것을 밀어내고 말았다. 그의 광기를 고찰할 때 이러한 취향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치 환자가 모호한 방식의 자기 최면을 통해 문

자 그대로 과거의 시대로 옮겨가 버린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기 때문이다.

기이한 점은 워드가 그토록 잘 알던 골동품들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들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듯 보였다. 대신 그의 마지막 모든 노력은 현대 세계의 평범한 사실들을 익히는 데 집중되었다. 그의 뇌리에서 너무나 완벽하고도 명백하게 지워져 버린, 바로 그 현대의 지식들을 말이다. 그가 읽고 대화하는 모든 행위는 오로지 광적인 갈망에 의해 결정되었다. 1902년에 태어나 이 시대의 학교에서 교육받은 이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즉 자기 자신의 삶과 20세기의 평범하고 실용적인 문화적 배경에 관한 지식을 흡수하려는 갈망이었다. 정신과 의사들은 탈주한 환자가 현대적 정보량을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릴 때까지, 변변찮고 까다롭지 않은 일자리에서 몸을 낮춘 채 지내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지배적으로 내놓고 있다.

워드의 광기가 시작된 시점을 두고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보스턴의 저명한 권위자인 라이먼 박사는 그 시기를 1919년 혹은 1920년경으로 보고 있다. 당시 워드는 모세 브라운 학교의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 무렵 그는 갑자기 과거에 대한 연구를 그만두고 오컬트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훨씬 더 중요한 개인적인 연구 과제들이 있다며 대학 진학을 거부했다.

넓게 말해, 1919년에서 1920년 사이의 겨울 동안 워드에게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는 돌연 기존의 고전 유

물 연구를 중단했다. 대신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오컬트적인 주제를 파헤치는 필사적인 탐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가 보여준 기이하고도 집요한 조상의 묘지 추적만이, 그가 탐닉한 그 수많은 주제 사이에서 유일하게 일관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월렛 박사의 견해는 이와 크게 달랐다. 그는 환자를 가까이서 지속적으로 지켜봐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다. 또한 사건 말미에 그가 직접 수행했던 몇 가지 소름 끼치는 조사와 그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근거로 삼았다.

그 조사와 발견들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래서 그는 그 사실들을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떨었고, 그것들을 글로 옮기려 할 때면 손마저 떨었다.

그가 확신하기로, 진정한 광기는 그 이후에 찾아온 변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커웁의 초상화와 고문서들이 발굴된 뒤에, 그리고 낯선 이국의 땅을 여행하며 기묘하고 은밀한 상황 속에서 끔찍한 주문들을 읊조린 뒤에 찾아온 변화였다. 또한 그 주문들에 대한 어떤 '응답'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고통스럽고도 형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광적인 편지가 쓰인 뒤에, 그리고 흡혈귀에 관한 괴담과 포터킷의 불길한 소문들이 몰아친 뒤에 시작된 변화였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기억이 현대의 풍경을 지워버리기 시작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며, 이후 수많은 이들이 목격하게 될 미묘한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광기가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윌렛은 아주 예리하게 지적한다. 악몽 같은 기괴함이 찰스 텍스터 워드와 확실히 결부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때였다고 말이다. 의사는 그 청년이 결정적인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몸서리쳐질 만큼 분명하게 느끼고 있다.

그 증거에는 오른 가문과 허친슨 가문의 편지들에 얹힌 수수께끼와 우연들이 있었다. 또한 커윈의 필체 문제와 형사들이 앨런 박사에게 대해 밝혀낸 사실들도 포함되었다. 여기에 더해, 윌렛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중세 소문자로 쓰인 그 끔찍한 메시지까지 더해진 것이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의사가 마지막 조사 과정에서 얻어낸 두 가지 끔찍한 결과물이다. 그는 특정 공식 쌍을 이용해 그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 결과물은 그 문서들이 진본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그 문서들이 품고 있는 괴기스러운 함의를 사실로 증명해 주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해당 문서들은 인류의 지식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었다.

찰스 워드의 이전 삶을 되돌아보는 일은, 그가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던 고대 유물들을 살피는 것만큼이나 먼 과거의 일을 들여다보는 과정이어야만 한다.

그의 저택은 강 바로 동쪽에서 솟아오른, 거의 절벽에 가까운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은 거대한 조지아 양식의 대저택이었다. 길게

뺨은 저택의 날개채 뒤편 창가에 서면, 발밑으로 펼쳐진 하층 마을의 침탑과 돔, 지붕들, 그리고 마천루의 꼭대기들이 어지럽게 내려다보였다. 그 시선은 마을을 지나 저 멀리 보랏빛으로 물든 교외의 언덕들까지 이어졌다. 그는 이곳에서 태어났다. 유모가 처음으로 그를 유모차에 태워 밀고 나갔던 곳도, 이중 돌출형 구조를 갖춘 붉은 벽돌 외벽의 아름다운 고전 양식 현관이었다. 유모는 그를 데리고 마을이 이미 삼켜 버린 200년 전의 작은 흰색 농가를 지나, 나무 그늘이 우거진 화려한 거리를 따라 위엄 있는 대학가로 향했다. 그 거리에는 오래된 사각형 벽돌 저택들과 좁고 육중한 도리스식 기둥이 달린 작은 목조 주택들이 넓은 마당과 정원 사이에서 견고하고 독점적인 위용을 뽐내며 잠들어 있었다.

그는 가파른 언덕 아래, 한 단 낮은 곳에 위치한 나쁜한 콩던 가를 따라 유모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그곳의 동쪽 집들은 모두 높은 테라스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이 성장하며 이 언덕 위로 올라왔기에, 이곳의 작은 목조 주택들은 대체로 연식이 더 오래되었다.

아이의 초기 기억 중 하나는 어느 겨울 오후, 거대한 난간이 처진 제방 위에서 바라본 풍경이다. 안개 낀 지붕과 돔, 침탑,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이 서쪽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붉고 금빛이며 보랏빛, 그리고 기묘한 초록빛이 뒤섞인 열병 같은 종말론적 노을을 배경으로, 그 풍경은 신비로운 보랏빛을 띠며 서 있었다. 주 의사당의 거대한 대리석 돔은 육중한 실루엣을 드러내며 우뚝 솟아 있었다. 타오르는 하늘을 가로막은 채층운의 틈새로 빛이 새어 나오자, 돔 꼭대기의 조각상은 마치 환상적인 후광을 두른 듯 보였다.

그가 조금 더 자라자, 그 유명한 산책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인내심을 잃고 그를 끌고 다니는 유모와 함께였으나, 점차 홀로 꿈결 같은 명상에 잠긴 채 걷곤 했다. 당시의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지금도 그려볼 수 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격에 금발이었으며, 학구적인 눈빛을 지닌 채 약간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있었다. 옷차림은 다소 흐트러져 있었고, 매력적이라기보다는 해롭지 않은 서투름이 지배적인 인상을 주는 청년이었다.

그는 선명한 대비를 찾아 헤매곤 했다. 산책 시간의 절반은 집 북서쪽의 허물어져 가는 식민지 시대 구역에서 보냈다. 그곳은 언덕이 스텝 퍼스 힐의 낮은 봉우리로 깎아지듯 내려앉는 곳이었다. 혁명 전쟁 이전 보스턴 마차가 출발하던 지점을 중심으로 빈민가와 흑인 거주지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나머지 절반은 조지, 베네볼런트, 파워, 윌리엄스 거리가 있는 남쪽의 우아한 구역에서 보냈다. 그곳의 완만한 경사지에는 오래된 저택들과 담장으로 둘러싸인 정원, 그리고 수많은 향기로운 기억이 머무는 가파른 녹색 골목들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윌렛 박사는 확신하고 있다. 불길한 변화가 시작된 이번 겨울이 오기 전까지, 찰스 텍스터 워드의 고물 수집 취미에는 병적인 기색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에게 묘지는 그저 기묘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일 뿐, 특별한 매력을 느끼는 대상은 아니었다. 또한 그는 폭력성이나 야만적인 본능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하지만 작년, 그가 가문의 계보를 추적하며 거둔 성과 뒤로 기묘한 후폭풍이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밀려들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외

가 쪽 조상 중에서 조지프 커웬이라는 아주 장수한 인물을 찾아냈다. 커웬은 1692년 3월에 세일럼에서 건너온 인물이었는데, 그를 둘러싸고 매우 기이하고 불안한 이야기들이 속삭임처럼 떠돌고 있었다.

* * * * *

워드의 고조할아버지인 웰컴 포터는 1785년에 '제임스 킬링하스트 선장의 딸인 엘리자 부인의 딸, 앤 킬링하스트'라는 여인과 결혼했다. 그러나 가문에서는 그녀(앤)의 친부가 누구인지에 관한 어떠한 흔적도 남겨두지 않았다.

1918년 말, 젊은 계보학자가 마을의 원본 수기 기록물들을 조사하던 중 한 구절을 발견했다. 그 기록에는 성명을 변경했다는 법적 절차가 적혀 있었다. 1772년, 조지프 커웬의 미망인인 엘리자 커웬 부인은 일곱 살 난 딸 앤과 함께 자신의 본래 성인 킬링하스트로 돌아갔다. 기록에 따르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남편이 사망한 후 알려진 사실들로 인해 그의 이름이 공공의 수치가 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오래전부터 떠돌던 소문을 뒷받침하는 것이나, 충실한 아내로서는 그것이 완전히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기록은 세심하게 붙여져 페이지 번호까지 하나로 수정되어 있던 두 장의 종이가 우연히 떨어지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찰스 텍스터 워드는 자신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5대조 할아버지를 정말로 찾아냈다는 사실을 즉각 깨달았다. 이른바 '은폐된' 인물과 자신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그에 관한 정

보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흥분된 마음으로 시작된 이 탐색은 결국 그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다. 거미줄이 가득한 프로비던스의 다락방과 여러 곳에서 발견된 오래된 편지, 일기, 그리고 미출판 회고록 몽치들 속에는, 작성자들이 굳이 파기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남겨둔 결정적인 기록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뉴욕이라는 먼 곳에서도 중요한 단서가 하나 발견되었다. 프론시스 태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로드아일랜드 식민지 시대의 서신들 중에는 유의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윌렛 박사의 견해에 따르면, 워드를 파멸로 이끈 결정적인 원인은 1919년 8월, 올니 코트에 있는 허물어져 가는 저택의 벽면 뒤에서 발견된 물건이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그 물건이 심연보다 더 깊은 어둠의 풍경을 워드 앞에 펼쳐 보였다.

2. 선조와 공포

워드가 전해 들은 이야기와 발굴해낸 파편적인 전설들이 보여주는 조지프 커웁은, 실로 경악스럽고 수수께끼 같으며, 형언할 수 없이 끔찍한 인물이었다. 그는 대규모 마녀사냥의 공포가 몰아치던 시기에 세 일럼을 떠나 프로비던스로 도망쳤다. 기이한 자들과 자유로운 이들, 그리고 이단자들이 모여드는 안식처와도 같은 그곳으로 말이다. 그는 홀로 지내는 습성과 기묘한 화학 및 연금술 실험 때문에 누군가에게 고발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당시 서른 살 남짓이었던 그는 생기 없는 안색의 사내였으나, 곧 프로비던스의 자유 시민 자격을 얻었다. 그 후 그는 올니 스트리트 초입,

그레고리 텍스터의 집 바로 북쪽에 위치한 부지를 사들였다. 그의 집은 타운 스트리트 서쪽 스탬퍼스 언덕, 즉 훗날 올니 코트라 불리게 될 곳에 세워졌다. 1761년, 그는 같은 자리에 더 큰 집을 새로 지었는데, 그 건물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조지프 커웁에 대해 처음으로 기이하게 느껴지는 점은, 그가 프로비던스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 비교해 나이를 별로 먹지 않은 듯 보였다는 사실이다. 그는 해운업에 종사하며 마일엔드 코브 인근의 부두를 매입했고, 1713년에는 그레이트 브리지 재건 사업을 도왔으며, 1723년에는 언덕 위 회중교회를 세운 창립 멤버 중 한 명이 되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그는 서른 혹은 서른다섯 살을 크게 넘지 않은 듯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외모를 늘 유지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쌓이자 이 기묘한 특징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러나 커웁은 늘 자신이 강인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체질이며, 몸을 축내지 않는 소박한 생활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박한 삶이라는 말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인이 밤낮없이 오가는 행보나 밤마다 창문 너머로 번뜩이는 기괴한 불빛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사람들은 그가 젊음과 장수를 유지하는 데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 추측하기 시작했다. 대개는 커웁이 끊임없이 화학 약품을 섞고 끓이는 행위가 그의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

결국 낯선 이가 나타난 지 50년이 넘도록 그의 얼굴과 체격에 5년치의 변화조차 보이지 않자, 사람들의 속삭임은 점차 어두운 음모론으

로 변해갔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늘 보여왔던 고립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듯,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개인적인 편지와 일기들을 살펴보면, 조지프 커웁이 왜 그토록 경이로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결국 역병처럼 기피당했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유가 드러난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차림으로든 묘지에서 목격되곤 했는데, 그 기괴한 집착은 이미 악명이 높았다. 비록 그가 실제로 구울 같은 짓을 저지르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말이다. 그는 포터킷 도로에 농장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대개 여름이면 그곳에서 지냈으며 낮이나 밤이나 기이한 시간에 말을 타고 그곳을 오가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그 농장에서 눈에 띄는 하인은 뚱한 표정의 나래건셋 인디언 노부부뿐이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기묘한 흥터가 가득했으며, 아내는 흑인의 피가 섞인 탓인지 매우 불쾌한 인상을 풍겼다.

이 집의 덧붙여진 부속 건물 안에는 대부분의 화학 실험이 이루어지는 실험실이 있었다. 뒷문의 작은 문으로 병이나 자루, 상자를 배달하러 온 호기심 많은 짐꾼과 마부들은 낮은 선반이 놓인 그 방에서 보았던 기이한 플라스크와 도가니, 증류기, 용광로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들은 입이 무거운 그 '화학자'—사실 연금술사를 뜻하는 말이었다—가 머지않아 현자의 돌을 찾아낼 것이라고 낮은 목소리로 예언하기도 했다.

이 농장에서 4분의 1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 펜너 가족은 커웁의 집에서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에 대해 더욱 기괴한 이야기를 늘어놓

았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밤마다 비명과 끊이지 않는 울부짖음이 들려왔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목초지에 가득 들어찬 엄청난 수의 가축들도 마땅치 않게 여겼다. 게다가 창문이라고는 높고 좁은 틈새뿐인 커다란 석조 부속 건물에서도 무언가 매우 불쾌한 기운이 느껴졌다고 한다.

그레이트 브릿지의 한가한 입방아꾼들 역시 올니 코트에 있는 커웁의 저택에 대해 할 말이 많았다. 그들이 주로 떠들던 것은 1761년에 지어진 화려하고 새것 같은 저택이 아니었다. 당시 커웁의 나이는 거의 백 세에 가까웠을 테니 말이다. 대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은 창문 하나 없는 다락방과 지붕널을 덧댄 판자 벽을 가진, 낮고 꺾인 지붕의 첫 번째 저택이었다. 커웁은 그 저택을 철거한 뒤, 목재들을 태워버리는 기이한 예방 조치까지 취했다.

물론 이곳에는 미스터리라 할 만한 것이 비교적 덜하긴 했다. 하지만 불빛이 켜지는 수상한 시간대나, 유일한 하인들이었던 검은 피부의 외국인 두 명의 은밀한 태도, 그리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나이 든 프랑스인 가정부의 기괴하고 불분명한 중얼거림은 충분히 의심스러웠다. 게다가 고작 네 명만이 사는 집으로 엄청난 양의 음식이 드나드는 모습이나, 아주 부적절한 시각에 죽은 듯이 낮게 들려오던 어떤 목소리들의 기묘한 음색까지 더해졌다. 이러한 사실들이 포터킷 농장에 대해 알려진 정보들과 맞물리면서, 그 저택은 악명 높은 곳이 되었다.

* * * * *

상류층 사교계에서도 커웁의 저택은 결코 화젯거리에서 비껴가지 않았다. 새로 이주해 온 그가 마을의 교회와 상업 활동에 점차 녹아들

면서, 자연스럽게 상류층 인사들과 안면을 텃기 때문이었다. 그는 교육을 잘 받은 덕분에 그들과 어울리며 대화를 나누기에도 충분한 소양을 갖추고 있었다.

그의 가문은 유서 깊은 곳이었다. 뉴잉글랜드에서 세일럼의 커웬 혹은 카웬 가문을 모르는 이는 없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조지프 커웬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녔다. 그는 한동안 영국에서 지냈으며, 동양으로 최소 두 차례나 항해를 떠나기도 했다. 그가 마지못해 입을 열 때면, 마치 학식과 교양을 갖춘 영국인처럼 말하곤 했다. 그의 태도에는 무언가 수수께끼 같으면서도 냉소적인 오만함이 서려 있는 듯했다. 마치 인간보다 훨씬 기이하고 강력한 존재들 사이를 누비며 살아온 탓에, 모든 인간이 지루하고 하찮게 느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다.

1746년, 문학과 과학에 조예가 깊은 영국의 노신사 존 메릿 씨가 뉴포트에서 이 마을로 이주해 왔다. 당시 이 마을은 뉴포트의 위상을 빠르게 추월하며 성장하던 중이었다. 메릿 씨는 현재 가장 고급스러운 주택가인 넥(Neck) 지역에 멋진 전원 저택을 지었고, 그곳에서 상당히 품격 있고 안락한 생활을 누렸다.

메릿 씨는 커웬이 프로비던스에서 가장 훌륭한 장서를 보유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고 일찍이 그를 방문했다. 커웬은 그를 그 집을 찾아온 다른 손님들보다 훨씬 더 정중하고 따뜻하게 맞이했다. 커웬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초대할 적이 없던 자신의 농가와 실험실로

메릿 씨를 안내하겠다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곧장 메릿 씨의 마차를 타고 길을 나섰다.

메릿 씨의 말에 따르면, 커웨이 앞방에 보관하던 마술과 연금술, 그리고 신학 서적들로 이루어진 특별 서고의 책 제목만 보아도 평생 잊지 못할 혐오감이 들기에 충분했다고 한다. 메릿 씨가 부러워할 정도로 평범한 고전들이 꽤 섞여 있긴 했지만, 이 기괴한 수집품들은 인류에게 알려진 거의 모든 카발라 학자, 악마학자, 그리고 마법사들의 저술을 망라하고 있었다. 또한 연금술과 점성술이라는 불온한 영역의 지식들이 가득 찬 보물창고나 다름없었다. 메스나르 판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 《철학자들의 무리(Turba Philosophorum)》, 게베르의 《조사서(Liber Investigationis)》, 아르테푸스의 《지혜의 열쇠(Key of Wisdom)》가 모두 그곳에 있었다. 그 곁으로는 카발라 서적인 《조하르(Zohar)》와 피터 재미가 엮은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전집, 제츠너 판 라몬 룰리의 《대마술과 최종술(Ars Magna et Ultima)》, 로저 베이컨의 《화학 보물창고(Thesaurus Chemicus)》, 플러드의 《연금술의 열쇠(Clavis Alchimiae)》, 그리고 트리테미우스의 《철학자의 돌에 관하여(De Lapide Philosophico)》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중세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저술도 풍부하게 갖춰져 있었다. 그러던 중 메릿 씨는 《이슬람의 규범(Qunoon-e-Islam)》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힌 근사한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가 안색이 창백해지고 말았다. 그 책의 실체는 바로 미친 아랍인 압둘 알하즈레드가 쓴 금서, 《네크로노미콘(Necronomicon)》이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매사추세츠만 주의 기

묘한 작은 어촌 킹스포트에서 이름 붙일 수 없는 의식들이 폭로된 이후, 그는 이 책에 대해 괴담처럼 떠도는 끔찍한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고결한 신사는 아주 사소한 세부 사항 하나 때문에 형언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음을 고백했다. 거대한 마호가니 탁자 위에는 낡은 보렐루스의 책 한 권이 엮드린 채 놓여 있었다. 그 책의 여백과 행간에는 커웨이의 필체로 적힌 수많은 암호 같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책은 중간쯤 펼쳐져 있었다. 신비로운 검은색 고어체 문장들 아래로, 유난히 굵고 떨리는 필체가 남겨진 한 단락이 눈에 들어왔다. 방문객은 그 문장을 끝까지 읽어보지 않고는 건드릴 수 없었다. 그는 죽는 날까지 그 구절을 기억했다. 일기장에 기억을 더듬어 적어 내려가기도 했고, 한 번은 절친한 친구인 체클리 박사에게 그 내용을 읊어주려 시도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 품위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크게 동요하는지를 보고는 곧 그만두어야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동물의 정수(精髓)를 담은 염(鹽)을 적절히 조제하고 보존한다면, 영리한 자는 자신의 서재 안에 노아의 방주를 통째로 옮겨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원할 때마다 그 재로부터 동물의 정교한 형상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유골에서 추출한 염을 이용한다면, 철학자는 범죄적인 강령술을 부리지 않고도 시신이 타버린 그 먼지 속에서 죽은 조상의 형상을 불러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 * * * *

하지만 조지프 커웬에 관한 가장 끔찍한 소문들이 속삭여지는 곳은 타운 스트리트 남쪽 부두 근처였다. 선원들은 미신을 잘 믿는 부류였다. 노란 머리에 약간 구부정한 체구, 겉보기엔 젊어 보일 정도로 날렵한 그 형체가 더블론 스트리트에 있는 커웬의 창고로 들어가는 것을 보거나, 커웬의 배들이 불안하게 정박해 있는 긴 부두에서 선장 및 화물 책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때면, 선원들은 저마다 기괴하고 은밀한 몸짓으로 액운을 쫓았다. 커웬의 직속 서기들과 선장들조차 그를 증오하고 두려워했다. 그를 따르는 선원들은 마르티니크나 세인트 유스타티우스, 아바나, 혹은 포트 로열에서 온 잡다한 부류의 부랑자들 뿐이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선원들이 끊임없이 교체된다는 사실 이야말로 노인이 불러일으키는 공포 중 가장 날카롭고 실질적인 부분을 형성했다. 시간이 흐르자 커웬은 이 기묘하게 뒤섞인 수하들을 유지하는 것조차 극도로 어려워졌다.

그사이 상인의 사업은 번창했다. 그는 초석과 흑후추, 계피 무역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다. 또한 황동 제품, 인디고, 면화, 모직물, 소금, 삭구, 철, 종이, 그리고 온갖 종류의 영국산 물품을 수입할 때도 브라운 가문의 선적 업체를 제외한 마을의 다른 어떤 업체보다 앞서 나갔다. 사실 커웬은 이 식민지의 주요 수출업자 중 한 명이었다.

* * * * *

기이하고 창백한 이 남자의 모습은 참으로 가련하면서도 극적이었고, 동시에 경멸스러웠다. 겉모습은 중년이라 보기 어려웠으나, 실제

나이는 분명 백 세를 훌쩍 넘긴 노인이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형언할 수도 분석할 수도 없는 공포와 혐오의 구름 속에서 마침내 벗어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부와 겉치레가 지닌 힘은 막강했다. 그를 향한 사람들의 노골적인 거부감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특히 선원들이 하나둘 급작스럽게 사라지던 일이 멈추자 더욱 그러했다. 그는 묘지를 드나드는 행각을 극도로 조심하며 비밀리에 수행하기 시작한 듯했다. 다시는 그런 방향을 하다가 붙잡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포터킷 농장에서 들려오던 기괴한 소리와 수상한 움직임에 관한 소문도 점차 잦아들었다.

뒤늦게 이루어진 이 모든 수술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커웬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피와 불신의 대상이었다. 사실 그가 엄청난 명령임에도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커웬 스스로도 결국 자신의 운명이 기율 수밖에 없음을 직감했다.

그래서 이 무렵, 교활한 학자는 사회적 지위를 되찾기 위해 마지막 필사적인 방책을 떠올렸다. 지금까지 철저히 은둔자로 지내왔던 그는 이제 이득이 될 만한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다. 신부로 선택할 여인이 사회적 지위가 확고하여, 그 누구도 자신의 가문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들 작정이었다. 어쩌면 그가 결합을 원했던 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인간이 아는 우주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어서, 그가 죽고 한 세기 반이 지난 뒤에야 발견된 기록들을 통해서만 겨우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확실히 알 길이 없다.

당연하게도 커웬은 평범한 구애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공포와 분노를 불러일으킬지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부모에게 적절한 압력을 가할 수 있을 만한 유력한 후보를 물색했다. 하지만 적당한 상대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커웬이 요구하는 미모와 교양, 그리고 사회적 배경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의 탐색은 오랜 친분이 있는 가장 신뢰하는 선장 중 한 명의 집안으로 좁혀졌다. 그 선장은 뒤티 킬링하스트라는 이름의 사별한 남성으로, 가문이 높고 평판 또한 깨끗했다. 그의 외동딸 엘리자는 상속녀로서의 전망을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조건을 갖춘 듯 보였다. 킬링하스트 선장은 커웬의 지배 아래 완전히 놓여 있었다. 결국 그는 파워스 레인 언덕에 있는 돔 형태의 저택에서 커웬과 끔찍한 면담을 가진 뒤, 이 신성모독적인 결합을 승인하고 말했다.

* * * * *

당시 엘리자 킬링하스트는 열여덟 살이었으며, 가세가 기울어 형편이 어려워진 아버지의 처지에서 가능한 한 온화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 커웬과의 혼사를 두고 아버지와 벌였을 논쟁은 분명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 논쟁에 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확실한 사실은, 그녀가 크로퍼드 사의 정기선 엔터프라이즈호의 이등 항해사인 젊은 에즈라 위튼과 나누었던 약혼을 의무적으로 파기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1763년 3월 7일, 마을에서 가장 저명한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침례교회에서 조지프 커웬과의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집례는 가장 젊은 사무엘 윈슨이 맡았다.

《가제트》지는 이 사건을 아주 짧게 언급했는데, 현존하는 대부분의 판본에서는 해당 기사가 잘려 나갔거나 찢겨 나간 것으로 보인다. 워드는 유명한 개인 수집가의 기록 보관소를 샅샅이 뒤진 끝에 유일하게 온전한 판본 하나를 찾아냈다. 그는 기사에 쓰인,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정중한 문체를 흥미롭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지난 월요일 저녁, 이 마을의 상인인 조지프 커웬 씨가 엘리자 킬링하스트 양과 결혼식을 올렸다. 엘리자 양은 듀티 킬링하스트 선장의 딸로,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참된 덕성까지 갖춘 젊은 여인이다. 그녀의 존재는 결혼 생활을 더욱 빛내고 그 행복을 영원히 이어가 줄 것이다.

하지만 킬링하스트 가문의 사회적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덕분에 조지프 커웬의 집에는 평소라면 결코 문턱을 넘지 않았을 사람들이 다시금 드나들기 시작했다. 물론 그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억지로 이 모험에 뛰어든 신부만이 사교계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완전한 외면의 벽은 어느 정도 허물어진 상태였다.

기이한 신랑인 커웬은 아내를 대할 때 극도로 정중하고 사려 깊은 모습을 보였다. 이 모습은 아내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를 놀라게 했다. 올니 코트에 새로 지은 집에서는 더 이상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다. 커웬은 아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포터킷의 농장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 긴 거주 기간 중 지금까지 평범한 시민처럼 보였던 적은 없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엘리자 킬링 하스트와의 약혼이 갑작스럽게 깨져버린 젊은 항해사였다. 에즈라 위든은 노골적으로 복수를 맹세했다. 본래 성격이 온순하고 조용했던 그는, 이제 증오로 다져진 끈질긴 집념을 품게 되었다. 이 집념은 자리를 찬탈한 남편인 커웬에게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1765년 5월 7일, 커웬의 외동딸 앤이 태어났다. 앤은 킹스 교회의 존 그레이브스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커웬 부부는 결혼 직후, 각자의 회중교회와 침례교 신앙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고자 킹스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

이 출생 기록과 2년 전의 결혼 기록은 마땅히 실려 있어야 할 교회의 연대기나 마을 기록물 대부분에서 삭제되어 있었다. 찰스 워드는 이 기록들을 찾아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했다. 그는 미망인이 성을 바꿨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에야 비로소 자신과 그들 사이의 혈연관계를 깨달았고, 그 사실은 광기로 치닫는 열띤 집착의 불씨가 되었다.

사실 이 출생 기록은 매우 기묘한 경로를 통해 발견되었다. 워드는 혁명 전쟁이 발발하자 목회지를 떠나며 기록 사본을 따로 챙겨갔던 충성과 존 그레이브스 박사의 후손들과 서신을 주고받은 끝에 기록을 찾아낼 수 있었다. 워드가 이쪽 경로를 조사한 이유는 자신의 고조모인 앤 킬링하스트 포터가 성공회 신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지프 커웬은 딸이 태어나자마자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결심했다. 평소의 냉담한 성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만큼, 그는 딸의 탄생을

열렬히 환영하는 듯 보였다. 초상화는 당시 뉴포트에 거주하던 코스모 알렉산더라는 매우 재능 있는 스코틀랜드인이 그렸다. 그는 훗날 길버트 스튜어트의 초기 스승으로 이름을 떨치게 된다. 이 초상화는 올니 코트 저택 서재의 벽면 패널에 그려졌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를 언급한 두 권의 오래된 일기 어디에서도 그 초상화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단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 * * * *

1766년, 조지프 커웁에게 마지막 변화가 찾아왔다. 그 변화는 매우 갑작스러웠고, 호기심 많은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단숨에 끌었다. 그를 감싸고 있던 긴장과 기대의 기류는 마치 낡은 망토를 벗어 던지듯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완벽한 승리를 거둔 듯한 노골적인 환희가 들어찼다. 7월 초순경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이 변화 이후, 불길한 학자는 사람들을 경악시키기 시작했다. 이미 오래전에 죽어 사라진 조상들만이 전해줄 수 있을 법한 정보들을 그가 마치 직접 알고 있는 것처럼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커웁의 광기 어린 비밀스러운 활동은 이러한 변화와 함께 결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활동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을 보였다. 커웁은 파산의 공포만큼이나 강력한 위협으로 선장들을 몰아매었고, 그 결과 그의 해운 사업은 점점 더 이 선장들의 손을 거쳐 처리되었다. 그는 노예 무역의 이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핑계를 대며, 아예 노예 무역을 완전히 손에서 놓았다.

커웬은 포터킷 농장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가끔 그가 묘지 근처는 아니더라도, 묘지와 묘하게 맞닿아 있는 기묘한 장소에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려 깊은 이들은, 이 노련한 상인의 생활 방식이 대체 어디까지 변한 것인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에즈라 위든은 항해 업무 때문에 감시를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은 짧고 간헐적이었으나,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마을 사람이나 농부들에게는 없는 집요하고도 악착같은 성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커웬의 행적을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파헤치기 시작했다.

나래간셋만에서는 밀수와 도피가 일상이었다. 불법 화물을 실은 배들이 밤마다 몰래 상륙하는 일은 흔하디흔한 광경이었다. 하지만 위든은 밤마다 커웬의 창고가 있는 타운 스트리트 부두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부선이나 작은 슬루프선을 뒤쫓았다. 그러던 그는 곧 확신하게 되었다. 그 불길한 은둔자가 피하려 하는 것이 비단 국왕의 무장 군함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부선들은 검고 고요한 부두를 떠나 만을 따라 한참을 내려가곤 했다. 아마도 남퀴트 포인트 근처까지는 갈 터였다. 그곳에서 부선들은 외형이 제각각인 거대한 이국적 선박들을 만나 화물을 건네받았다. 커웬의 선원들은 그 화물을 해안의 정해진 지점에 내려놓은 뒤, 육로를 통해 농장으로 옮겼다. 그리고는 예전에 흑인 노예들을 가두어 두었던 그 기괴한 석조 건물 안에 화물을 가두었다. 화물은 거의 대부분 상자

나 케이스 형태였는데, 그중 상당수는 길쭉하고 무거워서 보는 이로 하여금 관을 떠올리게 하는 불길한 기운을 풍겼다.

위든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농장을 감시했다. 그는 매일 밤 농장을 찾아가 오랫동안 머물렀고, 발자국이 남을 만큼 눈이 쌓인 날을 제외하고는 일주일 중 단 하루도 감시를 거르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해상 임무 때문에 감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자, 그는 술집에서 알게 된 엘리아저 스미스라는 인물을 고용해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조사를 이어가게 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쳤다면 기괴한 소문이 건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갔을 것이다. 그럼에도 소문을 내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소문이 퍼지면 추적 대상이 경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의 진척이 불가능해질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 * * *

위든과 스미스는 농장 지하에 거대한 터널과 지하 묘지들이 뻗어 있다는 사실을 일찍이 확신했다. 그곳에는 늙은 인디언 부부 외에도 상당한 인원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듯했다. 농장의 저택은 17세기 중반의 양식을 간직한 오래된 박공지붕 건물로, 거대한 굴뚝과 다이아몬드 모양의 격자창이 특징이었다. 실험실은 북쪽으로 덧붙여 지은 부속 건물에 있었는데, 그곳은 지붕이 지면 근처까지 낮게 내려앉은 형태였다. 이 건물은 다른 구조물과 떨어져 독립적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가끔 건물 안에서 들려오는 각기 다른 목소리들로 미루어 볼 때, 지하의 비밀 통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했다.

그 목소리들은 무기력하게 수궁하는 웅얼거림부터 광기 어린 고통이나 분노의 폭발에 이르기까지 온갖 범위를 넘나들었다. 때로는 낮은 대화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애원하는 듯한 신음이나 갈구하는 숨소리, 혹은 항의하는 외침이 들리기도 했다. 그 목소리들은 서로 다른 언어들로 들렸는데, 커웬은 그 모든 언어에 능통한 듯했다. 그가 대답하거나 꾸짖거나 위협할 때면, 특유의 쉿소리 섞인 말투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들려왔다.

위든의 수첩에는 그가 우연히 엿들은 대화의 파편들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영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구사할 줄 알았기에 이 언어들이 자주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그 기록들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위든의 말에 따르면, 프로비던스 가문의 과거사를 다룬 기괴한 대화 몇 가지를 제외하면, 그가 이해할 수 있었던 질문과 답변의 대부분은 역사나 과학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 때로는 아주 먼 곳이나 먼 과거의 시대에 관한 내용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격노와 침묵을 반복하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던 한 인물이 프랑스어로 질문을 받는 일이 있었다. 질문의 내용은 1370년 리모주에서 벌어진 흑태자의 학살에 관한 것이었는데, 마치 그 인물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는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고 한다. 커웬은—그 대상이 죄수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나—살육의 명령이 내려진 이유를 물었다. 대성당 아래 고대 로마식 지하 묘지 제단에서 발견된 염소의 표식 때문인지, 아니면 오토 비엔 마녀 집단의 '어둠의 사내'가 세 마디 주문을 읊었기 때문인지 확인하려 한 것이다.

질문자가 답변을 얻어내는 데 실패하자, 그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한 듯했다. 무시무시한 비명 소리가 한 차례 울려 퍼지더니, 이내 정적이 찾아왔고, 그 뒤로 중얼거리는 소리와 무언가 쿵쿵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고 한다.

창문에는 항상 두꺼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기에, 그 누구도 이 대화들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었다. 이후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어떤 대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위든과 스미스는 커웁이 활동 영역을 지하 세계로 옮겼다고 결론지었다.

그런 영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러 정황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 건물 하나 없는 외딴곳, 단단한 땅처럼 보이는 곳에서 이따금 희미한 비명과 신음이 분명하게 들려왔다. 또한 뒤편 강둑을 따라 덤불 속에 숨겨진 곳에서는 기묘한 것이 발견되었다. 포터킷 계곡으로 가파르게 깎아지른 고지대에는 무거운 석조 틀에 박힌 아치형 참나무 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 언덕 내부의 동굴로 이어지는 입구였다.

1770년 1월이었다. 위든과 스미스가 이 당혹스러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지 헛된 논쟁을 이어가던 중, '포르탈레사호' 사건이 발생했다. 전년도 여름, 뉴포트에서 세관 슬루프선인 '리버티호'가 불타버린 일로 격분해 있던 윌리스 제독 휘하의 세관 함대는 수상한 선박들에 대해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한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 찰스 레시 선장이 이끄는 국왕 폐하의 무장 스쿠너선 '시그넛호'가 짧은 추격 끝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적의 '포르탈레사호'를 나포했다. 마누엘 아루다 선장이 지휘하던 이 배는 항해 일지에 따르면 이집트 그랜드 카이로를 출발해 프로비던스로 향하던 중이었다. 밀수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박을 수색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화물 전체가 이집트 미라로만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화물 수하인은 '선원 A. B. C.'로 되어 있었는데, 그는 남킷 포인트 인근에서 부선(lighter)을 이용해 물건을 실어 갈 예정이었다. 아루다 선장은 수하인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명예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함구했다.

뉴포트 부해사법원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화물 자체는 밀수품이 아니었지만, 입항 과정이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로빈슨 세관장의 권고에 따라, 법원은 선박을 풀어주되 로드아일랜드 영해 내의 어떤 항구에도 입항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후 이 배가 보스턴 항에서 목격되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보스턴 항에 공식적으로 입항한 적은 없었다.

이 기이한 사건은 프로비던스 전역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미라 화물과 불길한 조지프 커웁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마을의 그 누구에게도 전달될 리 없는 이 기괴한 수입품이 커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큰 상상력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위든과 스미스는 당연히 이 사건의 의미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커웁과 그가 벌이는 괴물 같은 작업들에 대해 온갖 터무니없는 추측을 늘어놓았다.

이듬해 봄 역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폭우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커
웬 농장 뒤편의 강둑을 면밀히 감시했다. 강둑의 넓은 구역이 씻겨 내
려가면서 뼈 몇 점이 발견되기도 했으나, 지하 방이나 굴의 실체를 엿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강물이 암석 테라스를 타고 폭포처럼 떨어져
잔잔한 내해로 흘러드는, 약 1마일 아래 포터킷 마을에는 흥흥한 소문
이 돌기 시작했다. 다리 근처의 어부들은 기괴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몸
서리쳤다. 무언가가 아래쪽의 고요한 물속을 향해 쏜살같이 미끄러져
내려가며 눈을 부라리던 모습,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던 모습 때문이었다. 비록 그 울음소리는 일반적인 생명체의 것
과는 판이하게 달랐으나, 분명 비명과도 같았다.

그 소문은 스미스를 서둘러 농장 뒤편 강둑으로 달려가게 만들었다.
당시 위든은 바다에 나가 있었지만, 스미스가 도착한 그곳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광범위한 땅굴 붕괴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스미스는 직접
땅을 파보며 실험적인 시도까지 했으나,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성과
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혹시라도 무언가 발견될까 두려웠
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만약 집요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위든이 그때 육
지에 있었다면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묘
한 기분이 든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 사실을 알릴 책임자들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금성 통과 현상을 다룬 소책자를 통해 학식과 예리한 통찰력을 증명하
벤자민 웨스트 박사, 그리고 대학 총장인 제임스 매닝 목사가 있었다.

뉴포트 철학 협회의 회원이자 식견이 매우 넓은 인물이었던 스티븐 흄킨스 전 주지사, 《가제트》지의 발행인 존 카터도 후보였다. 또한 지역의 유력 인사인 브라운 가문의 네 형제, 즉 존, 조셉, 니콜라스, 모세도 포함되었다. 커웁이 벌였던 기이한 물건 구매 행태를 직접 목격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춘 노년의 자베즈 보웬 박사, 그리고 어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앞장서서 이끌어줄 만큼 경이로운 용기와 활력을 지닌 사략선장 아브라함 휘플 선장까지, 이들이야말로 적절한 인물들이라 믿었다.

매튜슨 선장의 임무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위든이 들려준 이야기 중 유령과 관련된 대목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측근이 한두 명 있긴 했으나, 모두가 비밀리에 협력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커웁이 마을과 식민지 전체의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막연하지만 실질적인 위험 요소라는 사실은 자명했다. 따라서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제거해야만 했다.

1770년 12월 말, 마을의 저명한 인사들이 스티븐 흄킨스의 저택에 모여 임시 방편을 논의했다. 위든이 매튜슨 선장에게 건네준 기록물들이 세밀하게 검토되었고, 세부 사항을 증언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위든과 스미스도 자리에 불러 나왔다.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모인 이들 모두를 공포와도 같은 감정이 휩쓸었다. 하지만 그 공포 속에는 비장한 결의 또한 서려 있었다. 휘플 선장이 내뱉은 거칠고 울림 있는 욕설이 그 결의를 가장 잘 대변해주었다.

그들은 주지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단순한 법적 절차 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해 보였기 때문이다. 커웬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은밀한 힘을 부리고 있는 듯한 인물이었기에, 단순히 마을을 떠나라고 경고하는 것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다. 대신 노련한 사략선원들로 구성된 대규모 습격조가 포터킷에 있는 그의 농장을 기습해야 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단 한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주어야 했다.

만약 그가 여러 목소리로 환청을 들으며 혼잣말을 즐기는 미친놈에 불과하다면, 적절히 격리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만약 더 중대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지하의 공포가 정말 실재하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 경우 커웬과 그와 연루된 모든 이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다. 이 모든 일은 조용히 처리될 것이며, 미망인과 그녀의 부친에게조차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릴 필요는 없었다.

* * * * *

이러한 중대한 조치들이 논의되던 중, 마을에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불가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충격이 워낙 커서 한동안 인근 수 마일 내에서는 이 사건 외에 다른 이야기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눈이 두껍게 쌓인 어느 1월의 달밤이었다. 달빛이 비치는 밤, 강 너머와 언덕 위로 소름 끼치는 비명 소리가 연달아 울려 퍼졌다. 잠에 취해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에 놀라 앞다투어 창가로 모여들었다. 웨이보셋 포인트 인근 주민들은 '터크스 헤드' 앞의 거칠게 치워진 공터에서,

거대한 흰 형체가 미친 듯이 날뛰며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멀리서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마을 사람들이 깨어나 소란스러워지자 그 소리도 이내 잦아들었다. 등불과 머스킷 총을 든 사내들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 서둘러 나갔지만, 그 어떤 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애보트의 증류소 옆으로 룡 독이 뺏어 있는 그 레이트 브리지 남쪽 부두 근처의 얼음 더미 위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거대하고 근육질인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 시신의 정체는 끝없는 추측과 속삭임의 대상이 되었다.

속삭임을 시작한 것은 젊은이들이 아니라 노인들이었다. 공포로 눈이 튀어나올 듯한 그 굳어버린 얼굴을 보고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이는 오직 마을의 원로들뿐이었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몸을 떨며 경악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로 은밀하게 수군거렸다. 그 딱딱하고 흥측한 이 목구비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운 닳은꼴, 아니 거의 동일인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유사성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무려 5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에즈라 위든도 그 발견의 현장에 있었다. 그는 전날 밤 들려오던 그 울부짖음 소리를 기억하며,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따라 웨이보셋 거리를 지나 머디 독 다리까지 나아갔다. 묘한 기대감이 그를 감돌았다. 거리가 포터킷 도로와 합쳐지는 주거지 경계에 다다랐을 때, 눈 위에 찍힌 기이한 발자국들을 발견하고도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벌거벗은 거인이 개들과 장화를 신은 수많은 사내에게 쫓긴 모양이었다. 사냥개

와 주인들이 되돌아간 발자국은 쉽게 추적할 수 있었다. 그들은 마을에 너무 가까워지자 추적을 포기한 듯했다. 위든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별 관심 없는 척 발자국을 따라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갔다. 예상했던 대로, 그곳은 조지프 커웁의 포터킷 농장이었다. 마당이 이토록 어지럽게 짓밟혀 있지 않았다면 그는 기꺼이 많은 것을 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낮이라 너무 관심을 보이는 척할 수 없었다.

위든은 즉시 보고를 위해 보웬 박사를 찾아갔다. 박사는 그 기이한 시신을 부검했으나,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점들을 발견하고는 완전히 당혹감에 빠졌다. 거구의 남자가 가진 소화 기관은 마치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온몸의 피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거칠고 성기게 짜인 질감을 띠고 있었다. 이 시신이 오래전에 죽은 대장장이 다니엘 그린과 닮았다는 노인의 속삭임에 위든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다니엘 그린의 증손자인 에런 호핀은 커웁 밑에서 화물을 관리하는 수퍼카고로 일하고 있었다. 위든은 그린의 어디에 묻혔는지 알아낼 때까지 무심한 척 질문을 던졌다.

그날 밤, 열 명의 일행이 헤렌튼 골목 맞은편에 있는 오래된 노스 묘지를 찾아가 무덤 하나를 파헤쳤다. 그들은 예상했던 대로, 비어 있는 무덤을 마주했다.

[삽화: "그들은 예상했던 그대로, 텅 빈 무덤을 발견했다."]

그사이 조지프 커웁에게 배달되는 우편물을 가로채기 위해 파출 기사들과의 협조 체계도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다 나체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세일럼의 제데다이어 오른이 보낸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는데, 이 편지는 협력 중이던 시민들을 깊은 고민에 빠뜨렸다. 찰스 텍스터 워드가 발견했던 스미스 가문의 개인 기록 보관소에는 그 편지의 일부가 필사되어 보존되어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당신만의 방식으로 옛 문제들을 계속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세일럼 빌리지의 허친슨 씨 집에서 행해진 일이 그보다 더 나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H가 수집한 정보의 일부만으로도 불러일으킨 그 일은, 그야말로 생생한 경외심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이 보낸 것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빠졌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말한 내용을 당신이 옮겨 적는 과정에서 단어가 잘못되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뿐입니다. 나는 보렐루스를 따라갈 만한 화학적 기술이 없으며, 당신이 추천해 준 『네크로노미콘』 제7권에 스스로 혼란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불러낼 것인지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당신은 마더 씨가 『마그날리아』에 무엇이라 썼는지 잘 알고 있을 테니, 그 끔찍한 사실이 얼마나 진실하게 보고되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다시 되돌려 보낼 수 없는 존재는 결코 불러내지 마십시오. 즉, 당신을 상대로 역으로 무언가를 불러낼 수 있는 존재라면, 당신의 그 강력한 수단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더 큰 존재가 응답하기를 거부하거나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차라리 작은 존재들에게 물으십시오.

벤 자리앗나트믹이 그 흑단 상자 안에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 당신이 알고 있다는 글을 읽었을 때 나는 겁에 질렸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었을지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하건대, 사이먼이 아니라 제데다이어로서 내게 편지를 써 주십시오. 이 공동체에서 인간은 그리 오래 살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온 계획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성벽 아래 지하 묘지에서, 그 흑인이 실바누스 코시디우스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내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 그 원고를 빌려준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온 또 다른 익명의 편지 역시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특히 다음 구절이 그러했다.

귀하의 선박을 통해서만 장부들을 보내겠다는 말씀은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그 장부들을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군요. 언급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귀하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하께서는 최상의 결과물을 얻으려면 단 한 부분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을 보장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귀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상자 전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위험 부담도 크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게다가 마을 안(즉, 세인트 피터, 세인트 폴, 세인트

트 메리, 혹은 크라이스트 처치)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10월에 만들어진 것들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1766년에 마침내 적절한 방식을 찾아내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생체 표본을 동원해야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안에 있어 귀하의 안내를 따르겠습니다. 귀하의 브리그 호를 애타게 기다리며, 매일 비들 씨의 부두에 들러 소식을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심스러운 편지는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여 있었으며, 심지어 알파벳조차 생소했다. 찰스 텍스터 워드가 발견한 스미스의 일기에는 자주 반복되는 특정 문자 조합이 서투른 필체로 베껴 적혀 있었다. 브라운 대학교의 전문가들은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지 못했으나, 사용된 문자는 암하라어 혹은 아비시니아어라고 판정했다. 이 편지들은 그중 어느 것도 커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다만, 그 직후 기록된 바에 따르면 세일럼에서 제데다이어 오른이 사라졌는데, 이는 프로비던스의 사람들이 조용히 어떤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준다.

커웬은 온갖 예방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직감한 듯했다. 평소와 달리 유난히 초조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기 때문이다. 그의 마차는 시내와 포터킷 도로 어디에서든 시시때때로 목격되었고, 최근 마을 사람들의 편견에 맞서기 위해 억지로 꾸며냈던 상냥한 태도도 점차 사라져 갔다.

그의 농장과 가장 가까이 이웃해 살던 페너 부부는 어느 날 밤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창문이 지나치게 좁고 높은 그 수상쩍은 석조 건

물 지붕의 틈새로, 거대한 빗줄기가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른 것이다.
페너 부부는 이 사건을 즉시 프로비던스에 있는 존 브라운에게 알렸다.

브라운 씨는 커웬을 뿌리 뽑으려는 정예 집단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페너 부부에게 곧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브라운
씨는 페너 부부에게 커웬의 농가를 감시하며,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라는 임무를 맡겼다.

기묘한 빗줄기가 암시하듯, 커웬이 경계 태세를 갖추고 비정상적인
일을 꾸미고 있을 가능성이 커지자, 결국 시민단이 치밀하게 준비해 온
행동이 시작되었다. 스미스의 일기에 따르면, 1771년 4월 12일 금요일
밤 10시, 다리 건너 웨이보셋 포인트에 있는 '황금 사자' 간판의 서스턴
여관 대강당에 약 100명의 남성이 모였다.

조직을 이끄는 주요 인사들 중에는 지도자인 존 브라운 외에도 보웬
박사가 수술 도구 상자를 들고 참석했다. 매닝 회장은 그가 유명했던
커다란 가발(식민지에서 가장 큰 것이었다)을 쓰지 않은 채 모습을 드러냈고, 홉킨스 주지사는 어두운 망토를 두르고 있었다. 주지사의 곁
에는 해군 출신인 동생 에세가 함께했는데, 주지사는 마지막 순간에 다
른 이들의 허락을 받아 동생을 이번 작전에 합류시켰다. 그 외에도 존
카터, 매튜슨 선장, 그리고 실제 습격대를 이끌 힙플 선장이 자리를 지
켰다.

지도부 일행은 뒤편 방에 따로 모여 회의를 나누었다. 회의를 마친 힙플 선장은 대강당으로 나와 모여 있던 선원들에게 마지막 맹세와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엘리아저 스미스 역시 지도부와 함께 뒤편 방에 앉아 에즈라 위든이 오기를 기다렸다. 위든의 임무는 커웬의 동태를 살피다가 그가 농장으로 향하는 마차를 타고 떠나는 순간을 보고하는 것이었다.

열 시 반쯤 되었을 때, 그레이트 브리지 쪽에서 육중한 울림이 들려왔다. 이어 거리 밖에서 마차가 달리는 소리가 뒤따랐다. 그 시각이라면 위든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저주받은 사내가 불경한 마법을 부릴 마지막 밤을 맞이하러 길을 떠났음을 직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멀어져 가는 마차가 머디 독 브리지를 지나며 희미하게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릴 무렵 위든이 나타났다. 거리로 나선 습격자들은 각자 지니고 있던 화승총과 사냥총, 혹은 고래잡이용 작살을 어깨에 메고 침묵 속에 군대식 대열을 갖추었다. 위든과 스미스도 이 무리에 합류했다. 신중하게 논의를 거친 시민들 중에서는 지도자인 힙플 선장, 에세 흙킨스 선장, 존 카터, 매닝 회장, 매튜슨 선장, 그리고 보웬 박사가 실전에 투입되기 위해 모였다. 또한 모세 브라운도 합류했는데, 그는 선술집에서 열린 사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마지막 순간에 급히 달려왔다. 이 자유 시민들과 백여 명의 선원들은 지체 없이 긴 행군을 시작했다. 머디 독을 뒤로하고 포터킷 도로로 이어지는 브로드 스트리트의 완만한 언덕을 오르는 그들의 모습은 엄숙했고, 한편으로는 약간의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약 한 시간 십오 분 뒤, 습격대는 사전에 약속한 대로 페너 농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목표물에 관한 마지막 보고를 들었다. 대상은 이미 삼십 분도 더 전에 자신의 농장에 도착해 있었으며, 그 직후 기이한 빛이 하늘을 향해 한 차례 솟구쳤다고 했다. 눈에 보이는 창문 중 불이 켜진 곳은 없었으나, 최근 들어 늘 그러했다.

보고가 이어지던 바로 그 순간, 남쪽 하늘을 향해 또 한 번 거대한 섬광이 치솟았다. 그제야 습격대는 자신들이 경악스럽고도 비정상적인 기현상이 벌어지는 현장에 아주 가까이 다가왔음을 깨달았다.

휘플 대장은 즉시 부대를 세 갈래로 나누라고 명령했다. 우선 엘리야저 스미스가 이끄는 20명은 해안가로 이동해 상륙 지점을 지키되, 커웁에게 증원군이 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하다가 절박한 상황이 닥쳐 전령이 부를 때까지 대기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에세 흙킨스 대장이 이끄는 20명은 커웁 농장 뒤편의 강 계곡으로 은밀히 내려가, 도끼나 화약을 사용해 가파르고 높은 제방에 있는 오크 나무 문을 부수기로 했다.

세 번째 부대는 농가와 그 주변 건물들 자체를 포위하기로 했다. 이 부대는 다시 세 그룹으로 나뉘었다. 매슈슨 대장이 이끄는 3분의 1은 좁고 높은 창문이 달린 기괴한 석조 건물로 향하고, 또 다른 3분의 1은 휘플 대장을 따라 본채인 농가로 진입하며, 나머지 3분의 1은 최후의 비상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 건물 전체를 에워싸며 경계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가에 대기 중인 일행은 휘슬을 한 번 불면 즉시 언덕의 문을 부술 계획이었다. 그들은 문을 부순 뒤 안쪽 어딘가에서 무엇이든 튀어나올 것에 대비해 그 자리에서 기다리며 나오는 것을 붙잡으려 했다. 만약 휘슬 소리가 두 번 울리면, 그들은 그제야 열린 문틈으로 진입해 적을 맞서거나 습격 부대의 나머지 인원과 합류해야 했다. 석조 건물에 배치된 일행 역시 같은 방식으로 신호를 따르기로 했다. 첫 번째 신호가 들리면 입구를 강제로 개방하고, 두 번째 신호가 들리면 지하로 이어진 통로를 찾아 내려가 동굴 안에서 벌어질 전면전에 합류하는 식이었다. 만약 세 번의 휘슬 소리가 울리는 비상 신호가 떨어지면, 일반 경계 근무를 서던 예비대가 즉시 소집되었다. 예비대 20명은 두 팀으로 나뉘어 농가와 석조 건물을 통해 미지의 심연 속으로 진입하게 된다. 휘플 선장은 지하 묘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기에, 계획을 세울 때 다른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는 매우 강력하고 날카로운 휘슬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신호가 잘못 전달되거나 오해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물론 선착장에 배치된 최종 예비대는 휘슬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거리였기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전령을 보내야 했다. 모세 브라운과 존 카터는 흙킨스 선장을 따라 강가로 향했고, 매닝 의장은 매슈슨 선장과 함께 석조 건물로 배치되었다. 에즈라 워든과 보웬 박사는 농가 자체를 급습할 휘플 선장의 일행에 남았다. 공격은 흙킨스 선장의 전령이 휘플 선장에게 도착해 강가 일행의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는 즉시 시작될 예정이었다. 전령이 도착하면 지휘관은 휘슬을 길게 한 번 불었고, 그러면 각 선발대는 세 지점에서 동시에 공격을 개시했다. 새벽 1시가 되기 직전, 세 분대는 페너 농가를 떠났다. 한 팀은 선착장을 지키러, 다른 한 팀은 강 계곡과 언덕

의 문을 찾아 떠났으며, 나머지 한 팀은 인원을 나누어 커웬 농가의 건물들을 직접 습격하기 위해 움직였다.

해안 경계조에 동행했던 엘리아저 스미스는 자신의 일기에 별다른 사건 없이 행군을 마쳤으며, 만(灣) 근처 절벽에서 긴 시간을 기다렸다고 기록했다. 그 정적은 한 번은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신호용 휘슬 소리로 깨졌고, 또 한 번은 포효와 울음소리, 그리고 화약이 터지는 굉음이 뒤섞인 기묘하고 둔탁한 소리로 깨졌는데, 그 소리는 같은 방향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나중에는 어떤 이가 멀리서 총성이 들린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보다 더 나중에는 스미스 자신이 상공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하고 천둥 같은 말소리의 진동을 느끼기도 했다.

동이 트기 직전, 초췌한 모습의 전령 한 명이 나타났다. 그는 광기 어린 눈을 하고 있었으며, 옷가지에서는 정체 모를 끔찍한 악취가 풍겼다. 그는 대원들에게 조용히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일어난 일이나, 조지프 커웬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결코 다시 생각하거나 입에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전령의 말보다도 그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확신이 더 강렬했다. 그는 대원 중 많은 이들이 잘 아는 선원이었으나, 그의 영혼에는 무언가 모호하게 상실되었거나 혹은 새로 얻어진 것이 있었고, 그것이 그를 영원히 다른 존재로 격리해 놓았다. 나중에 그들이 그 공포의 구역에 발을 들였던 다른 옛 동료들을 만났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들 대부분은 형언할 수 없고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잃었거나 얻은

상태였다. 그들은 인간의 것이 아닌 무언가를 보았거나, 들었거나, 혹은 느꼈으며, 그것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 일은 결코 없었다. 인간의 가장 평범한 본능조차도 넘어서는 끔찍한 경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안에 있던 대원들은 그 전령 한 명으로부터 이름 붙일 수 없는 경외감을 느꼈고, 그 감정은 그들 자신의 입마저 굳게 봉인해 버렸다.

그들 중 누구에게서도 소문이 흘러나온 적은 거의 없었다. 별빛 아래 '황금 사자' 술집에서 출발했던 그 원정대 전체를 통틀어 살아남은 기록은 엘리야저 스미스의 일기뿐이다.

* * * * *

하지만 찰스 텍스터 워드는 뉴런던에서 또 다른 막연한 단서를 발견했다. 그곳은 워드가 가문의 또 다른 방계가 살았음을 알고 있던 곳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페너 가문의 서신을 찾아냈다. 비극이 닥친 그 농장이 멀리서나마 보였던 페너 가문의 집에서는, 습격자들이 줄지어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모양이다. 또한 그들은 커웬의 개들이 분노에 차 짖어대는 소리를 아주 또렷하게 들었으며, 뒤이어 공격을 촉발한 첫 번째 날카로운 휘슬 신호음도 들었다고 한다.

그 신호음 뒤에는 석조 건물에서 거대한 빗줄기가 반복해서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총공격을 명령하는 두 번째 신호가 짧게 울려 퍼진 직후, 머스킷 총성이 낮게 울려 퍼졌다. 뒤이어 끔찍한 포효가 터져 나왔는데, 서신을 보낸 루크 페너는 이 소리를 "Waaaahrrrrr-- R'waaahrrr"라는 글자로 묘사했다. 하지만 이 비명은 단순한 글자로

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루크는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완전히 기절해 버렸다고 덧붙였다.

그 후 비명은 조금 덜 큰 소리로 다시 울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둔탁한 총성이 이어졌다. 강 쪽에서는 화약이 터지는 커다란 폭발음도 들렸다. 약 한 시간 뒤에는 모든 개가 무시무시하게 울부짖기 시작했고, 땅이 희미하게 울리더니 벽난로 위의 촛대가 흔들릴 정도로 진동이 느껴졌다. 유황 냄새도 강하게 풍겼다. 루크 페너의 아버지는 세 번째 신호인 비상 휘슬 소리를 들었다고 단언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다시 둔탁한 총성이 들려왔고, 뒤이어 이전의 비명들보다 날카로움은 덜하지만 훨씬 더 끔찍한 깊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목구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불쾌할 정도로 끈적한 기침이나 껌껌거리는 소리에 가까웠다. 그 소리가 비명처럼 느껴진 것은 실제 음향적인 특성 때문이라기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기괴한 양상과 심리적인 공포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윽고 커웬의 농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불타는 형체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뒤이어 절망과 공포에 질린 사내들의 비명이 들려왔다. 머스킷 총성이 번쩍이며 울려 퍼졌고, 불타는 형체 하나가 땅으로 추락했다. 곧이어 두 번째 불타는 형체가 나타났고, 인간의 것이 분명한 비명이 선명하게 들렸다. 페너의 기록에 따르면, 광기에 젖어 내뱉은 몇 마디 말조차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전능하신 주여, 당신

의 어린 양을 보호하소서!" 그 후 다시 총성이 울렸고, 두 번째 불타는 형체도 쓰러졌다.

그 뒤로 약 45분 동안 정적이 흘렀다. 정적이 끝날 무렵, 루크의 동생인 어린 아서 페너가 멀리 떨어진 저주받은 농장에서 "붉은 안개"가 별을 향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외쳤다. 오직 아이만이 이 사실을 증언할 수 있겠지만, 루크는 당시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 우연이었음을 인정한다. 아이가 외치던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세 마리의 고양이가 마치 발작이라도 일으킨 듯 등을 구부리고 털을 꼳꼳이 세우며 공포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5분 뒤, 찬 바람이 몰아치더니 공기 중에 건달 수 없는 악취가 퍼져 나갔다. 바다의 강렬한 상쾌함이 아니었다면, 해안 경계조나 포터킷 마을에서 깨어 있던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그 냄새를 맡았을 것이다. 페너 가문의 사람들은 생전 처음 맡아보는 이 악취에, 무덤이나 시체 안치소에서 느끼는 공포를 넘어선, 정체 모를 무언가가 움켜쥐는 듯한 압도적인 공포를 느꼈다.

그 악취 뒤를 이어, 불행한 청취자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는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하늘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그 메아리가 잦아들 때까지 창문들이 덜덜 떨렸다. 목소리는 낮고 음악적이었다. 저음의 오르간처럼 힘이 넘쳤으나, 아랍의 금서들처럼 사악했다. 미지의 언어로 말했기에 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루크 페너는 그 악마적인 음조를 묘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었다. "DEESMEES--JESHET--
BONEDOSEFEDUVEMA--ENITEMOSS."

191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누군가가 이 조잡한 기록을 인간이 아는 다른 지식과 연결 지었다. 하지만 찰스 텍스터 워드는 미란돌라가 흑마술의 주문 중 최악의 공포라며 전율하며 비난했던 내용을 알아차리고는 안색이 창백해졌다.

커웬의 농장에서는 이 불길한 경이로움에 응답하듯, 분명한 인간의 외침 혹은 낮게 울려 퍼지는 합창 같은 비명이 들려왔다. 그 직후, 정체 모를 악취는 그에 못지않게 견디기 힘든 또 다른 냄새와 뒤섞이며 더욱 복잡해졌다. 뒤이어 비명과는 확연히 다른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 소리는 파도처럼 높낮이를 반복하며 길게 이어졌다. 때로는 그 소리가 마치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으나, 듣는 이 중 누구도 명확한 단어를 알아챌 수는 없었다. 한순간에는 그 소리가 악마의 웃음소리나 히스테릭한 웃음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러더니 수십 명의 인간이 내지르는 듯한, 극도의 공포와 완전한 광기가 서린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 비명은 분명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강렬하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비명이 잦아든 뒤에는 어둠과 정적만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불길은 보이지 않았고 다음 날 확인했을 때 파괴되거나 손상된 건물도 없었으나, 매캐한 연기만이 소용돌이치며 올라와 별빛을 가리고 있었다.

새벽녘, 옷가지에 정체 모를 기괴한 악취를 잔뜩 묻힌 겁에 질린 전령 두 명이 페너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럼주 한 통을 요구하며 그

에 상응하는 아주 두둑한 대가를 지불했다. 전령 중 한 명은 가족들에게 조지프 커웬의 사건은 이제 끝났으며, 오늘 밤에 일어난 일들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명령은 오만하기 짝이 없었으나, 명령을 내리는 자의 기세가 워낙 압도적이라 누구도 원망을 품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 위압감은 명령에 두려운 권위를 실어주었다. 결국 목격하고 들은 사실을 전해주는 것은, 루크 페너가 코네티컷의 친척에게 반드시 파기하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이 은밀한 편지들뿐이다. 다행히 그 친척이 편지를 태우지 않고 남겨두는 바람에, 이 사건은 자비로운 망각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세상에 남게 되었다.

포터킷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가문의 전승을 조사하던 찰스 텍스터 워드는 한 가지 세부 사항을 더 찾아냈다. 그 마을의 노인 찰스 슬로컴의 말에 따르면, 조지프 커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 뒤 들판에서 검게 그을리고 뒤틀린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기묘한 소문이 그의 할아버지에게 전해 내려왔다고 한다. 이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구전된 이유는 시신의 상태 때문이었다. 불에 타고 뒤틀린 그 형체는,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으며, 포터킷 사람들이 보거나 책에서 읽은 적 있는 그 어떤 동물의 형상과도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끔찍한 습격에 가담했던 이들 중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단 한 마디라도 입을 열게 할 수 없었다. 현재 남아 있는 막연한 정보의 파편들은 모두 마지막 전투 부대에 속하지 않았던 외부인들로부터 흘러나온 것

들뿐이다. 습격에 직접 참여했던 이들이 그 사건을 조금이라도 암시하는 흔적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했는지를 보면, 그 기저에 깔린 무언가 공포스러운 기운이 느껴질 정도다.

선원 여덟 명이 목숨을 잃었다. 비록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으나, 세관원들과 충돌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유가족들은 납득했다. 수많은 부상자 역시 같은 설명을 들었다. 부상자들은 모두 붕대를 겹겹이 감은 채, 일행과 동행했던 제이비스 보웬 박사에게만 치료를 받았다. 무엇보다 설명하기 가장 난해했던 것은 습격자들에게서 풍기던 이름 모를 악취였다. 이 기묘한 냄새에 대해서는 이후 몇 주 동안이나 논란이 이어졌다.

시민 지도자들 중에서는 휘플 선장과 모세 브라운이 가장 심하게 다쳤다. 그들의 아내들이 보낸 편지에는 남편들이 입을 굳게 다문 채 상처 부위를 철저히 숨기기만 하는 모습에 얼마나 당혹스러워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심리적으로 볼 때, 사건에 참여한 모든 이는 노쇠해졌고, 침울해졌으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모두 행동력이 강하고 소박하며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이었다는 점은 천만다행이었다. 만약 그들이 조금 더 예민한 성찰력을 가졌거나 정신적으로 복잡한 이들이었다면, 상황은 훨씬 더 비참했을 것이다. 매닝 총장이 가장 큰 혼란을 겪었으나, 그조차도 점차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기도로 기억을 억눌렀다.

이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훗날 역사에 남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어쩌면 이 사실 또한 다행일지 모른다. 사건이 발생하고 채 1

년도 지나지 않아, 휘플 선장은 세관선 가스피호를 불태운 폭도들을 이끌었다. 이 대담한 행동은 그들이 마주했던 불길한 잔상들을 지워내려는 몸부림의 첫걸음이었을 것이다.

조지프 커웁의 미망인에게는 기묘한 형태의 납 관 하나가 전달되었다. 관은 밀봉되어 있었는데,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미리 준비해 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 관 안에는 남편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커웁은 세관과의 교전 중에 사망했으나, 그 세부 사항을 밝히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조지프 커웁의 최후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사실을 입 밖에 낸이가 아무도 없었으며, 찰스 텍스터 워드 역시 자신만의 가설을 세울 수 있는 단 하나의 실마리만을 쥐고 있었을 뿐이다.

그 실마리는 아주 가느다란 실날에 불과했다. 그것은 제데다이야 오른이 커웁에게 보냈다가 압수당한 편지 중 한 구절에 그어진, 위태로운 밑줄이었다. 그 편지는 에즈라 위든의 필체로 일부 필사된 상태였다. 이 필사본은 스미스의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마주하게 된다. 위든이 사건이 끝난 뒤, 일어났던 기이한 일들에 대한 무언의 단서로서 이 필사본을 동료에게 건네준 것일까? 아니면 더 가능성이 높은 가설처럼, 스미스가 이미 이 필사본을 가지고 있었으며 친구를 영리하게 추궁하고 능숙하게 질문을 던져 알아낸 정보들을 바탕으로 직접 밑줄을 그은 것일까? 밑줄이 그어진 구절은 단지 다음과 같다.

다시 한번 경고하건대, 네가 스스로 제압할 수 없는 존재는 결코 불러내지 마라. 내 말은, 네가 불러낸 존재가 도리어 너를 상대로 무언가를 불러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네가 가진 가장 강력한 수단조차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낮은 존재들에게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더 거대한 존재가 응답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너를 부리는 대신 너에게 더 큰 명령을 내릴 것이니.

이 구절을 되짚어보며, 막다른 길에 몰린 인간이 최후의 순간에 어떤 이름조차 불러서는 안 될 동맹들을 불러내려 할지 생각해보면, 찰스 텍스터 워드가 조지프 커웁을 죽인 자가 프로비던스의 시민 중 한 명인지 의구심을 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프로비던스의 삶과 기록에서 죽은 자에 관한 모든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리는 작업은, 습격대를 이끌던 지도자들의 영향력 덕분에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처음부터 이토록 철저하게 지우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지도자들은 미망인과 그녀의 부친, 그리고 아이가 진실을 모른 채 남겨지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킬링하스트 선장이 떠오르며 상황이 바뀌었다. 그는 곧 소문들을 파헤쳐 공포를 느낄 만큼의 단서들을 찾아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딸과 손녀에게 성을 바꾸라고 명령했다. 또한 서재를 불태워 남은 서류들을 모두 없애고, 조지프 커웁의 무덤 위에 놓인 석판의 비문까지 깎아내어 지워버리라고 요구했다. 그는 휘플 선장과 잘 아는 사이였기에, 저주받은 마법사의 최후에 관해 그 무뚝뚝한 선원으로부터 그 누구보다도 많은 실마리를 캐냈을 것이다.

그때부터 커웬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는 움직임은 갈수록 완강해졌다. 결국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마을의 공식 기록과 《가제트》지의 파일에서조차 그의 흔적을 말살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망각의 기세는 오스카 와일드가 불명예를 안은 뒤 십 년 동안 그의 이름 주위에 감돌았던 침묵과 그 결이 닮아 있었다. 또한 그 규모 면에서는 로드 던세니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죄 많은 루나구르 왕의 운명과도 흡사했다. 신들은 그 왕이 단순히 존재를 멈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애초에 존재한 적조차 없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1772년 이후 미망인으로 알려진 킬링하스트 부인은 올니 코트의 저택을 팔았다. 그리고는 1817년 사망할 때까지 파워스 레인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지냈다. 포터킷에 있는 그 농장은 살아있는 그 누구도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고, 세월이 흐르며 그대로 방치된 채 썩어갔다. 농장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1780년 무렵에는 돌과 벽돌 구조물만이 간신히 남아 있었고, 1800년에 이르러서는 그마저도 형체를 알 수 없는 더미로 변해버렸다. 강가에 뒤엎힌 덩굴 속에는 언덕 쪽 문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르나, 누구도 감히 그곳을 헤치고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조지프 커웬이 자신이 저지른 참혹한 죄악들을 뒤로하고 떠나갔던 그 풍경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떠올리려 시도하는 이 또한 아무도 없었다.

기민한 청취자들에게는 오직 노련하고 강인한 휘플 선장이 가끔씩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 빌어먹을 놈, 하지만 비명을 지르면서 웃다니 말도 안 되는 짓이지. 마치 그 저주받을 놈이 무

슨 수작이라도 부리는 것 간단 말이야. 반 크라운만 준다면 그놈의 집 구석을 통째로 태워버릴 텐데."

3. 수색과 소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찰스 텍스터 워드가 자신이 조지프 커웬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18년의 일이다. 그가 그 즉시 지나간 시대의 미스터리와 관련된 모든 것에 강렬한 관심을 보인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커웬의 피가 흐르는 그에게 있어, 그동안 막연하게 떠돌던 커웬에 관한 모든 소문은 이제 자신과 직결된 중대한 사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 조사를 시작했을 때 그는 전혀 비밀스럽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연구를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다. 비록 커웬 같은 조상을 두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의 어머니에게는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었지만 말이다. 또한 그가 방문한 여러 박물관과 도서관 관계자들에게도 연구 내용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기록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가문들에 연락할 때도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옛 일기 작성자들과 편지를 남긴 이들의 기록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보이던, 다소 재미있어하는 듯한 회의적인 시선을 그 자신도 함께 공유했다.

스미스의 일기와 기록물을 뒤지던 그는 제데다야 온의 편지를 접하고 결심했다. 세일럼으로 가서 조지프 커웬이 그곳에서 초기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인맥을 쌓았는지 직접 조사해 보기로 한 것이다. 그는 1919년 부활절 연휴를 이용해 실행에 옮겼다.

그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에섹스 연구소를 찾았다. 화려하면서도 낡은 청교도식 박공지붕과 웅기종기 모여 있는 갬브럴 지붕들이 자아내는 고풍스러운 분위기 덕분에, 그는 이 오래된 도시를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었다. 연구소 사람들은 그를 매우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덕분에 그는 그곳에서 커웬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발굴해 낼 수 있었다.

조사 결과, 그의 조상은 1662년 혹은 1663년 2월 18일(구력 기준), 마을에서 7마일 떨어진 세일럼 빌리지(현 댄버스)에서 태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커웬은 15세의 나이에 바다로 도망치듯 떠났고, 이후 9년 동안 종적을 감췄다. 그러다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영국의 현지인 같은 말투와 옷차림, 예법을 갖추고 있었으며, 세일럼 시내에 자리를 잡았다.

당시 커웬은 가족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다. 그는 유럽에서 가져온 기이한 책들과, 영국·프랑스·네덜란드에서 배를 통해 건너온 정체불명의 화학 약품들에 몰두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가 가끔 교외로 나갈 때면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그를 살폈다. 밤마다 언덕 위에서 불길에 치솟는다는 막연한 소문과 함께, 그가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곤 했다.

커웬에게 유일하게 가까웠던 친구는 세일럼 빌리지 출신의 에드워드 허친슨과 세일럼 출신의 사이먼 오른뿐이었다. 허친슨은 숲속 깊은 곳에 집을 두고 있었는데, 밤마다 들려오는 기괴한 소리 때문에 예민한 사람들은 그 집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낮선 방문객들을 불러들인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불빛의 색깔도 매번

달랐다. 이미 오래전에 죽은 이들이나 잊힌 사건들에 대해 그가 보여준 지식은 분명 불길한 것이라 여겨졌다. 허친슨은 마녀사냥의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할 무렵 자취를 감추었고, 그 후로 다시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그 무렵 조지프 커웬 역시 떠났으나, 그가 프로비던스에 정착했다는 사실은 곧 알려졌다. 사이먼 오른은 1720년까지 세일럼에서 살았는데, 그가 눈에 띄게 늙지 않는 모습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 그 이후 그는 사라졌다. 비록 30년 뒤, 그와 판박이처럼 닮은 데다 스스로를 그의 아들이라 칭하는 자가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긴 했지만 말이다. 제데다야 오른은 사이먼 오른의 친필로 확인된 문서들을 근거로 재산권을 인정받았고, 1771년까지 세일럼에서 계속 거주했다. 그러나 프로비던스 시민들이 토마스 바나드 목사 등에게 보낸 몇 통의 편지로 인해, 그는 결국 어디론가 조용히 쫓겨나듯 떠나야 했다.

* * * * *

이 모든 기이한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은 에섹스 연구소와 법원, 그리고 등기소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토지 소유권이나 매매 증서처럼 무해하고 평범한 서류들도 있었지만, 훨씬 더 자극적이고 은밀한 성격의 파편들도 섞여 있었다. 마녀 재판 기록에는 이 사건들을 분명히 암시하는 대목이 네다섯 군데나 등장했다.

예를 들어, 1692년 7월 16일 해손 판사가 주재하는 '오이어 앤 터미넨' 법정에서 헵시바 로슨은 다음과 같이 선서했다. "마흔 명의 마녀들

과 검은 사내가 허친슨 씨의 집 뒤편 숲에서 모이곤 했습니다." 또한 8월 8일 게드니 판사 앞에서 열린 재판에서 에이미 하우는 이렇게 증언했다. "그날 밤, G. B.(조지 버로스)가 브리짓 S., 조나단 A., 사이먼 O., 딜리버런스 W., 조지프 C., 수잔 P., 메히터블 C., 그리고 데보라 B.에게 악마의 표식을 새겼습니다."

또한 허친슨이 실종된 후 발견된 그의 기괴한 장서 목록과, 그가 직접 쓴 미완성 원고도 있었다. 그 원고는 누구도 해독할 수 없는 암호로 쓰여 있었다. 워드는 이 원고를 사진 복사하여 가지고 있었으며, 복사본을 건네받자마자 암호를 풀기 위해 가볍게 작업을 시작했다. 그해 8월이 지나자 암호를 해독하려는 그의 노력은 광적으로 치열해졌다. 그의 언행으로 미루어 볼 때, 워드가 10월이나 11월이 되기 전에 암호 해독의 열쇠를 찾아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다만, 그가 실제로 해독에 성공했는지 여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가장 즉각적인 흥미를 끈 것은 오른(Orne)의 자료였다. 워드는 필적의 동일성을 통해 이미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그것은 커웁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통해 이미 확신했던 사실이었다. 바로 사이먼 오른과 그의 아들이라고 알려진 인물이 사실은 동일 인물이라는 점이다. 오른이 수신인에게 썼듯이, 세일럼에서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은 결코 안전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해외에서 30년 동안 머물며 떠돌았고, 새로운 세대의 대리인 자격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땅을 되찾으러 돌아오지 않았다.

오른은 자신의 서신 대부분을 파기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듯 했다. 하지만 1771년에 움직였던 시민들이 몇 통의 편지와 서류를 찾아내 보존했고, 그것들은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냈다. 그 서류들에는 오른이나 다른 이들이 남긴 암호 같은 공식과 도표들이 담겨 있었다. 워드는 이제 이 내용들을 정성껏 필사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두었다. 그리고 그중에는 극도로 기묘한 편지 한 통이 섞여 있었는데, 워드는 등기소의 문서들을 통해 그 필체가 조지프 커웁의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프로비던스, 5월 1일

형제여:

나의 존경하는 고대의 벗에게. 우리가 섬기는 그분께 마땅한 경의를 표하며, 당신의 영원한 권능을 간절히 기원하오. 마지막 극한 상황에 관한 문제와 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을 방금 알아냈기에 이를 전하오.

내 나이를 생각하면 당신을 따라 떠날 마음은 없소. 프로비던스는 기이한 것들을 색출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데 있어 베이(만)만큼 매섭지 않기 때문이오. 게다가 나는 배와 화물들에 얽매어 있어 당신처럼 행동할 수도 없소. 무엇보다 포터킷에 있는 내 농장 아래에는 당신도 아는 '그것'이 잠들어 있지 않소. 그것은 다른 이처럼 내가 돌아오기만을 마냥 기다려 주지는 않을 것이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는 가혹한 운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마지막 단계 이후에 다시 되돌아오는 방법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지난밤, 나는 요그 소토스(YOGGE-SOTHOTHE)를 불러내는 문구들을 찾아냈고, 이전에 이븐 샤카바크가 ----에서 언급했던 그 얼굴을 처음으로 목격했다. 그리고 그 문구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리베르 담나투스(Liber-Damnatus)의 셋째 시편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이다. 태양이 다섯 번째 집에 있고 토성이 삼분위(Trine)에 위치할 때, 불의 오망성을 그리고 아홉 번째 구절을 세 번 읊어라. 매 로데마스(Roodemas)와 할로윈 이브(Hallow's Eve)마다 이 구절을 반복하면, 그 존재는 외부 영역(Outside Spheres)에서 태어날 것이다.

"옛 세대의 씨앗으로부터 한 사람이 태어나리니, 그는 자신이 무엇을 찾는지 알지 못한 채 뒤를 돌아보게 되리라."

후계자가 없다면 이 모든 노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또한 그가 손을 뻗었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금, 혹은 그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 나는 고백하건대, 아직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지 못했고 얻어낸 것도 많지 않다. 그 공정은 접근하기가 지독하게 어려우며, 워낙 많은 표본을 소모하기에 인도에서 데려온 선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이 커지고 있으나, 나는 그들을 물리치고 있다. 귀족 계급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까다롭다. 그들은 사정을 더 낱낱이 캐묻는 데다, 그들이 하는 말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목사와 메릿 씨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 두렵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화학 물질은 구하기 쉽다. 마을에

보웬 박사와 샘 캐루라는 두 명의 훌륭한 화학자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보렐루스가 말한 바를 따르고 있으며, 압둘 알라흐레드의 제7권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내가 무엇을 얻든 그것은 모두 당신의 것이다. 그러는 동안 내가 여기에 남긴 문구들을 사용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나는 이 문구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분'을 보고 싶다면, 이 꾸러미에 함께 넣은 ---- 조각에 적힌 글귀를 사용하라. 매로데마스와 할로윈 이브마다 그 구절들을 읊어라. 만약 당신의 혈통이 끊기지 않는다면, 먼 훗날 당신이 남긴 소금이나 소금의 재료를 찾아내어 뒤돌아보며 사용할 누군가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욕기 14장 14절.

다시 세일럼에 오셨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머지않아 직접 뵈 수 있을 고대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훌륭한 종마를 한 마리 키우고 있으며, 마차도 한 대 장만할까 생각 중입니다. 프로비던스에 이미 머릿(Mr. Merritt) 씨의 마차가 있긴 하지만, 길 상태가 워낙 나빠서 말입니다. 혹시 여행할 마음이 생기신다면 저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보스턴에서 출발하신다면 데덤, 렌섬, 애틀버러를 거치는 포스트 로드를 이용하십시오. 이 마을들에는 모두 괜찮은 여관들이 있습니다. 렌섬에 있는 볼컴(Mr. Bolcom) 씨네 여관에 들러보시되, 침구는 해치(Mr. Hatch) 씨네보다 볼컴 씨네가 더 좋지만 식사는 다른 집에서 하십시오. 그곳 요리사가 훨씬 솜씨가 좋습니다. 그 후 패터킷 폭포를 지나 프로비던스 방향으로 들어오셔서, 세일즈(Mr. Sayles) 씨네 여관을 지나 길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 집은 타운 스트리트에서 벗어나 에페네투스 올니(Mr. Epenetus Olney) 씨네 여관 맞은편, 올니 코트 북

쪽 첫 번째 건물에 있습니다. 보스턴 스톤으로부터의 거리는 약 44마일입니다.

경, 나는 알몬신-메트라톤에서 당신의 오래되고 진실한 친구이자 종이옵니다.

조세퍼스 C.

세일럼, 윌리엄스 레인에 거주하는 사이먼 오른 씨에게.

기묘하게도, 워드가 커웁이 프로비던스에 살았던 집의 정확한 위치를 처음 알게 된 계기는 바로 이 편지 덕분이었다. 그전까지 접했던 그 어떤 기록도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커웁의 저택은 거대한 언덕 위 높은 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워드의 집에서도 불과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현재 그곳은 가끔 빨래나 청소, 난로 관리를 해주는 일로 마을에서 꽤나 신망을 받는 흑인 가족의 거처로 쓰이고 있었다. 멀리 떨어진 세일럼에서, 자신의 가문 역사 속에서 이토록 익숙한 은신처가 지닌 중요성을 입증할 갑작스러운 증거를 찾아낸 것은 워드에게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프로비던스로 돌아가는 즉시 그곳을 조사해 보기로 결심했다.

편지에 담긴 신비주의적인 구절들은 그에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그저 과장된 상징법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편지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 즉 욥기 14장 14절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겠는가? 내 정해진 날이 다하기까지 나는 기다리리니, 내 변화

가 오기까지 기다리리라"라는 익숙한 구절이라는 점을 발견했을 때는 호기심 섞인 전율을 느꼈다.

* * * * *

젊은 워드는 기분 좋은 흥분에 휩싸인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 다음 토요일을 올니 코트 저택을 샅샅이 살피는 데 온전히 쏟아부었다. 세월의 풍파에 깎여 나가는 그곳은 본래 대저택은 아니었다. 프로비던스 특유의 식민지풍 양식을 띤, 소박한 2층 반 높이의 목조 타운하우스였다. 단순한 박공지붕과 커다란 중앙 굴뚝이 있었고, 입구에는 부채꼴 모양의 채광창과 삼각형 페디먼트, 그리고 단정한 도리스식 벽주가 조각된 예술적인 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저택의 외관은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였다. 워드는 자신이 추구해 온 그 불길한 사건의 실체에 아주 가까이 다가서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흑인 거주자들을 알고 있었고, 노인 아사와 그의 건장한 아내 한나가 아주 정중하게 집 안 구석구석을 안내해주었다. 겉모습에서 짐작했던 것보다 집 안의 변화는 훨씬 심했다. 워드는 정교한 소용돌이와 향아리 문양이 새겨진 벽난로 선반, 그리고 조개껍데기로 장식된 찬장 안쪽이 절반이나 사라진 것을 보고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고급스러운 판벽과 몰딩의 상당수는 칼자국이 나거나 파헤쳐져 있었고, 어떤 곳은 값싼 벽지로 완전히 덮여 있었다. 조지프 커웁 같은 공포의 인물이 살았던 조상들의 벽 안에서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그는 오래된 황동 문고리에서 누군가의 이니셜이 아주 정성스럽게 지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전율을 느꼈다.

그때부터 학기가 끝날 때까지, 워드는 허친슨 암호의 사진 복사본을 해독하고 커웬과 관련된 지역 자료를 수집하는 데 몰두했다. 암호 해독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었으나, 지역 자료만큼은 상당한 양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게다가 다른 곳에 유사한 자료가 있다는 단서도 곳곳에서 찾아냈다. 덕분에 7월 무렵이 되자, 그는 자료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 뉴런던과 뉴욕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다.

이 여정은 매우 결실이 컸다. 그는 포터킷 농가 습격 사건을 꼼꼼하게 묘사한 페너의 편지들을 찾아냈고, 커웬의 서재에 있던 패널에 그려진 초상화에 관한 내용이 담긴 나이팅게일-탈보트의 편지들도 입수했다. 특히 초상화에 관한 대목은 그의 흥미를 강하게 자극했다. 조지프 커웬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내놓을 기세였기 때문이다. 그는 올니 코트 저택을 다시 한번 뒤져보기로 결심했다. 덧칠해진 페인트나 곰팡이 핀 벽지 아래에, 혹시라도 그 옛날의 모습이 남겨진 흔적이 있지는 않을까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 수색은 8월 초에 시작되었다. 워드는 그 사악한 건축가의 서재였을 법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방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뒤졌다. 그는 아직 남아 있는 벽난로 선반의 커다란 판벽들을 각별히 주의 깊게 살폈다. 수색을 시작한 지 한 시간쯤 지났을 무렵, 그는 커다란 흥분에 휩싸였다. 1층의 넓은 방, 벽난로 위쪽의 넓은 면적을 살피던 중 그는 확신했다. 여러 겹 덧칠해진 페인트를 벗겨내자 드러난 그 표면이, 일반적인 실내용 페인트나 그 아래의 나무색보다 눈에 띄게 어둡다는 사실을 말이다.

얇은 칼로 몇 번 더 조심스럽게 시험해 본 끝에, 그는 자신이 거대한 유화 초상화를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청년은 학자다운 절제력을 발휘하여, 칼로 숨겨진 그림을 당장 벗겨내려다 자칫 그림을 망칠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발견의 현장에서 물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사흘 뒤, 그는 칼리지 힐 기슭에 작업실을 둔 숙련된 화가 월터 C. 드와이트 씨를 데리고 돌아왔다. 노련한 그림 복원가인 드와이트 씨는 즉시 적절한 도구와 화학 약품을 갖추고 작업에 착수했다. 노인 아사와 그의 아내는 이 기묘한 방문객들 때문에 무척 들떴으며, 사생활을 침해 받은 대가로 합당한 보상도 받았다.

복원 작업이 나날이 진척됨에 따라, 찰스 워드는 긴 망각의 세월 끝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선과 명암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다. 드와이트는 그림의 아랫부분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이 초상화는 상반신이 드러나는 3/4 길이의 그림이었기에, 한동안 얼굴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사이 그림 속 인물이 남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조각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짙은 푸른색 코트와 자수가 놓인 조끼, 검은 새틴 속바지와 흰 실크 스타킹을 착용한 날렵하고 체격이 좋은 사내였다. 창밖 배경으로는 부두와 배들이 보였다.

마침내 머리 부분이 드러났을 때, 그림 속 인물은 깔끔한 앨버말 가발을 쓰고 있었다. 얼굴은 가늘고 차분하며 평범한 인상이었는데, 워드와 화가 모두에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복원가와 의뢰인이 그 야윈 창백한 얼굴의 세부 묘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은 맨 마지막 순간이었다. 그들은 유전이 부린 극적인 장난을 마주하며 경외감마저 느꼈다. 수 세기 동안 숨겨져 왔던 표정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마지막 기름칠과 섬세한 긁어내기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과거에 살던 혼란스러운 찰스 텍스터 워드는 자신의 살아있는 이목구비가 끔찍한 현조부의 얼굴에 그대로 박혀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 * * * *

워드는 자신이 발견한 이 경이로운 물건을 부모에게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그림이 고정된 판넬 위에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자마자 그 그림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그림 속 인물은 소년보다 다소 나이가 들어 보였으나, 소년과 닮은 모습이 실로 놀라울 정도였다. 마치 어떤 격세 유전의 기묘한 작용이라도 일어난 듯, 조지프 커웁의 신체적 윤곽이 150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다. 워드 부인은 조상과 닮은 구석이 거의 없었으나, 아들과 옛 커웁이 공유하고 있는 얼굴 특징을 가진 친척들이 떠오르기는 했다. 부인은 이 발견이 결코 유쾌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 그림을 집으로 가져오느니 차라리 태워버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림 자체에서 느껴지는 불길함뿐만 아니라, 찰스와 너무 닮았다는 사실 자체가 무언가 건강하지 못한 기운을 풍긴다고 그녀는 주장했다.

하지만 워드 씨는 실무와 사업에 능한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포터킷 계곡의 리버포인트에 대규모 면직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자

였기에, 아내의 망설임 따위에 귀를 기울일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닮은 그 그림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아들에게 줄 선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찰스 역시 아버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며칠 후, 워드 씨는 그 집의 주인인 쥐를 닮은 왜소한 사내를 찾아냈다. 거친 억양을 쓰는 그 사내에게, 워드 씨는 그림이 걸린 벽난로 선반과 그 윗부분 전체를 단호하게 정해진 가격에 사들였다. 덕분에 사내가 늘어놓으려던 기름진 흥정은 채 시작되기도 전에 끊기고 말았다.

이제 남은 일은 벽면 판넬을 떼어내 워드 가문의 저택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그곳에서는 판넬을 완전히 복원하여, 찰스의 3층 서재에 전기 모형 벽난로와 함께 설치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찰스는 이 운반 과정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다. 8월 28일, 그는 크루커 장식 회사의 숙련된 기술자 두 명과 함께 올니 코트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기술자들은 벽난로와 초상화가 걸려 있던 상단 판넬을 매우 정밀하고 조심스럽게 분리해냈고, 이를 회사의 트럭에 실어 옮겼다.

벽난로가 있던 자리에는 굴뚝의 경로를 따라 벽돌이 그대로 드러났다. 젊은 워드는 그 노출된 벽돌 벽에서 한 자 정도 크기의 정육면체 공간을 발견했다. 그 공간은 분명 초상화의 머리 바로 뒤편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두껍게 쌓인 먼지와 그을음 아래에서 누렇게 변색된 종이 몇 장과 투박하고 두꺼운 공책 한 권, 그리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리본이었을 법한 곱팡이 핀 천 조각들을 찾아냈다.

워드는 입으로 붙어 먼지와 재를 대강 털어낸 뒤, 공책을 집어 들고 표지에 적힌 굵은 글씨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그가 에섹스 연구소에서 익히 보아온 필체였다. 공책 표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프로비던스 플랜테이션의, 전(前) 세일럼 거주, 향사(鄉士) 조지프 커웁의 일기와 기록.”

자신이 발견한 것을 확인한 워드는 건잡을 수 없는 흥분에 휩싸여, 곁에 있던 호기심 많은 인부 두 명에게 그 책을 보여주었다. 발견된 물건의 성격과 진위 여부에 관해 그들이 증언한 내용은 매우 확고하다. 윌렛 박사는 이 증언을 토대로, 워드가 기이한 행동을 시작했을 당시 그 청년이 결코 미치지 않았었다는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한다.

다른 서류들 역시 모두 커웁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그중 한 서류는 적힌 문구 때문에 유독 불길한 예감을 불러일으켰다. “_뒤에 올 자에게, 그가 어떻게 시간과 구(spheres)를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하여._” 또 다른 서류는 암호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워드는 이것이 지금까지 자신을 당혹스럽게 했던 허친슨 암호와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다.

세 번째 서류를 발견했을 때 조사자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그것은 암호를 풀 수 있는 열쇠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서류는 각각 “에드워드 허친슨, 기사(Armiger)”와 “제데다야 오른, 귀하(Esq.)”, 혹은 “그들의 상속인 또는 상속인들, 아니면 그들을 대리하는 자들” 앞으로 보내진 것이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이 적혀 있었다.

"_조지프 커웁의 1678년부터 1687년 사이의 생애와 여정: 그가 어디로 향해했는지, 어디에 머물렀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하여._"

* * * * *

이제 학술적인 정신의학파가 찰스 텍스터 워드의 광기가 시작된 시점으로 기록하는 지점에 도달했다. 발견 직후, 워드는 책과 원고의 안쪽 페이지 몇 장을 즉시 살펴보았는데, 분명 그 안에서 무언가 엄청난 충격을 줄 만한 것을 본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치 직접 증거를 내보이지 않으면서도 그 내용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사실만은 전달하고 싶어 하는 듯, 다소 쑥스러워하는 기색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 그는 부모님에게 책의 제목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그저 조지프 커웁의 필체로 쓰인 문서들을 발견했는데, "대부분 암호로 되어 있어서" 그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려면 아주 세밀하게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을 뿐이다. 만약 일꾼들이 노골적인 호기심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워드가 그들에게 본 것을 보여주었을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그는 일꾼들이 이 일로 수군거리는 것을 피하고자, 자신만의 기묘한 과묵함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그날 밤 찰스 텍스터 워드는 방에 앉아 새로 발견한 책과 서류들을 읽었으며, 날이 밝아도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러 찾아왔을 때, 그는 간곡히 부탁하여 식사를 방으로 가져다 달라고 했다. 오후에는 일꾼들이 서재에 커웁의 초상화와 벽난로 선반을 설치하러 왔을 때만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다음 날 밤, 그는 옷을 입을

채로 찌엄찌엄 잠을 청하면서도, 해독되지 않은 암호 원고를 풀기 위해 열띤 사투를 벌였다. 아침에 어머니가 보니 그는 예전에도 여러 번 보여주었던 허친슨 암호의 사진 복사본을 작업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묻자, 그는 커웬의 해독법을 그 암호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날 오후, 그는 작업을 멈추고 일꾼들이 설치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넷을 잃은 채 지켜보았다. 일꾼들은 정교하고 사실적인 전기 장작 위로 초상화와 그 목재 틀을 설치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실제 굴뚝이 있는 것처럼 가짜 벽난로와 상단 선반을 북쪽 벽에서 약간 돌출되게 세운 뒤, 방의 벽면과 어울리는 판자로 옆면을 마감했다. 일꾼들이 떠나자 그는 작업 공간을 서재로 옮겼다. 그는 암호와 초상화를 번갈아 응시하며 그 앞에 앉아 있었다. 초상화는 마치 한 세기를 되돌려 놓은 듯, 찰스 텍스터 워드를 뵈듯 내려다보는 거울처럼 그를 마주 보고 있었다.

이후 찰스 텍스터 워드의 부모는 당시 그의 행동을 회상하며, 그가 보여준 은밀한 태도에 대해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을 들려주었다. 그는 하인들 앞에서는 자신이 읽고 있는 서류를 거의 숨기지 않았다. 커웬의 복잡하고 고풍스러운 필체를 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이라고 타당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 앞에서는 훨씬 더 조심스러웠다. 만약 읽고 있는 원고가 암호이거나, 혹은 『그 뒤에 올 자에게』와 같은 제목이 붙은 것처럼 정체 모를 기호와 미지의 표상들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면, 그는 방문객이 떠날 때까지 적당한 종이로 그 서류를 덮어두곤 했다. 밤이 되면 그는 서류들을 자신의 골동품 장식장 안에 넣어 자물쇠로 잠갔으며, 방을 비울 때도 항상 그곳에 두었다.

곧 그는 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되찾았으나, 길게 산책을 하거나 다른 외부 활동에 관심을 보이던 모습은 사라진 듯했다. 이제 마지막 학년을 시작하게 된 학교생활은 그에게 매우 지루한 일처럼 보였다. 그는 대학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자주 단언했다. 그는 자신에게 수행해야 할 중요한 특별 조사가 있으며,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명문 대학보다도 지식과 인문학을 향한 더 넓은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이 되자 워드는 다시 도서관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골동품에 관심을 두기 위함은 아니었다. 그가 갈구하는 것은 이제 마법과 주술, 오컬트와 악마학이었다. 프로비던스에 있는 자료들로 갈증을 채울 수 없게 되자, 그는 기차를 타고 보스턴으로 향했다. 코플리 광장에 있는 거대한 도서관이나 하버드 대학의 와이드너 도서관, 혹은 성서 관련 희귀 서적을 찾아볼 수 있는 브룩라인의 자이언 연구 도서관에서 방대한 지식을 훑었다. 워드는 책을 엄청나게 사들였고, 서재에는 기이한 주제를 다룬 새 책들을 꽂아두기 위해 선반을 한 세트나 더 설치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는 도시 밖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는데, 에섹스 연구소에 보관된 특정 기록들을 조사하기 위해 세일럼을 방문한 적도 있었다.

1920년 1월 중순쯤, 워드는 무언가 승리라도 거둔 듯한 기색을 띠며 나타났다. 그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이후 허친슨 암호를 해독하는 작업에도 더는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화학 연구와 기록 조

사라는 두 갈래의 길을 동시에 걷기 시작했다. 화학 연구를 위해 집 안의 쓰지 않는 다락방을 실험실로 꾸몄고, 기록 조사를 위해 프로비던스의 모든 통계 자료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나중에 조사를 받은 지역의 약품 및 과학 기구 상인들은 그가 구매한 물질과 도구들에 대해 기괴하고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목록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 의사당과 시청, 그리고 여러 도서관의 직원들은 그의 두 번째 관심사가 무엇이었던지만큼은 입을 모아 증언했다. 그는 조지프 커웁의 무덤을 찾기 위해 열정적이고도 광적인 탐색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전 세대 사람들이 지혜롭게도 묘비의 석판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렸던 바로 그 커웁의 무덤을 말이다.

워드 가문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확신을 조금씩 갖기 시작했다. 찰스 텍스터 워드의 학업은 그저 걸치레에 불과했다. 그는 이제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구식 연금술 서적 스무 권을 쌓아둔 새 실험실에 박혀 있거나, 시내의 오래된 매장 기록을 샅샅이 뒤지고 있거나, 서재에서 오컬트 서적에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서재 북쪽 벽, 커다란 벽난로 선반 위에는 조지프 커웁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찰스의 이목구비는 조지프 커웁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닮아가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다. 초상화 속 커웁은 무심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3월 말, 워드는 기록을 뒤지는 일 외에도 도시 곳곳의 오래된 묘지를 기괴하게 배회하며 탐색을 이어갔다. 그의 추적 대상은 조지프 커웁의 무덤에서 나프탈리 필드의 무덤으로 갑작스럽게 옮겨간 상태였다. 이

러한 변화의 이유는 조사관들이 기존에 검토했던 서류들을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커웁의 매장 기록 중, 완전히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던 단편적인 기록을 마침내 찾아낸 것이다. 그 기록에는 그 기묘한 납 관이 "----에 있는 나프탈리 필드의 묘지로부터 남쪽으로 10피트, 서쪽으로 5피트 떨어진 곳"에 안치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워드리는 그 기록을 따라 묘지들을 헤매고 다녔다. 다만 세인트 존스 교회 묘지(구 킹스 교회 묘지)와 스완 포인트 묘지 중앙에 있는 오래된 회중교회 묘지는 조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다른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록에 언급된 나프탈리 필드(1729년 사망)는 침례교도였기 때문이었다.

* * * * *

5월 무렵이었다. 워드의 아버지의 요청을 받은 윌렛 박사가 젊은이를 만나러 갔다. 찰스 텍스터 워드가 숙내를 드러내던 시절, 가족들이 그에게서 모아둔 커웁에 관한 모든 자료를 챙겨 들고서였다. 하지만 그 면담은 별다른 가치도, 결론도 내지 못했다. 윌렛 박사는 대화하는 내내 찰스가 자신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으며, 아주 중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만남 덕분에, 비밀에 싸여 있던 청년은 최근 자신의 행동에 대해 나름대로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아야만 했다.

워드는 창백하고 무표정한 인상이라 당황한 기색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쫓고 있는지 그 목적까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기꺼이 이야기할 준비가 된 듯 보였다. 그는

조상이 남긴 문서들에 초기 과학 지식의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인류 사상의 역사 속에서 그 비밀들이 생생하게 자리 잡으려면, 우선 그 지식들이 탄생한 배경을 잘 아는 전문가가 그 연관성을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워드는 현재 그 연관성을 밝히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커웬의 자료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이제는 잊힌 고대의 기술들을 최대한 빨리 습득하려 애쓰는 중이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인류와 사상계에 엄청난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연구 결과를 온전히 발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가 묘지를 뒤지며 무엇을 찾으려 했는지는 솔직히 인정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조지프 커웬의 훼손된 비석에 어떤 신비로운 상징들이 새겨져 있을 것이라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 상징들은 커웬의 유언에 적힌 지시에 따라 새겨진 것으로, 비석에서 그의 이름을 지운 자들이 무지한 탓에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대로 남겨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커웬의 기괴한 체계를 최종적으로 풀어내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열쇠였다. 커웬이 자신의 비밀을 극도로 조심스럽게 지키려 했다고 워드는 믿고 있었다. 그 때문에 커웬은 관련 정보들을 매우 기묘한 방식으로 흩어놓았다. 월렛 박사가 그 신비로운 문서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워드는 무척 망설이며 허친슨 암호의 사진 복사본이나 오른의 공식과 도표 같은 것들을 내밀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커웬이 남긴 진짜 유물들의 겉면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일기와 노트』였고, 암호로 된 제목이 적힌 암호문이었으며, 공식들로 가득

찬 "뒤에 올 자에게"라는 제목의 메시지였다. 워드는 그중 판독하기 어려운 문자로 쓰인 문서들을 월렛이 살짝 훑어볼 수 있게 허락했다.

그는 일기장의 페이지 중에서도 무해해 보이는 곳을 신중하게 골라 펼쳤다. 그리고 월렛에게 커웬이 직접 쓴 영어 필적을 살짝 보여주었다. 의사는 그 꼬불꼬불하고 복잡한 글자들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았다. 필기체와 문체 모두에서 17세기의 분위기가 짙게 배어 나오고 있었다. 기록자가 18세기까지 생존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순간 월렛은 이 문서가 진짜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일기의 내용은 비교적 사소한 것이어서, 월렛의 기억에는 단편적인 부분만이 남았다.

하지만 월렛 박사가 다음 장을 넘기려 하자, 워드가 거의 책을 낚아채듯 가로채며 그를 급히 제지했다. 박사가 새로 펼쳐진 페이지에서 겨우 읽어낼 수 있었던 것은 짧은 두 문장이 전부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장들은 끈질기게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원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리베르 담나투스(Liber-Damnatus)의 구절을 다섯 번의 십자가 축일과 네 번의 만성절에 낭송하니, 나는 저 구체(spheres) 너머에서 그 존재가 잉태되고 있기를 희망한다. 만약 내가 그를 반드시 존재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장차 올 자를 끌어당기리라. 그는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지나온 모든 세월을 되돌아보게 될 것이니, 나는 그때를 대비하여 소금이나 그 소금을 만들 재료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만 한다."

월렛은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짧은 찰나의 목적은, 벽난로 선반 위에서 무심하게 내려다보던 조지프 커웬의 초상화에

기묘하고도 막연한 공포를 불어넣었다. 그 후로 그는 기이한 망상에 사로잡히곤 했다. 물론 의사로서의 전문 지식은 그것이 단순한 착각일 뿐이라고 단언해주었지만 말이다. 초상화 속 눈동자가 방 안을 움직이는 젊은 찰스 워드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그는 떠나기 전, 그림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었다. 초상화가 찰스와 얼마나 닮았는지 경탄하며, 그는 그 기괴하고 생기 없는 얼굴의 세세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오른쪽 눈 위 매끄러운 이마에 난 작은 흉터나 파인 자국까지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 두었다.

의사는 찰스의 정신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다만 그가 수행 중인 연구가 장차 매우 중요한 결실을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말을 들은 워드 부부는 그해 6월, 아들이 대학 진학을 완강히 거부했을 때 평소보다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다. 찰스는 자신에게 추구해야 할 훨씬 더 중대한 연구 과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에는 없는 자료들을 구하기 위해 이듬해에는 해외로 나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버지 워드는 고작 열여덟 살인 아들이 해외로 나가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거절했지만, 대학 진학 문제만큼은 아들의 뜻을 받아들여 주었다. 그렇게 모세 브라운 학교를 그리 뛰어나지 않은 성적으로 졸업한 뒤, 찰스는 3년 동안 강도 높은 오컬트 연구와 묘지 탐색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 * * * *

1923년 4월, 성인이 된 워드는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적은 액수의 유산을 바탕으로, 그동안 미뤘던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

다. 그는 구체적인 여행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학업을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할 것 같다는 말만 덧붙였을 뿐, 부모님께서는 모든 소식을 상세하고 성실하게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모님은 아들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는 반대를 멈춘 채 최선을 다해 여행을 도왔다. 그리하여 6월, 청년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리버풀행 배에 올랐다. 부모님은 아들을 따라 보스턴까지 동행했고, 찰스타운의 화이트스타 부두에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곧이어 도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런던 그레이트 러셀 스트리트에 관 찰은 숙소를 구했다는 편지가 도착했다. 워드는 특정 분야에 관한 영국 박물관의 자료를 모두 섭렵할 때까지, 가족의 지인들과는 일절 접촉하지 않은 채 그곳에 머물 계획이었다. 일상에 대해서는 쓸 내용이 거의 없었기에 편지에 거의 적지 않았다. 그는 모든 시간을 연구와 실험에 쏟아부었으며, 방 하나를 실험실로 꾸몄다는 소식도 전해왔다.

고대의 돔과 첨탑이 유혹하듯 하늘을 수놓고, 신비로운 굴곡과 갑작스러운 풍경이 번갈아 나타나는 미로 같은 길들이 얹혀 있는 런던의 화려한 옛 거리. 그곳을 유람하며 고물 수집을 즐긴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부모님은 아들이 그런 일에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새로운 관심사가 아들의 정신을 얼마나 깊게 사로잡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1924년 6월, 그는 파리로 떠난다는 짧은 메모를 남겼다. 이전에도 그는 국립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기 위해 한두 번 파리를 급히 다녀온 적

이 있었다. 그 후 석 달 동안 그는 생 자크 거리의 주소를 적은 엽서만을 보내왔다. 엽서에는 이름 모를 개인 수집가의 도서관에서 희귀 필사본을 특별히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인들을 피했고, 그를 보았다는 관광객의 보고도 없었다.

그러다 소식이 끊겼다. 10월이 되어서야 워드 부부는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에서 온 그림 엽서 한 장을 받았다. 엽서에 따르면, 찰스는 매우 기이한 중세 지식을 간직한 마지막 생존자로 추정되는 어느 노인을 만나기 위해 그 고대 도시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노이슈타트의 주소를 남겼으며, 이듬해 1월까지의 이동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듬해 1월, 그는 빈에서 여러 장의 카드를 보내왔다. 그는 빈을 거쳐 더 동쪽 지역으로 향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곳은 오컬트와 함께 탐구하는 그의 서신 왕래 상대가 그를 초대할 곳이었다.

다음 카드는 트랜실바니아의 클라우젠부르크에서 온 것이었다. 그 안에는 워드가 목적지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다. 그는 라쿠스 동쪽 산맥에 영지를 둔 페렌치 남작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며, 라쿠스에 도착하면 그 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낼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일주일 뒤 라쿠스에서 다시 한 통의 카드가 도착했다. 주인집 마차가 자신을 데리러 왔으며, 이제 마을을 떠나 산맥으로 향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이 꽤 오랫동안 이어진 그의 마지막 소식이었다. 실제로 워드는 5월이 되어서야 부모님이 자주 보내는 편지에 답장을 보냈다. 당시 워드 부부는 여름 동안 유럽을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에, 어머니는 런던이나 파리, 혹은 로마에서 아들을 만나기

를 희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워드는 편지에서 그 계획을 만류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때문에 지금 머무는 곳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게다가 페렌치 남작의 성이 위치한 환경도 방문객을 맞이하기에는 적절치 않았다. 성은 어두운 숲이 우거진 산맥의 험준한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일대는 마을 사람들이 기피하는 지역이라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쾌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더군다나 남작은 뉴잉글랜드의 예의 바르고 보수적인 신사들이 좋아할 만한 인물도 아니었다. 그의 외모와 태도는 기이한 구석이 있었고, 나이 또한 보는 이를 불안하게 만들 정도로 많았다. 찰스는 차라리 부모님이 자신이 프로비던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편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돌아오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말이다.

하지만 그 귀환은 1925년 5월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젊은 방랑자는 몇 장의 안내장을 보낸 뒤, 호메릭 호를 타고 뉴욕에 조용히 발을 들였다. 그러고는 자동차 버스를 타고 프로비던스까지 먼 길을 달려갔다. 그는 봄날의 코네티컷을 지나는 동안 초록빛으로 넘실거리는 구름과 향기로운 꽃이 만발한 과수원, 그리고 하얀 침탑이 솟은 마을의 풍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눈에 담았다.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고대 뉴잉글랜드의 정취였다.

오래된 프로비던스! 그를 존재하게 한 것은 바로 이 도시와, 끊임없이 이어져 온 긴 역사 속에 깃든 신비로운 힘이었다. 또한 그를 다시 불러들인 것 역시, 그 어떤 예언자도 그 경계를 가늠할 수 없는 경이롭고도 은밀한 비밀들이었다. 그가 평생을 여행과 연구에 바치며 준비해 온

목적지는, 바로 이곳에 잠든 경이롭거나 혹은 공포스러운 비술들이었다.

택시가 강줄기가 언뜻 보이는 포스트 오피스 광장을 지나, 워터맨가의 가파르고 굽이진 언덕을 따라 프로스펙트 방향으로 질주했다. 어린 시절 보았던 아름답고 오래된 저택들을 지나 여덟 블록을 더 나아갔다. 젊은 시절 수없이 발걸음을 옮겼던 기묘한 벽돌 보도들도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오른편에는 세월의 풍파를 맞은 작은 흰색 농가가 나타났다. 왼편에는 그가 태어난 거대한 벽돌 저택이 위엄 있는 모습을 드러냈다. 고전적인 아담 양식의 현관과 웅장한 돌출형 파사드가 눈에 들어왔다.

황혼이 깃든 시간, 찰스 텍스터 워드가 집으로 돌아왔다.

워드는 눈에 띄게 노쇠하고 거칠어진 모습이었으나, 전반적인 반응만큼은 여전히 평범했다. 월렛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누었을 때 보여준 그 침착함은, 설령 미치기 시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오랫동안 흉내 낼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당시 그가 미쳤다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는 워드의 다락방 실험실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다. 그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괴한 소리들이 흘러나왔다. 무언가를 읊조리거나 반복하는 소리, 그리고 기묘한 리듬에 맞춰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낭독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들은 언제나 워드 자신의 목소리였지만, 목소리의 질감이나 그가 읊는 주문의 억양에는 듣는 이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집안의 존경받는 반려묘이자 모두의 사랑을 받는 검은 고양이 니그조차, 특정 음조가 들릴 때면 털을 바짝 세우고 등을 둥글게 말며 눈에 띄게 경계하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다.

실험실에서 이따금 흘러나오는 냄새 또한 지극히 기이했다. 때로는 매우 유독했으나, 그보다는 향긋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그 향기는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는 묘한 속성을 지녔는데, 마치 환상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힘이라도 있는 듯했다. 그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거대한 풍경이 순식간에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기이한 언덕이나, 스프링크스와 히포그리프가 끝없이 늘어선 길목이 무한한 거리 너머로 뻗어 나가는 환영이 보였다.

위드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서재에 걸린 커웁의 초상화와 님프라는 사실은 놀라울 정도로 짝어졌다. 윌렛 박사는 위드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종종 초상화 앞에 멈춰 서곤 했다. 그는 두 인물이 거의 동일인물처럼 보이는 것에 경탄하며, 이제는 초상화 오른쪽 눈 위의 작은 흉터만이 죽은 마법사와 살아있는 청년을 구분 짓는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실험실에서 기이한 광경도 자주 목격했다. 선반이나 탁자 위에는 기괴한 형상의 작은 밀랍 인형들이 놓여 있었고, 넓은 방 중앙의 빈 공간에는 분필이나 숯으로 그린 원과 삼각형, 오각별의 흔적이 반쯤 지워진 채 남아 있었다. 그리고 밤마다 그 리듬감 있는 주문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너무도 거세어, 하인들을 붙잡아 두거나 찰스의 광기에 대한 은밀한 소문을 잠재우는 일조차 점차 어려워졌다.

1927년 1월, 기이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 어느 날 밤 자정 무렵이었다. 찰스가 의식을 치르며 주문을 외우고 있었는데, 그 기괴한 운율이 집 아래층까지 불쾌하게 울려 퍼졌다. 그때 갑자기 만(灣) 쪽에서 차가운 돌풍이 몰아쳤고, 인근 주민 모두가 느낄 만큼 지면이 희미하고 모호하게 흔들렸다. 동시에 고양이는 유례없는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였고, 개들은 사방 1마일 반경까지 울부짖어댔다.

이것은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격렬한 뇌우의 전조였다. 천둥소리가 어찌나 거세게 몰아치던지, 워드 부부는 집이 벼락을 맞은 줄로만 알았다. 부부는 피해 상황을 확인하려 서둘러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하지만 다락방 문앞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찰스였다. 그는 창백하고 단호한 모습이었으며,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엄숙함이 뒤섞인, 거의 공포스럽기까지 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찰스는 집이 실제로 벼락을 맞은 것은 아니니 곧 폭풍이 지나갈 것이라고 부부를 안심시켰다.

천둥소리는 이내 둔탁하게 중얼거리는 웃음소리처럼 잦아들더니 마침내 사라졌다. 별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찰스 워드의 얼굴에 서려 있던 승리감은 아주 기묘한 표정으로 굳어졌다.

* * * * *

이 사건이 일어난 후 두 달여 동안, 워드는 평소보다 실험실에 머무는 시간이 줄었다. 그는 날씨에 기묘한 관심을 보였고, 땅이 녹는 봄철 해동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등 이상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3월의 어느 늦은 밤, 그는 자정이 넘은 시각에 집을 나섰고 거의 아침이 되어서

야 돌아왔다. 잠이 오지 않아 깨어 있던 그의 어머니는 마차 진입로에 육중한 엔진 소리를 내며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것을 들었다. 낮게 읊조리는 욕설도 들려왔다. 워드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에는 찰스의 지시에 따라 네 명의 검은 형체가 트럭에서 길고 무거운 상자를 내리고 있었고, 그들은 상자를 옆문으로 옮겨 집 안으로 들여놓았다. 어머니는 거친 숨소리와 계단을 오르는 둔중한 발소리를 들었다. 이윽고 다락방에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고 나서 발소리는 다시 아래로 내려왔고, 네 명의 남자는 밖으로 다시 나타나 트럭을 몰고 떠나갔다.

다음 날, 찰스 텍스터 워드는 다시 다락방에 틀어박혀 외부와 단절되었다. 그는 실험실 창문의 어두운 가림막을 모두 내려버린 채, 어떤 금속 물질을 다루는 듯 보였다. 그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원하는 음식도 단호히 거절했다.

정오 무렵, 무언가 뒤틀리는 듯한 소음과 뒤이어 들려온 처절한 비명, 그리고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워드의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자, 아들은 마침내 힘없는 목소리로 응답하며 아무 일도 없으니 걱정 말라고 말했다.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형언할 수 없이 끔찍한 악취는 무해했으며, 불행하게도 작업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그는 오직 혼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저녁때쯤 나타나겠다고 덧붙였다.

그날 오후, 잠긴 문 너머에서 기이한 싹싹거리는 소리가 잦아든 뒤에야 그는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몹시 수척해진 모습이었으

며,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실험실에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 사건은 그가 비밀을 고수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로 그 누구도 그 신비로운 다락방 작업실이나, 그가 정리해 투박하게 가구를 들여놓은 옆 창고에는 발을 들일 수 없었다. 그는 그 창고를 침실로 꾸며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신만의 영역으로 삼았다. 그는 아래층 서재에서 가져온 책들과 함께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훗날 포터킷의 방갈로를 구입해 모든 과학 실험 도구를 그곳으로 옮길 때까지 그 생활을 이어갔다.

저녁 무렵, 찰스 텍스터 워드는 가족들이 눈치채기 전에 그 신문 기사를 확보했다. 그러다 실수인 듯 보이는 사고로 기사的一部分을 훼손하고 말았다. 이후 월렛 박사는 집안 식구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날짜를 알아낸 뒤, <저널>사 사무실을 찾아가 온전한 사본을 찾아냈다. 확인 결과, 훼손된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짧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노스 묘지에서 발각된 야간 도굴꾼들

노스 묘지의 야간 경비원 로버트 하트는 오늘 아침, 묘지에서 가장 오래된 구역에 트럭 한 대와 함께 여러 명의 남자가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하트가 그들을 쫓아낸 덕분에, 그들이 무엇을 하려 했던 간에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발견은 새벽 4시경에 이루어졌다. 하트는 거처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엔진 소리에 주의를 기울였다. 살펴보니 수십 피트 떨어진 진입로

에 커다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하지만 하트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 접근하기도 전에, 사내들은 서둘러 커다란 상자 하나를 트럭에 실었다. 그리고 추격을 피하려는 듯 곧장 도로를 향해 차를 몰아 떠나버렸다. 알려진 묘지 중에는 파헤쳐진 곳이 없었기에, 하트는 저 상자가 그들이 매장하려 했던 물건이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밭굴 작업이 발각되기 전까지 꽤 오랜 시간 진행되었음이 분명했다. 하트는 아모사 필드 부지 내, 도로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구덩이를 발견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옛 석조물들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다. 무덤만큼이나 넓고 깊은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다. 또한 묘지 기록에 남아 있는 그 어떤 매장지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제2분소의 라일리 경사는 그 현장을 살핀 뒤, 누군가 술을 숨겨두기 위해 파놓은 구멍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밀주업자들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만한 안전한 은닉처를 찾으려 꽤나 기괴하고도 교묘한 수법으로 땅을 판 듯했다. 하트는 질문에 답하며, 도주하던 트럭이 로샬보 애비뉴 방향으로 향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확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찰스 텍스터 워드의 모습은 가족들에게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락방에 잠자리를 마련한 그는 그곳에 틀어박혀 은둔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문 앞까지 음식을 가져다 놓으라고 시킨 뒤, 하인이 완전히 떠나고 나서야 음식을 들여놓았다.

가끔씩 단조로운 주문을 읊조리는 웅얼거림이나 기괴한 리듬을 영창하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그러다 어떤 때는 유리잔이 달그락거리

는 소리, 화학 약품이 치익 소리를 내며 끓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혹은 가스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가 간간이 들리기도 했다. 때로는 문틈 사이로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기묘한 악취가 풍겨 나왔다. 젊은 은둔자가 잠시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면 그에게서 느껴지는 팽팽한 긴장감은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과 의구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한번은 필요한 책을 찾기 위해 아테네움 도서관으로 급히 다녀오기도 했고, 보스턴에서 아주 난해한 서적을 가져오라고 심부름꾼을 고용하기도 했다. 상황 전체에는 불길한 전조가 가득했다. 가족들과 윌렛 박사 모두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따름이었다.

* * * * *

그러다 4월 15일,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성격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 정도 면에서는 분명 끔찍할 만큼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윌렛 박사는 이 변화에 어떤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날은 성금요일이었다. 하인들은 이 사실을 두고 떠들썩하게 떠들어댔지만, 다른 이들은 그저 자연스러운 우연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늦은 오후, 젊은 워드는 유난히 큰 목소리로 어떤 주문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는 무언가를 태웠는데, 그 냄새가 어찌나 자극적인지 연기가 집 안 전체로 퍼져 나갈 정도였다. 잠긴 문 밖 복도에서도 그 주문 소리가 워낙 또렷하게 들렸기에, 초조하게 기다리며 귀를 기울

이던 워드 부인은 그 내용을 저도 모르게 외워버리고 말았다. 나중에 그녀는 월렛 박사의 요청에 따라 그 주문을 글로 옮길 수 있었다.

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전문가들은 월렛 박사에게 이 주문이 '엘리파스 레비'의 신비주의 저술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전했다. 레비란 금지된 문틈 사이로 기어 들어가, 저 너머 공허의 공포스러운 광경을 엿보았던 그 수수께끼 같은 영혼을 말한다.

Per Adonai Eloim, Adonai Jehova, Adonai Sabaoth,
Metraton Ou Agla Methon, verbum pythonicum, mysterium
salamandrae, conventus sylvorum, antra, gnomorum,
daemonia Coeli God, Almonsin, Gibor, Jehosua, Evam,
Zariatnatmik, veni, veni, veni.

이 상황은 두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나 중단 없이 이어졌다. 그러다 갑자기 온 동네를 뒤덮는 개들의 아수라장 같은 울부짖음이 시작되었다.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다음 날 신문 지면을 얼마나 차지했는지를 보면 짐작할 수 있겠지만, 워드 가문의 사람들에게는 그 직후에 몰려온 악취에 가려져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다. 그것은 끔찍하고도 사방으로 스며드는 악취였으며, 그들 중 누구도 이전에는 맡아본 적이 없었고 그 이후로도 맡아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이 독한 악취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번개와 같은 섬광이 아주 뚜렷하게 번쩍었다. 주변이 대낮이었기에 눈이 멀 정도로 강렬하거나 인상적인 광경은 아니었으나, 그 뒤를 이어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천둥처럼 멀리서 울려 퍼지는 거리감과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울림, 그리고 찰스 워드의 목소리와는 도저히 닮지 않은 기괴함 때문에 그 누구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목소리는 집 전체를 흔들었고, 개들의 울부짖음을 뚫고 최소한 두 명의 이웃에게까지 명확히 전달되었다.

아들의 잠긴 실험실 밖에서 절망 속에 귀를 기울이던 워드 부인은 그 목소리가 품은 지옥 같은 의미를 깨닫고 몸서리쳤다. 찰스가 예전에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어둠의 서적에 기록된 그 목소리의 사악한 악명에 대해, 그리고 페너의 편지에 따르면 조지프 커웁이 파멸하던 밤 포터킷의 저주받은 농가 위로 그 목소리가 어떻게 천둥처럼 울려 퍼졌는지에 대해서도 말이다. 그 악몽 같은 문구는 결코 착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찰스가 과거에 커웁에 대한 조사 내용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그 문구를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고대의 잊힌 언어 중 단 한 조각에 불과했다.

"DIES MIES JESCHET BOENE DOESEF DOUVEMA
ENITEMAUS."

천둥소리가 몰아치자마자, 일몰까지는 아직 한 시간이나 남았음에도 대낮의 빛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다. 이어 첫 번째와는 또 다른, 정체를 알 수 없으면서도 참을 수 없이 불쾌한 악취가 확 끼쳐 왔다. 찰스는 다시 주문을 외우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Yi-ngah-Yog-Sothoth-he-lglb-fi-throdag"처럼 들리는 음절들을 들을 수 있었다. 주문은 "Yah!"라는 외침으로 끝을 맺었는데, 그 광기 어린 힘은 귀를 찢을 듯한 절정으로 치달았다.

잠시 후, 미친 듯이 터져 나온 비명 소리가 이전의 모든 기억을 지워 버렸다. 그 비명은 격렬하게 폭발하듯 터져 나오더니, 점차 악마적이고 히스테리적인 웃음소리로 변해갔다. 워드 부인은 모성애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무모한 용기가 뒤섞인 채, 숨겨진 벽판을 향해 겁에 질린 손길로 두드리려 보았으나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했다. 그녀가 다시 문을 두드리던 그때, 두 번째 비명이 들려왔고 그녀는 맥없이 멈춰 서고 말았다. 이번 비명은 분명 아들의 익숙한 목소리였으며, 동시에 저편에서 터져 나오는 다른 목소리의 웃음소리와 뒤섞여 울려 퍼지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비록 그녀는 지금도 정확히 무엇 때문에 쓰러졌는지 기억해 내지 못하고 있지만 말이다. 때때로 기억은 자비로운 차원에서 무언가를 지워버리기도 하는 법이다.

* * * * *

워드 씨는 6시 15분쯤 업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아래층에 아내가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겁에 질린 하인들로부터 아내가 찰스의 방문 앞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 그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기괴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즉시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실험실 밖 복도 바닥에는 워드 부인이 길게 쓰러져 있었다. 그녀가 기절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옆쪽 벽장 안에 놓인 그릇에서 물을 떠 오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다.

그는 차가운 물을 그녀의 얼굴에 끼얹었다. 다행히 그녀가 즉각 반응을 보이자 그는 안도했다. 부인이 멍한 눈을 뜨는 것을 지켜보던 그

때, 갑자기 서늘한 한기가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방금 전까지 그녀가 빠져나오려 애쓰던 그 공포스러운 상태로 자신 또한 몰아넣을 듯한 한기였다. 겉보기에는 고요해 보이던 실험실은 사실 침묵 속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곳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긴박하고 억눌린 대화가 속삭이고 있었다. 비록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으나, 그 음성만으로도 영혼을 깊게 뒤흔드는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찰스 텍스터 워드가 주문을 중얼거리는 것 자체는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중얼거림은 분명히 달랐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했고, 혹은 대화를 흉내 내는 것처럼 들렸다. 억양의 높낮이가 규칙적으로 교차하며 질문과 답변, 진술과 응답이 오가는 듯한 기색마저 역력했다. 한쪽 목소리는 명백히 찰스의 것이었으나, 다른 쪽 목소리는 깊고 공허했다. 그 청년이 아무리 의식을 갖추고 흉내를 낸다 해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목소리였다. 그 음성에는 기괴하고 불경하며 비정상적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다.

만약 정신을 차리고 있던 아내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면, 테오도르 하울랜드 워드는 자신이 단 한 번도 기절한 적이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자부심을 1년이나 더 지켜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아내의 비명은 그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고, 덕분에 그는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그토록 끔찍하게 뒤흔든 그 목소리들을 알아채기 전에, 서둘러 아내를 품에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그는 충분히 빠르지 못했다. 그는 무언가에 휩쓸리고 말았고, 아내를 안은 채 위험할 정도로 비틀거렸다. 아내의 비명은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들린 모양이었다. 잠긴 문 너머에서 들려오던 그 낮고도 무시무시한 대화가, 비명에 반응하듯 처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을 내뱉었다. 그것은 찰스 자신의 목소리로 내뱉은 다급한 경고에 불과했으나, 그 말을 엿들은 아버지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왔다.

찰스가 내뱉은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싯! 쓰라고!”

워드 부부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한참 동안 상의를 나누었다. 결국 아버지는 그날 밤 당장 찰스 텍스터 워드와 엄중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이런 행동을 더는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벌어진 일들은 제정신의 한계를 이미 넘어섰으며, 집안 전체의 질서와 평온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그 청년이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광기 그 자체였다. 정체 모를 목소리를 흥내 내며 허공에 대고 대화를 나누거나 광포하게 비명을 지르는 행위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자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워드 부인은 병이 들 것이고 하인들을 계속 고용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질 터였다.

식사를 마친 워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찰스의 실험실이 있는 위층으로 향했다. 하지만 3층에 다다랐을 때, 그는 아들의 서재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을 멈췄다. 이제는 쓰지 않는 서재 안에서 책들이 내던져지는 듯한 소리와 종이가 거칠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워드 씨가 문가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니, 아들이 온갖 크기와 모양의 문헌들을 한 아름씩 안고 흥분한 기색으로 모으고 있었다. 찰스의 모습은 몹시 수척하고 초췌했다. 그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자 깜짝 놀라며 들고 있던 것들을 모두 떨어뜨렸다. 아버지가 앉으라고 명령하자 그는 자리에 앉았고, 오랫동안 들어 마땅했던 훈계를 한동안 묵묵히 들었다. 큰 소동은 없었다. 훈계가 끝날 무렵, 찰스는 아버지가 옳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가 내던 소음과 중얼거림, 주문 소리, 그리고 화학약품 냄새가 변명의 여지 없는 골칫거리였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어머니를 놀라게 하고 기절하게 만든 것에 대해 깊이 뉘우쳤다. 나중에 들렸던 대화 소리는 특정한 정신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상징적 행위의 일부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난해한 화학 용어들을 사용하는 모습에 워드 씨는 다소 당혹스러웠으나, 찰스에게서 느껴지는 인상은 분명했다. 비록 형언할 수 없는 중대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만, 그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침착하고 이성적인 상태였다. 워드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이 일은 불쌍한 늙은 나이그의 죽음만큼이나 미스터리했다. 한 시간 전 지하실에서 발견된 나이그의 시신은 눈을 부릅뜬 채 입을 공포로 일그러뜨린 상태로 굳어 있었다.

막연한 탐정적 직감에 이끌린 듯, 당혹감에 휩싸인 아버지는 아들이 다락방으로 무엇을 가져갔는지 확인하려 빈 책장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훑었다. 아들의 서재는 분류 체계가 명확하고 엄격해서, 어떤 책이 빠졌는지 혹은 적어도 어떤 종류의 책이 사라졌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워드 씨는 이전에 사라진 책들 외에는, 오컬트나 고서 관련 서적 중에는 더 이상 비어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새로 사라진 책들은 모두 현대적인 것들이었다. 역사서, 과학 논문, 지리학 서적, 문학 입문서, 철학서, 그리고 몇몇 당대의 신문과 잡지들이었다.

이것은 최근 찰스 텍스터 워드가 탐독하던 분야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변화였다. 아버지는 점점 거세지는 혼란의 소용돌이와 집어삼킬 듯 밀려드는 기이함 속에 멈춰 섰다. 그 기이함은 매우 강렬한 감각이었다. 주변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려 애쓸수록, 그 불길한 느낌은 마치 가슴을 할퀴는 듯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다. 그것은 정신적인 차원을 넘어, 손에 잡힐 듯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북쪽 벽에는 올니 코트 저택에서 가져온 오래된 조각 장식용 벽난로 상판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커다란 커웬 초상화는 이미 재앙을 맞이한 상태였다. 균열이 가고 위태롭게 복원된 유화 그림은 세월의 풍파와 불균형한 온도 변화를 견디지 못했다. 방을 마지막으로 청소한 이후, 결국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이다.

조지프 커웁의 초상화는 나무 벽면에서 떨어져 나가며 점점 더 단단히 말려 올라갔다. 그러더니 마치 악의를 품고 침묵 속에서 돌발적으로 움직인 듯, 순식간에 작은 조각들로 부스러져 내렸다. 자신과 기묘할 정도로 닮은 그 청년을 뚫어지게 응시하던 초상화의 시선은 영원히 사라졌다. 이제 그림은 바닥 위에 얇고 고운 청회색 먼지 층이 되어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4. 변이와 광기

그 잊을 수 없는 성금요일 이후 일주일 동안, 찰스 텍스터 위드는 평소보다 자주 눈에 띄었다. 그는 서재와 다락방 실험실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책을 옮겼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행동은 차분하고 이성적이었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은밀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어머니는 그 모습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게다가 요리사에게 요구하는 음식의 양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의 식욕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였다.

윌렛 박사는 금요일마다 들려오던 기괴한 소음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이미 전해 들은 상태였다. 그다음 주 화요일, 그는 도서관에서 그 청년과 긴 대화를 나누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그 초상화가 걸려 있지 않았다. 면담은 평소와 다름없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하지만 윌렛은 당시 그 청년이 제정신이였으며, 본래의 모습 그대로였다고 여전히 단언할 수 있었다. 위드는 조만간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약속했고, 다른 곳에 실험실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초상화가 사라진 것에 대해 위드는 처음 가졌던 열정과는 대조적으로 거

의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초상화가 갑작스럽게 사라져 버린 상황에서 묘한 즐거움마저 느끼는 듯 보였다.

둘째 주쯤부터 찰스 텍스터 워드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봄맞이 대청소를 돕기 위해 찾아온 인심 좋은 흑인 한나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워드가 올니 코트의 오래된 저택을 자주 드나든다는 것이었다. 그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고 그곳을 찾아가, 지하실에서 무언가를 기이하게 파헤치곤 했다고 했다. 워드는 한나와 노인 아사에게 늘 후하게 대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걱정이 많아 보였다. 태어날 때부터 워드가 자라는 과정을 지켜봐 온 한나에게는 그 모습이 무척이나 마음 아픈 일이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또 다른 보고가 포터킷에서 전해졌다. 그곳에서는 가족의 지인들이 그를 멀리서 목격한 일이 놀라울 정도로 빈번했다. 그는 로즈 온 더 포터킷의 휴양지와 카누 보관소를 마치 유령처럼 배회하는 듯 보였다. 이후 월렛 박사가 그곳에서 조사한 결과, 그의 목적이 항상 울타리로 둘러싸인 강둑으로 접근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그 강둑을 따라 북쪽으로 걸어갔으며, 한 번 자취를 감추면 대개 아주 오랫동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5월 말엽, 다락방 실험실에서 의식을 치르는 듯한 소리가 잠시 다시 들려왔다. 이 소동 때문에 워드 씨는 엄하게 꾸짖었고, 찰스는 다소 정신이 팔린 듯한 태도로 앞으로 주의하겠노라 약속했다. 사건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다. 마치 그 격동적이었던 성금요일에 기록된 가상의 대화가 다시 시작된 것처럼 보였다. 청년은 자기 자신과 격렬하게 논쟁하

거나 항의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갑자기 서로 다른 어조로 부딪히는 외침들이 연달아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마치 무언가를 요구하다가도 곧바로 부정하는 듯한 그 소리가 명확히 구분될 정도였다. 이 소리에 놀란 워드 부인은 다락방으로 달려가 문밖에서 귀를 기울였다. 부인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석 달 동안은 붉게 만들어야 해"라는 파편 같은 말뿐이었다. 부인이 문을 두드리자마자 모든 소리는 즉시 멎었다. 나중에 아버지가 찰스를 추궁하자, 그는 의식의 영역 사이에 특정한 충돌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아주 뛰어난 기술이 있어야만 이를 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 충돌을 다른 영역으로 옮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6월 중순경, 기이한 야간 사건이 발생했다. 초저녁 무렵 위층 실험실에서 무언가 부딪히고 쿵쾅거리는 소음이 들려왔다. 워드 씨가 막 확인하러 나서려던 찰나, 소음은 돌연 잦아들었다. 그날 자정, 가족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뒤 집사가 현관문을 잠그고 있었다. 집사의 진술에 따르면, 그때 찰스 텍스터 워드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든 채 계단 아래로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그는 나가고 싶다는 몸짓을 보였다.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성실한 요크셔 출신 집사는 그의 열병에 들뜬 눈을 단 한 번 마주치고는 이유 모를 전율을 느꼈다. 집사가 문을 열어주자 젊은 워드는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워드 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집사는 찰스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에서 불경한 무언가를 느꼈다고 말했다. 젊은 신사가 정직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도저히 하룻밤을 더 머물 수 없겠다는 것이 그의 이유였다. 워드 부인은 그의 사직을 허락했으

나, 그의 말을 그리 신뢰하지는 않았다. 그날 밤 찰스가 야만적인 상태였다고 상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부인이 깨어 있는 동안 위층 실험실에서는 희미한 소리들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했고, 서성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으며, 깊은 절망의 심연만을 말해주는 듯한 탄식 소리 같기도 했다. 워드 부인은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아들의 수수께끼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다른 모든 것을 몰아내 버렸기 때문이다.

다음 날 저녁, 약 석 달 전의 어느 저녁과 마찬가지로 찰스 텍스터 워드는 아주 이른 시간에 신문을 집어 들었다가 실수로 주요 지면을 분실하고 말았다. 이 사실은 나중에 월렛 박사가 흠어진 단서들을 대조하고 여기저기서 끊긴 연결 고리들을 찾아내기 시작할 때까지 아무도 기억해 내지 못했다. 월렛 박사는 《저널》사 사무실에서 찰스가 잃어버렸던 그 지면을 찾아냈고, 그중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기사를 표시해 두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묘지 발굴의 심화

오늘 아침, 노스 묘지의 야간 경비원 로버트 하트는 묘지의 오래된 구역에서 구울들이 다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뿔혀 나가고 처참하게 부서진 슬레이트 묘비에 따르면, 1740년에 태어나 1824년에 사망한 에즈라 워드의 무덤이 파헤쳐져 있었다. 누군가 무덤 안을 뒤져 놓은 흔적이 역력했는데, 인근 도구 창고에서 훔친 삽을 사용해 작업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

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으니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든 간에, 이제 남은 것이라곤 부식되어 조각난 나무 몇 점뿐이었다. 바퀴 자국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경찰이 인근에서 발견한 발자국 한 세트가 있을 뿐인데, 이를 측정한 결과 세련된 신사들이 신는 구두 자국임이 드러났다.

하트는 이번 사건을 지난 3월에 발견된 굴착 작업과 연관 지으려 한다. 당시 트럭을 타고 온 무리가 깊게 땅을 파헤치다가 겁을 먹고 달아난 일이 있었다. 하지만 제2관할 구역의 라일리 경사는 이 가설을 일축하며, 두 사건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3월의 굴착은 무덤이 있을 법하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이번에는 누군가 정성껏 관리해 온 명확한 무덤이 파헤쳐졌다. 게다가 그 흔적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묘비가 산산조각이나 있는 모습에서는 악의적인 의도마저 느껴졌다.

사건 소식을 접한 위든 가문의 일원들은 경악과 유감을 표했다. 그들은 조상의 무덤을 파헤칠 만큼 원한을 품은 적이 누구인지 도무지 떠올릴 수 없었다. 앤젤가 598번지에 사는 해저드 위든은 가문의 전설 하나를 회상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에즈라 위든은 독립 전쟁 직전 매우 기이한 사건에 휘말렸다고 한다. 비록 그 일이 본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은 아니었으나, 그 내용은 무척이나 기묘했다. 하지만 해저드는 최근에 벌어진 어떤 원한 관계나 미스터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현재 커닝햄 경감이 이 사건을 맡았으며, 머지않아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포터킷의 개들이 짖어대고 있었다.

오늘 새벽 3시경, 포터킷의 로즈 온 더 포터킷 북쪽 강가 근처에서 들려온 기이한 개 짖는 소리에 포터킷 주민들이 잠에서 깼다. 소리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에 따르면, 그 울부짖음의 크기와 음색은 유달리 기괴했다고 한다. 로즈의 야간 경비원인 프레드 램딘은 그 소리에 죽음의 공포와 고통에 질린 사람의 비명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고 증언했다. 강둑 어딘가를 강타한 듯한 날카롭고 짧은 뇌우가 몰아치면서 이 소란은 멎었다. 사람들은 이번 사건이 만(灣)을 따라 늘어선 유류 저장 탱크에서 흘러나온 기분 나쁘고 이상한 냄새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아마도 그 냄새가 개들을 흥분시켰을지도 모른다.

이제 찰스 텍스터 워드의 모습은 몹시 수척해졌고,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형색이 되었다. 돌이켜보면 그는 이 시기에 어떤 진술이나 고백을 하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 다만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그의 입을 막았을 뿐이다. 밤마다 기괴한 청각을 세우고 아들의 움직임을 살피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둠을 틈타 자주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도했던 혐오스러운 흡혈 사건들 역시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학구적인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 찰스의 소행으로 지목되고 있다. 비록 그 사건들이 아직 명확한 범인에게 연결되지는 않았으나 말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최근에 발생한 이 유명한 사건들은, 모든 연령대와 유형의 희생자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두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나는 워드 가의 저택 근처인

주거용 언덕 지대와 노스 엔드였고, 다른 하나는 크랜스턴 경계 너머 포터킷 인근의 교외 지역이었다. 길을 가던 행인과 창문을 열어두고 잠을 자던 이들 모두가 공격을 받았으며, 살아남아 그 사실을 증언한 이들은 입을 모아 한 괴물을 묘사했다. 그것은 눈에서 불꽃을 내뿜으며, 마르고 유연한 몸으로 꺾충꺾충 뛰어다니는 괴물이었다. 그 괴물은 희생자의 목이나 상완에 이빨을 박아 넣고는 굶주린 듯 탐욕스럽게 피를 빨아먹었다고 한다.

[삽화: "이러한 흡혈 사례에는 모든 연령대와 유형의 희생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월렛 박사는 찰스 텍스터 워드의 광기가 이토록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이러한 공포스러운 사건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그는 자신만의 확고한 이론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확실한 사실을 말할 때는 기묘할 정도로 부정적인 표현만을 사용한다.

"누가, 혹은 무엇이 이 공격과 살인을 저질렀다고 믿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박사가 말했다. "다만 찰스 텍스터 워드는 이 일들과 무관하며 결백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밝혀두고 싶군요. 그가 피의 맛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빈혈 증세로 쇠약해지고 안색이 점점 창백해졌다는 사실이 그 어떤 말보다도 확실한 증거니까요. 워드는 끔찍한 것들을 건드리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대가는 충분히 치렀습니다. 그는 결코 괴물이나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 변화가 찾아왔고, 나는 그 변화와 함께 예전의 찰스 워드도 죽었다고 믿으며 안주하고 있다. 적어도 그의 영혼은 죽었다. 웨이트 병원에서 사라진 그 미친 육신에는 다른 영혼이 깃들어 있었으니 말이다.

월렛의 말에는 권위가 실려 있다. 그는 워드 가문의 집을 자주 드나들며 워드 부인을 간호해 왔기 때문이다. 당시 부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이 무너지기 시작한 상태였다. 밤마다 무언가에 귀를 기울이던 부인은 기괴한 환각에 시달렸고, 이를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월렛은 부인과 대화할 때는 그 말을 비웃었으나, 홀로 남았을 때는 그 내용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지곤 했다.

부인이 겪는 망상은 늘 다락방 실험실과 침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관한 것이었다. 부인은 도저히 들릴 리 없는 시각에 억눌린 듯한 한숨 소리와 흐느낌이 들린다고 강조했다. 7월 초, 월렛은 워드 부인에게 요양을 위해 애틀랜티시티로 떠날 것을 명령했다. 그는 워드 씨와 초췌하고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의 찰스에게, 부인에게는 오직 기운을 북돋아 주는 편지만을 쓰라고 당부했다. 부인이 목숨을 건지고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강제적이고도 마지못한 피신 덕분일 것이다.

어머니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찰스 텍스터 워드는 포터킷의 방갈로를 사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다. 그 집은 로즈보다 약간 높은 곳, 인가가 드문 강둑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초라하고 작은 목조 건물이었으

며 콘크리트로 된 차고가 딸려 있었다. 하지만 웬일인지 청년은 오직 그 집만을 고집했다. 그는 부동산 중개소들을 끈질기게 괴롭혔고, 결국 중개업자 중 한 명이 다소 내키지 않아 하는 집주인을 설득해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그 집을 넘겨받게 했다.

집이 비자마자 찰스는 어둠을 틈타 그곳을 차지했다. 그는 커다란 폐쇄형 뱅에 자신의 다락방 실험실에 있던 물건들을 전부 실어 날랐다. 서재에서 빌려온 기괴한 고서들과 현대 서적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집을 옮기던 그 새벽녘의 풍경을 그의 아버지는 기억한다. 아버지는 그저 억눌린 욕설과 발을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던, 몽롱한 상태에서 느꼈던 감각만을 기억할 뿐이다. 그날 밤 짐들이 모두 옮겨진 뒤, 찰스는 다시 3층에 있는 예전 거처로 돌아갔고, 다시는 다락방 근처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찰스 텍스터 워드는 다락방에서 지키던 그 은밀한 비밀들을 포터킷의 별장으로 고스란히 옮겨왔다. 다만 이제는 그 비밀을 공유하는 이가 둘이나 더 있는 듯 보였다. 한 명은 사우스 메인 스트리트 부둣가 출신의 험상궂게 생긴 포르투갈 혼혈인으로, 하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검은 안경을 쓰고 염색한 듯한 거친 수염을 기른 야윈 학자였는데, 보아하니 동료 관계인 듯했다.

이웃들은 이 기묘한 이들에게 말을 붙여보려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혼혈인 고메스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고, 자신을 앨런 박사라고 소개한 수염 난 사내 역시 자발적으로 고메스를 따라 입을 굳게 다물었다. 워드 본인은 좀 더 친근하게 굴어보려 노력했으나, 화학 연구

에 대해 두서없이 늘어놓는 이야기로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만 자극할 뿐이었다.

머지않아 밤새도록 불빛이 꺼지지 않는다는 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불빛이 사라지자, 더욱 기괴한 소문들이 뒤따랐다. 정육점에서 고기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주문한다는 이야기부터, 집 지하 깊은 곳에서 웅성거리는 고함과 낭독 소리, 리듬감 있는 주문 소리, 그리고 비명 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까지 이어졌다.

인근의 정직한 중산층들은 이 새롭고 낯선 가구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느꼈다. 이 혐오스러운 집과 최근 유행하는 흡혈귀식 습격 및 살인 사건을 연관 짓는 불길한 암시들이 떠도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특히 그 재앙이 이제는 온전히 포터킷과 인접한 에지우드 거리 일대에만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위드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갈로에서 보냈으나, 가끔 집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아버지의 울타리 아래 사는 아들로 여겼다. 그는 일주일씩 도시를 떠나 여행을 두 번이나 다녀왔는데, 그 목적지가 어디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위드의 안색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창백해졌고 몸도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생명에 관한 연구와 앞으로 밝혀낼 계시들에 대해 윌렛 박사에게 예전의 그 오래된 이야기를 반복할 때면, 예전 같은 자신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윌렛 박사는 종종 위드의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 그를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위드의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를 몹시 걱정하며 혼란스러워했고,

워드처럼 비밀스럽고 독립적인 성인에게 가능한 한 세심한 보살핌이 당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박사는 이 시기까지도 그 청년이 제정신이었다고 여전히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와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다.

9월쯤 되자 흡혈 행위는 잦아들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워드는 심각한 문제에 휘말릴 뻔했다. 한동안 포터킷의 방갈로에는 밤마다 트럭들이 드나드는 일이 잦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지면서, 그 트럭에 실린 물건 중 적어도 하나가 정체를 드러내고 말았다. 호프 밸리 근처의 외딴곳에서 술을 실은 트럭을 노리는 '하이재커'들의 혼한 습격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도들이 훨씬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탈취한 긴 상자들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이 소름 끼치는 것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내용물이 워낙 끔찍했던 탓에, 범죄 세계의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은 비밀로 유지될 수 없었다.

도둑들은 발견한 물건을 서둘러 땅에 묻어버렸으나, 주 경찰이 이 사실을 알아내면서 철저한 수색이 시작되었다. 최근 체포된 한 부랑자가 추가 기소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마침내 경찰관들을 그 장소로 안내했다. 그리고 그 급히 숨겨둔 은닉처에서 매우 흥측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발견되었다. 경악에 빠진 경찰 일행이 무엇을 파헤쳤는지 대중이 알게 된다면, 국가적, 아니 국제적인 품위마저 실추될 만한 일이었다. 학문적 식견과는 거리가 먼 경찰관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고, 곧이어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보가 빗발치듯 날아갔다.

그 상자들은 포터킷에 있는 찰스 텍스터 워드의 별장 앞으로 발송된 것이었고,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관리들은 즉시 그를 찾아가 매우 강압적이고 엄중하게 추궁했다. 관리들이 마주한 워드는 창백하고 초조한 기색이었으며, 곁에는 기묘한 동행자 두 명이 함께 있었다. 워드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타당한 설명과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정 해부용 표본들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그를 지켜봐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연구가 얼마나 깊이 있고 진지했는지 증명할 수 있었다. 워드는 필요한 종류와 수량의 표본을 주문할 때, 그 과정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합법적이라고 생각되는 기관들을 이용했다. 그는 표본의 정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조사관들이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대중의 정서와 국가적 위신에 미칠 끔찍한 파장에 대해 암시하자, 워드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다. 이 진술 과정에서 워드는 수염을 기른 동료 앨런 박사의 확고한 지지를 받았다. 앨런 박사의 기묘하게 공허한 목소리는 워드의 불안한 어조보다 훨씬 더 강한 확신을 전달했다. 결국 관리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워드가 건넨 뉴욕의 이름과 주소를 주의 깊게 기록해 두었을 뿐이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수색이 진행되었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덧붙여 말하자면, 표본들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아졌다. 따라서 일반 대중은 그 불경스러운 소란에 대해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1928년 2월 9일, 윌렛 박사는 찰스 텍스터 워드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윌렛 박사는 이 편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이 문제

로 라이먼 박사와 자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라이먼 박사는 이 쪽지가 조현병(dementia praecox)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믿는다. 반면 월렛 박사는 이 편지를 불행한 청년이 남긴 마지막 온전하고 제정신인 발언으로 간주한다. 월렛 박사는 특히 필체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비록 신경이 무너져 내린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글씨체는 분명히 워드 자신의 것이라는 설명이다. 편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928년 3월 8일,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프로스펙트 가 100번지.

월렛 박사님께—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약속해 왔고, 당신이 수없이 거듭 요청해 왔던 그 모든 사실을 이제는 밝혀야 할 때가 말입니다.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신 그 인내심과, 저의 정신과 성실함을 신뢰해 주신 그 믿음에 대해 저는 깊은 감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입을 열 준비가 된 나는, 내가 꿈꿨던 승리 따위는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굴욕적으로 인정해야만 한다. 내게 찾아온 것은 승리가 아니라 공포였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승리의 과시가 아니다. 인간의 상상이나 계산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로부터, 나 자신과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간절한 호소다.

포터킷에서 벌어졌던 옛 습격대에 대해 페너의 편지들이 무엇이라 기록했는지 기억할 것이다. 그 일들이 다시 반복되어야 한다. 그것도 아주 신속히 말이다.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막중하다. 인류의 문명과 모든 자연의 법칙, 어쩌면 태양계와 우주의 운명까지도 우리에게 달려 있을지 모른다.

나는 지식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 괴물 같은 비정상성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생명과 자연을 위해, 이 존재를 다시 어둠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도록 당신이 나를 도와야만 한다.

나는 그 포터킷의 장소를 영원히 떠났다.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살아 있든 죽어 있든, 우리는 모조리 뿌리 뽑아 없애야만 한다. 나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며, 만약 내가 그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결코 믿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직접 만나서 설명하겠다. 나는 이제 완전히 집으로 돌아왔다. 부디 시간을 내어 나를 찾아와 주길 바란다. 내가 할 말을 듣기 위해 최소한 다섯 시간에서 여섯 시간 정도는 연속으로 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에 말이다.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믿어라. 지금 이 일보다 더 막중하고 진정한 직업적 의무는 네게 없을 것이다. 내 생명과 이성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아버지께는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다. 아버지는 이 모든 일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실 테니까. 하지만 내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은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탐정 사무소에서 사람 네 명을 보내 집을 감시하게 하셨다. 그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할

존재들은 당신조차 상상하거나 인정하기조차 힘든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그리고 이 우주를 참혹한 지옥으로부터 구하는 데 어떻게 힘을 보탬 수 있을지 듣고 싶다면, 어서 빨리 와 달라.

언제든 괜찮네. 난 계속 집에 있을 테니까. 미리 전화하지는 말게. 누가, 혹은 무엇이 자네를 가로막으려 들지 알 수 없으니 말이야. 그리고 부디 어떤 신이든 상관없으니, 이 만남을 방해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세.

지극히 엄중하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찰스 텍스터 워드.

추신. — 앨런 박사를 발견하는 즉시 사살하고, 시신은 산에 녹여버려라. 태우지는 말고.

월렛 박사는 오전 10시 30분경 이 쪽지를 받았고, 곧바로 그 중대한 대화를 위해 늦은 오후와 저녁 시간을 통째로 비워두기로 했다. 대화가 밤늦게까지 이어지더라도 상관없었다. 그는 오후 4시쯤 도착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월렛은 온갖 엉뚱한 추측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때문에 다른 업무들은 거의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낯선 이가 읽었다면 그 편지가 미친 사람의 헛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월렛은 찰스 텍스터 워드의 기이한 행동을 너무나 많이 목격해 왔기에, 이를 단순한 망상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는 아주 미

묘하면서도 고대의 기운을 품은, 무시무시한 무언가가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또한 포터킷의 소문에 따르면 워드의 수수께끼 같은 동료인 앨런 박사가 어떤 인물인지 짐작할 수 있었기에, 편지에 언급된 앨런 박사의 존재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윌렛은 그를 직접 본 적은 없었으나, 그의 외모와 태도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그토록 입에 올리는 그 검은 안경 뒤에 대체 어떤 눈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윌렛 박사는 네 시 정각에 워드 저택을 방문했다. 하지만 찰스가 집 안에만 머물렀다던 결심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짜증이 났다. 경비원들은 현장에 있었으나, 젊은이가 겁이 예전만큼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탐정의 말에 따르면, 찰스는 그날 아침 전화기로 무언가에 겁에 질린 듯 격렬하게 항변하고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는 정체 모를 목소리에 대고 "너무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당분간은 아무도 만날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타협안을 마련할 때까지 결정적인 조치는 미뤄 주십시오", 혹은 "정말 죄송하지만, 모든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해야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시죠" 같은 말들을 늘어놓았다고 한다.

그러다 명상을 통해 용기를 얻었는지, 찰스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히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가 떠나는 것을 본 사람도, 그가 나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가 오후 한 시쯤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말이다. 찰스는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공포가 다시 엄습했던 모양이다.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높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숨이 막히는 듯한

헐떡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물으러 집사가 다가
가자, 찰스는 마치 대단한 용기라도 낸 듯한 태도로 문가에 나타났다.
그리고는 집사에게 말없이 손짓을 했는데, 그 몸짓이 어찌나 기괴하고
위협적이었던지 집사는 이유 모를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그 후 서가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듯한 요란한 달그락 소리와 쿵쾅
거리는 소리, 그리고 빠걱거리는 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나서 찰스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곧바로 자리를 떴다. 월렛 박사가
남겨진 메시지가 있는지 물었으나, 아무것도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집사는 찰스의 외양과 태도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낀 듯 몹시 불안
해 보였으며, 찰스의 불안정한 신경이 치료될 가망이 있는지 걱정스럽
게 물었다.

월렛 박사는 찰스 텍스터 워드의 서재에서 거의 두 시간 동안 헛되
이 기다렸다. 그는 책이 빠져나가 행하니 비어 있는 먼지 쌓인 책장들
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북쪽 벽의 판넬 장식 위, 1년 전만 해도 노(老)
조지프 커웁의 온화한 얼굴이 인자하게 내려다보던 그 벽난로 상단을
보며 비통한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흐르자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
다. 노을의 온기는 사라지고, 밤이 찾아오기 전 그림자처럼 스며드는
막연하고 거대한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마침내 워드 씨가 도착했다. 그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토록 애
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자리에 없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며 분노
했다. 그는 찰스의 약속을 알지 못했이라며, 청년이 돌아오는 대로 월렛
에게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작별 인사를 건네며 그는 아들의 상태에 대

해 극도의 당혹감을 표했고, 박사에게 아들이 다시 평온한 심신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월렛은 그 서재를 서둘러 벗어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곳에는 무언가 끔찍하고 불경한 것이 배회하는 듯했기 때문이다. 마치 사라진 초상화가 사악한 유산이라도 남겨두고 떠난 것 같았다. 그는 예전부터 그 초상화를 좋아하지 않았다.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그였음에도, 초상화가 사라진 빈 벽면에는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 기운 때문에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맑은 공기를 마시러 나가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 * * * *

다음 날 아침, 월렛은 워드의 부친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찰스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워드 씨는 앨런 박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앨런 박사의 말에 따르면, 찰스는 당분간 포터킷에 머물러야 하며 그동안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앨런 박사 본인이 갑작스럽게 어딘가로 떠나게 되면서, 찰스가 연구를 계속해서 감독해야 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찰스는 안부를 전하며, 자신의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으로 번거로움을 끼쳐 미안하다는 뜻을 덧붙였다. 이 메시지를 듣던 중 워드 씨는 처음으로 앨런 박사의 목소리를 접하게 되었다. 그 목소리는 무언가 막연하고 모호한 기억을 일깨웠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기억은 공포를 느낄 정도로 불길하게 마음을 뒤흔들었다.

이토록 당혹스럽고 모순적인 보고들 앞에서 월렛 박사는 솔직히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막막했다. 찰스가 남긴 쪽지에는 필사적인 간절함이 묻어 있었으나, 정작 글을 쓴 본인이 자신이 내세웠던 방침을 즉각 어겨버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젊은 위드는 자신의 탐구가 신성모독적이고 위협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썼다. 또한 그 탐구들과 수염 난 동료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며, 자신은 결코 그 최후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그는 이 모든 결심을 잊은 채 다시 그 미스터리의 한복판으로 돌아가 있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청년의 기괴한 행동을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맞았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의 본능은 그 광기 어린 편지가 남긴 잔상을 지워내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월렛은 편지를 다시 읽어 내려갔다. 편지에 담긴 허풍 섞인 미사여구와 실행되지 않은 결심들을 보면 그 내용은 공허하고 미친 소리처럼 들려야 마땅했다. 하지만 아무리 다시 읽어도 편지의 본질만큼은 결코 가볍거나 미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 속에 담긴 공포는 너무나 깊고 실재적이었다. 게다가 박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과 결합하자, 시공간을 초월한 괴물들의 존재가 너무나 생생하게 암시되었다. 그러니 냉소적인 설명 따위로 치부할 수도 없었다.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공포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 실체를 아무리 파악하기 어렵다 해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만 했다.

월렛 박사는 일주일 넘게 자신에게 닥친 이 난처한 상황을 곱씹었다. 그러다 결국 포터킷의 방갈로로 찾아가 찰스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그 청년의 친구들 중 누구도 이 금지된 은신처를 함부로 침범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조차 아들이 들려주는 설명에 의존할 뿐, 그 집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윌렛은 환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다. 워드 씨는 아들에게서 짧고도 모호한 타자 메모만을 받아왔을 뿐이며, 애틀랜틱 시티에서 은퇴 생활을 보내는 워드 부인 역시 별다른 소식이 없다고 전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박사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조지프 커웁에 관한 오래된 전설이 불러일으키는 기묘한 불안감과, 최근 찰스 워드가 전해 온 폭로와 경고들이 그를 짓눌렀지만, 그는 강을 내려다보는 절벽 위 방갈로를 향해 대담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윌렛은 순수한 호기심 때문에 전에도 그곳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물론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자신의 방문을 알린 적은 없었기에, 그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2월 말의 어느 이른 오후, 그는 자신의 작은 자동차를 몰고 브로드 스트리트를 따라 나섰다. 그러다 문득 기묘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157년 전, 그와 똑같은 길을 따라갔던 그 음산한 무리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누구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임무를 수행하러 가던 중이었다.

도시의 쇠락한 변두리를 지나는 여정은 짧았다. 곧 깔끔하게 정돈된 에지우드와 평온한 포터킷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윌렛은 록우드가로 방향을 틀어 우측으로 향했다. 그는 그 한적한 도로를 따라 최대한 멀리 차를 몰았다. 그리고는 차에서 내려 북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강줄기가 아름답게 굽이치는 곳 위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솟아 있었고, 그 너머로는 안개 자욱한 구릉지가 완만하게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여전히 집들이 드문드문 있었는데, 왼쪽 높은 지대에 콘크리트 차고를 갖춘 외딴 단층집 한 채가 눈에 띄었다. 월렛은 관리가 안 된 자갈길을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 문을 단호하게 두드렸다. 문을 아주 살짝 열고 나타난 사악한 포르투갈계 혼혈인에게, 그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그는 반드시 찰스 워드를 즉시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매우 중대한 용건이 있다고 덧붙였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거절당한다면 이 모든 사실을 워드의 부친에게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혼혈인은 여전히 망설이며 월렛이 문을 열려 하자 문을 밀어 막았다. 하지만 의사는 그저 목소리를 높여 요구를 거듭할 뿐이었다.

그때 어두운 방 안쪽에서 허스키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듣는 이의 뺨속까지 서늘하게 만들었다. 왜 그런 공포를 느끼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토니, 들여보내 줘. 어차피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낫겠어."

속삭임 자체도 불길했지만, 진짜 공포는 곧이어 찾아왔다.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말한 이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 기묘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찰스 텍스터 워드였다.

월렛 박사가 그날 오후의 대화를 이토록 세세하게 기억하고 기록한 이유는, 그가 이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박사는 마침내 찰스 텍스터 워드의 정신 상태에 결정적인 변화가 생겼음을 인정한다. 그는 이제 청년 워드가 내뱉는 말들이, 지난 26년 동안 자신이 지켜봐 온 그 아이의 뇌와는 도저히 같을 수 없는, 완전히 이질적인 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라이먼 박사와의 논쟁 때문에 월렛 박사는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었으며, 찰스 워드가 미치기 시작한 시점을 타자기로 친 메모들이 부모에게 전달되기 시작한 때로 명확히 규정했다.

그 메모들은 워드 특유의 평소 문체와는 달랐다. 월렛에게 보낸 마지막 광기 어린 편지조차도 이 메모들과는 결이 달랐다. 메모들은 기이하고 고풍스러웠다. 마치 글쓴이의 정신이 무너지면서, 어린 시절 골동품 연구에 몰두하며 무의식중에 쌓아온 성향과 인상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만 같았다. 현대적인 문체를 쓰려고 애쓴 흔적은 분명히 보였으나, 그 속에 담긴 정신과 때때로 사용되는 어휘들은 과거의 것이었다.

* * * * *

그 어둡한 방갈로에서 의사를 맞이하는 워드의 말투와 몸짓 하나하나에는 과거의 흔적이 역력히 배어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월렛에게 자리를 권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말을 시작했는데, 그는 처음부터 자신이 왜 이런 기묘한 속삭임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려 애썼다.

“이 저주받은 강가의 공기 때문에 폐병이 도진 모양입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말투가 매끄럽지 못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마 저희 아버님께서 제 상태를 살피라고 사람을 보내신 모양인데, 부디 아버님을 놀라게 할 만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윌렛은 굶어내는 듯한 그 목소리를 극도로 주의 깊게 살피는 한편, 말하는 이의 얼굴을 더욱 면밀히 관찰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그날 밤 요크셔 출신 집사가 느꼈다던 공포에 대해 가족들이 해준 이야기를 떠올렸다. 주변이 좀 더 밝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창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워드에게 물었다. 불과 일주일 전의 그 광기 어린 쪽지와 왜 이토록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것이냐고.

“그 이야기는 저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아시다시피 제 신경이 지금 몹시 날카로운 상태라, 저 자신도 설명하기 힘든 기괴한 행동이나 말을 내뱉곤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거대한 진실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 진실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정신이 아득해질 때가 있지요. 제가 발견한 것들을 마주한다면 누구라도 겁에 질리겠지만, 저는 오래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동안 경계하며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건 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니까요. 사사건건 참견하는 이웃들은 저를 좋지 않게 보곤 합니다. 어쩌면 저도 그들의 말에 휘둘려, 스스로를 그런 사람이라 믿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올바른 방식이기만 하다면,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섯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 그러면 당신의 인내심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제가 책보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옛일을 알아내는 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는 편이 좋겠군요. 제가 열 수 있는 문들을 통해 역사와 철학, 그리고 예술에 얼마나 중요한 사실들을 전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의 조상 또한 그 어리석은 관음증 환자들이 들이닥쳐 그를 살해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다시 손에 넣었거나, 혹은 아주 불완전하게나마 그 일부를 얻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아무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저 자신의 어리석은 두려움 때문에 일을 그르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선생님, 부디 제가 쓴 글은 모두 잊어 주십시오. 이곳이나 이곳에 있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앨런 박사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입니다. 그에 대해 제가 했던 좋지 못한 말들에 대해서는 그에게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그를 배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좋았겠지만, 그가 다른 곳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 관한 열정만큼은 저에게 뒤지지 않는 분입니다. 제가 이 작업에 두려움을 느꼈을 때, 저를 가장 크게 도와줄 조력자인 그마저도 두려워했던 모양입니다."

워드가 말을 멈추자, 의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편지의 내용을 이토록 차분하게 부정하는 모습 앞에서 그는 자신이 바보가 된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지금 나누는 대화가 기이하고 이질적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광기 어린 내용일지라도, 편지 그 자체는 지극히 자연스러웠으며 의사가 알던 찰스 워드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비극적이었다.

윌렛은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 노력했다. 청년에게 과거의 일들을 상기시켜 익숙한 기분을 되찾아주려 했으나, 그 시도는 오히려 기괴한 결과만을 초래했다. 이후에 만난 정신과 의사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찰스 워드의 정신적 이미지 중 현대의 일이나 개인적인 삶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통째로 삭제되어 있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청년 시절의 방대한 고증 지식들이었다. 그 고대의 지식들이 무의식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와, 현재의 삶과 개인의 자아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청년이 알고 있는 고대의 존재들에 관한 지식은 비정상적이고 불경했다. 그는 이를 숨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 윌렛이 그가 어린 시절 탐닉했던 고전적 연구 주제를 언급할 때면, 워드는 종종 순전히 우연으로 자기도 모르게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지식을 흘리곤 했다. 의사는 그 매끄러운 암시가 스쳐 지나갈 때마다 몸서리쳤다.

1762년 2월 11일 목요일, 킹 스트리트에 있는 더글러스 연극 학교에서 열린 공연을 떠올려 보자. 그날, 몸집이 비대한 보안관이 몸을 숙일 때마다 가발이 어떻게 흘러내렸는지까지 아는 것은 결코 유익한 일이 아니다. 또한 배우들이 스틸의 희곡 『의식 있는 연인』을 얼마나 형편없이 난도질했는지, 그래서 침례교도들에게 휘둘리는 입법부가 보

름 뒤에 극장을 폐쇄했을 때 왜 차라리 잘되었다는 생각까지 들었는지까지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토머스 세이빈의 보스턴 마차가 "빌 어먹게나 불편했다"는 사실 정도는 오래된 편지들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건전한 고고학자가 이런 것까지 기억할 수 있겠는가? 에페네투스 올니가 자신의 여관을 '크라운 커피하우스'라 부르기 시작하며 내걸었던 화려한 왕관 모양의 새 간판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당시 포터킷의 모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새로운 재즈 곡의 도입부와 정확히 일치했다는 사실 같은 것을 말이다.

하지만 워드는 이런 식의 질문을 오래 받아줄 생각이 없었다. 현대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화제가 나오면 그는 단호하게 말을 잘라버렸고, 고풍스러운 옛이야기가 나오면 금세 노골적인 지루함을 드러냈다. 워드가 원하는 것은 명확했다. 그저 방문객을 적당히 응대하여,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게끔 빨리 돌려보내는 것뿐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월렛에게 집 안 전체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제안하더니, 곧장 지하실부터 다락방까지 모든 방을 의사에게 안내하기 시작했다. 월렛은 예리한 눈 초리로 집 안을 살폈으나, 눈에 보이는 책들은 워드의 집 서재에 뚫린 넓은 빈틈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사소한 것들뿐이었다. 또한 소위 '실험실'이라 불리는 공간은 눈속임을 위한 아주 조잡한 장치에 불과했다. 분명 어딘가에 진짜 도서관과 실험실이 따로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길이 없었다.

무엇인지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아내려던 시도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자, 월렛은 저녁이 되기 전 마을로 돌아와 워드의 부친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청년이 분명 정

신이 나간 상태라는 데 동의했지만, 당장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들이 남긴 기괴한 타자 기록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워드의 어머니를 철저히 무지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 * * * *

워드 씨는 아들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예고 없이 찾아가는 깜짝 방문이었다. 어느 저녁, 월렛 박사가 차로 그를 태워 방갈로가 보이는 곳까지 데려다주었다. 박사는 그가 돌아오기만을 차 안에서 묵묵히 기다렸다. 면담은 길게 이어졌고, 아버지는 매우 침울하고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밖을 나왔다.

아들이 그를 맞이한 방식은 월렛 박사가 겪었던 것과 비슷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워드 씨가 현관으로 밀고 들어가 포르투갈인 하인을 단호한 명령으로 돌려보낸 뒤에도 찰스가 나타나기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었다. 또한 변해버린 아들의 태도에서는 자식으로서의 애정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방 안의 조명은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빛이 너무 눈부서 견딜 수 없다고 불평했다. 그는 목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 말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이는 그 음성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불길함이 서려 있었다. 워드 씨는 그 기분 나쁜 느낌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었다.

워드의 정신을 구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결심한 워드 씨와 월렛 박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조사한 것은 포터킷 지역의 소문이었다. 두 사람 모두 그 지역에 지인이 있었기에 소문을 모으는 일은 비교적 수월했다. 특히 월렛 박사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사람들은 사건의 당사자인 워드의 부모보다 그에게 훨씬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박사가 들은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젊은 워드의 삶은 실로 기이하게 변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워드의 집안과 지난여름에 있었던 흡혈귀 사건을 연관 지어 떠올렸고, 밤마다 오가는 트럭의 움직임 또한 불길한 추측에 불을 지폈다. 지역 상인들은 그 험악하게 생긴 혼혈인이 주문하는 물건들이 무척 기묘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근 정육점 두 곳에서 엄청난 양의 고기와 신선한 피를 구매 간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고작 세 식구가 사는 집이라기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양이었다.

땅 밑에서 들려오는 소음 문제도 있었다. 이 소리에 관한 보고는 확실히 규명하기가 더 어려웠으나, 모호한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몇 가지 핵심적인 사실로 귀결되었다. 의식을 치르는 듯한 소음이 분명히 존재했으며, 그 소리는 종종 불이 꺼진 밤의 방갈로 안에서 들려왔다. 물론 그 소리가 이미 알려진 지하실에서 흘러나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소문에 따르면 그보다 더 깊고 넓게 뻗어 있는 지하 묘실이 따로 있다고 했다.

윌렛과 워드 씨는 조지프 커웁의 지하 묘실에 관한 옛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리고 발견된 문서들에 따르면, 지금의 방갈로가 과거 커웁의 부지 위에 세워졌기에 이곳이 선택된 것이 분명하다고 가정했다. 두 사람은 이 괴소문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오래된 원고에 언급된 강둑의 문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수색을 시도했으나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방갈로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대한 세간의 평판도 곧 분명해졌다. 브라바 출신의 포르투갈인은 혐오의 대상이었고,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쓴 앨런 박사는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창백한 젊은 학자 워드는 깊은 혐오를 샀다. 최근 일주일 혹은 이주일 사이 워드는 눈에 띄게 변해 있었다. 그는 상냥하게 대하려던 시도를 모두 그만두었다. 가끔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조차, 그는 그저 쉼 목소리로 기분 나쁜 속삭임을 내뱉을 뿐이었다.

여기저기서 수집한 정보는 이처럼 파편적이고 불완전했다. 워드 씨와 윌렛 박사는 이 단편들을 두고 오랫동안 진지한 회의를 거듭했다. 그들은 연역과 귀납, 그리고 건설적인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다. 박사가 워드의 아버지에게 보여준 그 광기 어린 편지를 포함하여, 찰스의 생애 후반에 드러난 모든 사실을 조지프 커웁에 관한 빈약한 기록들과 하나하나 대조해 나갔다. 그들은 찰스가 찾아냈던 서류들을 단 한 번이라도 엿볼 수 있다면 무엇이든 내놓을 기세였다. 그 청년이 미쳐버린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그 고대의 마법사와 그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 알아낸 내용 속에 분명히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이 기이한 사건의 다음 국면을 연 것은 워드 씨나 월렛 박사의 행보가 아니었다. 형체도 없고 실체도 없는 그림자에 가로막혀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아버지와 의사는 혼란과 거부감 속에서 불안하게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사이 부모에게 보내던 젊은 워드의 타자 편지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던 중 매달 돌아오는 정기 결제일이 찾아왔다. 은행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찰스 워드를 얼굴로 알아보는 은행 관계자들이 직접 방갈로를 찾아가, 왜 이 시점에 발행되는 그의 수표들이 죄다 조잡한 위조 수표냐고 물었다. 청년은 목이 쉰 목소리로, 최근 극심한 신경 충격을 받은 탓에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정상적인 글씨를 쓸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그 설명에 마땅히 안심했어야 할 만큼은 안심하지 못했다. 워드는 글자를 쓰는 것 자체가 무척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근에 보낸 모든 편지를, 심지어 부모님께 보낸 편지조차 어쩔 수 없이 타자로 쳐서 보냈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며, 부모 또한 이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관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비단 이 상황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런 일은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근본적으로 수상쩍은 일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포터킷에 떠도는 소문 또한 마찬가지였다. 조사관 중 한두 명은 그 소문의 파편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청년의 뒤섞인 말투였다. 그는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손바닥 보듯 흰히 껴고 있던 중요한 금전적 문제들을 마치 기억이 통째로 사라진 것처럼 횡설수설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다. 그의 말투는 겉보기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듯했으나, 핵심적인 대목에서 이토록 노골적인 공백을 보이는 것을 정상적인 이유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었다.

게다가 조사관들 중 누구도 워드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언어와 태도가 변했다는 사실만큼은 눈치챌 수밖에 없었다. 그가 골동품 수집가라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아무리 지독한 골동품 애호가라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사멸한 고어와 몸짓을 매일같이 사용하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신 목소리와 떨리는 손, 기억력 감퇴, 그리고 변해버린 말투와 태도. 이 모든 증상이 결합된 것을 보아, 이는 분명 심각한 질환이나 정신적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아마도 마을에 떠도는 괴기한 소문들도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조사를 마친 관리들은 워드의 부친과 반드시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고 결론지었다.

* * * * *

1928년 3월 6일, 워드 씨의 사무실에서 길고 진지한 회의가 열렸다. 회의가 끝난 뒤, 완전히 망연자실해진 아버지는 체념 섞인 무력함 속에서 월렛 박사를 불러들였다. 월렛은 수표에 적힌 긴장되고 어색한 서명들을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머릿속으로 그 필체를 마지막에 남겨진 광기 어린 쪽지와 대조해 보았다. 변화는 분명 근본적이고도 심각했다.

하지만 그 새로운 글씨체에는 지독할 정도로 익숙한 무언가가 있었다. 글씨는 기묘할 정도로 휘갈겨 쓰여 고풍스러운 경향을 띠었는데, 이는 청년이 평소에 쓰던 필체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획에서 비롯된 듯 보였다. 기이한 일이었다. 대체 어디서 본 적이 있는 필체란 말인가?

전반적으로 찰스가 미쳤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그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외부 세계와 교류를 이어가기는 어려워 보였으므로, 그를 감시하고 치료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만 했다. 이에 정신과 의사들이 소집되었다. 프로비던스의 펙 박사와 웨이트 박사, 그리고 보스턴의 라이먼 박사가 불러 왔다. 워드 씨와 월렛 박사는 이들에게 사건의 경위를 가능한 한 상세히 설명했다. 의사들은 이제는 비어 있는 젊은 환자의 서재에 모여 긴 논의를 나누었다. 그들은 찰스의 평소 정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남겨진 책과 서류들을 조사했다.

자료를 훑어보고 월렛에게 남긴 의미 없는 쪽지까지 검토한 뒤, 의사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동의했다. 찰스 워드가 탐구해 온 학문적 내용이 평범한 지성을 무너뜨리거나, 적어도 뒤틀어 놓기에 충분했다는 사실 말이다. 의사들은 찰스의 더 은밀한 서적과 문서들을 직접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러한 조사는 방갈로 현장에서 소동이 벌어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

월렛은 이제 열띤 에너지로 사건 전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는 찰스가 커웁의 문서를 찾아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인부

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그는 《저널》 편집국을 찾아가 파기되었던 신문 기사들을 대조하며 사건의 정황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나갔다.

3월 8일 목요일, 윌렛, 펙, 라이먼, 웨이트 박사들은 워드 씨와 동행하여 청년에게 중대한 방문을 했다. 그들은 목적을 숨기지 않았으며, 이제는 환자로 인정된 그를 매우 세밀하게 심문했다. 찰스는 부름에 응하기까지 평소보다 한참을 지체했고, 마침내 초조한 기색으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여전히 기묘하고 해로운 실험실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비협조적인 대상은 아니었다. 오히려 난해한 학문에 몰두하느라 기억력과 평형감각이 다소 나빠졌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라는 요구에도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단순한 암기력을 넘어서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듯했다. 만약 그의 말투가 끊임없이 고풍스러운 경향을 띠고, 의식 속에서 현대적인 사고가 명백히 고대의 관념으로 대체된 모습이 그를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낙인찍지 않았더라면, 그의 태도는 면담자들을 당혹감 속에 돌려보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연구에 대해 의사들에게 말해주기를 꺼렸는데, 이는 이전에 가족이나 윌렛 박사에게 보여주었던 태도와 다를 바 없었다. 지난 달에 썼던 광기 어린 쪽지에 대해서도 그저 신경쇠약과 히스테리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그 음산한 방갈로에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서재나 실험실이 더 있는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그의 옷가지마다 배어 있는 그 냄새들이 왜 집 안에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난해한 설명만을 늘어놓았다. 이웃들의 소문 역시 좌절된 호기심이 만들어낸 저급한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치부했다. 앨런 박사의 행방에 대해서는 확답을

줄 처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쓴 그 남자가 필요할 때 돌아올 것이라고 심문자들을 안심시켰다. 방문객들의 모든 질문을 거부하며 완강히 버티던 둔직한 브라운을 달래고, 여전히 밤의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방갈로를 폐쇄하면서도, 워드는 긴장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주 미세한 소리라도 듣고 있는 듯 잠시 멈칫하는 모습 외에는 말이다. 그는 마치 자신의 이주가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일에 불과하다는 듯, 차분하고 철학적인 체념을 보였다. 마치 이 일을 한 번에 깔끔하게 처리하고 떠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태도였다. 그는 뒤튼린 기억과 잃어버린 목소리 및 필체, 그리고 비밀스럽고 별난 행동들로 인해 초래된 모든 곤경을, 자신의 명백히 건재한 정신적 예리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그의 어머니에게는 변화를 알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아버지가 그의 이름으로 타자 친 쪽지를 대신 전달하기로 했다. 워드는 만(灣)안의 코나니켓 섬에 위치한, 웨이트 박사가 운영하는 평화롭고 그림 같은 개인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그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의사로부터 가장 정밀한 검사와 심문을 받았다. 그때 비로소 신체적인 이상 징후들이 발견되었다. 저하된 신진대사, 변해버린 피부, 그리고 불균형한 신경 반응이 그것이었다. 여러 검사관 중 월렛 박사가 가장 당혹스러워했다. 그는 워드의 평생을 지켜봐 왔기에, 청년의 신체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끔찍할 정도로 예리하게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엉덩이에 있던 익숙한 올리브색 반점조차 사라져 있었고, 가슴에는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커다란 검은 점 혹은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월렛은 이 청년이 흑시라도 외지고 쓸쓸한 곳에서

열리는 불길한 야간 모임에서 행해진다는 '마녀의 표식'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의사는 찰스가 예전의 평범했던 시절에 보여주었던, 세일럼의 어느 마녀 재판 기록 사본에서 눈을 땔 수 없었다. 그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밤에 G. B. 씨가 브리짓 S., 조나단 A., 사이먼 O., 딜리버 런스 W., 조지프 C., 수잔 P., 메히터블 C., 그리고 데보라 B.에게 악마의 표식을 새겼도다." 위드의 얼굴 또한 그를 지독하게 괴롭혔다. 그러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왜 그토록 공포에 질렸는지 깨달았다. 청년의 오른쪽 눈 위에는 이전에는 결코 눈치채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조지프 커웁의 훼손된 초상화에 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작은 흉터 혹은 파인 자국이었다. 어쩌면 그것은 두 사람이 각자의 오컬트 경력의 어느 단계에서 함께 겪었을, 끔찍한 의식적 접종의 증거일지도 몰랐다.

위드가 병원에서 의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동안, 위드의 본가로 배달되도록 설정된 위드 자신과 앨런 박사 앞으로의 모든 우편물은 엄격한 감시하에 놓였다. 월렛은 별다른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요한 통신이라면 아마도 전령을 통해 직접 주고받았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3월 하순, 앨런 박사에게 프라하에서 온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그 편지는 박사와 위드의 부친 모두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다. 편지는 매우 빠들빠들하고 고풍스러운 필체로 쓰여 있었다. 외국인이 쓴 글은 아니었으나, 그 문체는 젊은 위드의 말투만큼이나 현대 영어와는 확연히 동떨어진 기이한 것이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프라하 구시가지 클라이너슈트라세 11번지, 1928년 2월 11일.

알무신-메트라톤의 형제여!—

오늘 당신이 보낸 편지를 통해, 내가 보냈던 소금 더미에서 무엇이 올라왔는지에 관한 소식을 들었네.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바나바스가 내게 표본을 가져다주었을 때 이미 묘비들이 바뀌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네. 1769년 킹 채플 묘지에서 당신이 얻은 물건이나, 1690년 올드 베리잉 포인트에서 H.가 얻어 그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물건을 생각하면 자네도 짐작하겠지만,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난다네. 나 또한 75년 전 이집트에서 그런 물건을 얻은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1924년 그 소년이 내 몸에서 본 흉터가 생긴 것이라네. 오래전에도 말했듯이, 스스로 잠재울 수 없는 존재는 결코 불러내지 말게나. 죽은 소금 더미에서든, 저 너머의 구체(Spheres)에서든 말일세. 언제든 잠재울 수 있는 주문을 미리 준비해 두게. 그리고 자네가 불러낸 것이 '누구'인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게. 지금은 열 곳 중 아홉 곳의 묘지에서 비석이 모두 바뀌어 있다네.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확신하지 말게.

오늘 H.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그는 군인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더군. 트란실바니아의 영토가 헝가리에서 루마니아로 넘어간 것을 그는 무척 아쉬워할 듯하네. 만약 그 성에 우리가 아는 '그것들'이 가득 차 있지 않았다면, 그는 기꺼이 거처를 옮겼을 테니까 말이야. 물론 이 일에 대해서는 그가 이미 자네에게 써 보냈겠지. 다음번 편지에는 동양의 언덕 무덤에서 가져온 무언가를 보낼 테니 아주 즐거워할 걸

세. 그동안 내가 부탁한 B. F.를 어떻게든 구할 수 있다면 꼭 좀 부탁하네. 자네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G.를 나보다 더 잘 알지 않는가. 원한다면 그를 먼저 불러들여도 좋네만, 그가 다루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너무 험하게 몰아붙이지는 말게. 마지막에는 내가 직접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니까 말이야.

요그 소토스 네블로드 진 사이먼 오.

프로비던스의 J. C. 씨에게.

워드 씨와 윌렛 박사는 눈앞에 펼쳐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기 어린 광경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멈춰 섰다.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다. 부재중인 앨런 박사가 찰스 워드가 아니라, 포터킷의 실질적인 주도자가 되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청년이 마지막 광란의 편지에서 왜 그토록 격렬하게 누군가를 언급하며 비난했는지 설명이 된다. 게다가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쓴 이 낯선 이를 "J. C. 씨"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이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을 피할 길은 없었으나,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괴기함에도 한계라는 것이 있었다.

그렇다면 4년 전 워드가 프라하에서 만났다는 노인 "사이먼 O."는 누구인가?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 세기 전에는 또 다른 사이먼 O.가 있었다. 1771년에 자취를 감춘, 세일럼 출신의 제더다이야라는 가명을 쓰는 사이먼 오른이 바로 그였다. 윌렛 박사는 찰스가 예전에 보여주었던 오른의 공식 사진 복사본들을 통해, 그 특유의 필체를 이제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뽀족한 침탑과 돛들이 뻗뻗하게 들어선 노령의 프로비던스를 괴롭히기 위해, 대체 어떤 공포와 신비가, 어떤 모순과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들이 150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돌아온 것인가?

아버지는 늙은 의사와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가서 찰스 텍스터 워드를 찾아갔다. 그리고 앨런 박사와 프라하 방문, 그리고 세일럼의 사이먼 혹은 제데다이아 오른에 대해 무엇을 알아냈는지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청년은 모든 질문에 대해 정중하면서도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그저 쉰 목소리로 속삭이며, 앨런 박사가 과거의 어떤 영혼들과 놀라운 영적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염 난 그 박사가 프라하에서 연락을 주고받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 역시 비슷한 능력을 갖추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실을 나서며 워드 씨와 윌렛 박사는 자괴감에 빠졌다. 사실상 심문을 당한 쪽은 자신들이었다. 갇혀 있던 청년은 정작 중요한 정보는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서, 프라하에서 온 편지에 담긴 모든 내용을 교묘하게 그들에게서 캐내고 있었다.

펙 박사와 웨이트 박사, 그리고 라이먼 박사는 젊은 워드의 동료가 주고받은 기묘한 서신에 큰 의미를 두려 하지 않았다. 비슷한 부류의 괴짜나 편집증 환자들이 서로 무리 짓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찰스나 앨런이 그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비슷한 부류의 인물을 찾아낸 것이라 여겼다. 아마도 그 인물은 오른의

필체를 보고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인물의 환생인 척하기 위해 그 글씨를 흉내 내는 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앨런 자신도 비슷한 경우일지 몰랐다. 어쩌면 그는 젊은 워드를 설득해, 자신이 오래전에 죽은 커웬의 화신임을 믿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일은 전에도 있었던 일이었다. 의사들은 이런 논리로 월렛이 품은 불안감 또한 일축해 버렸다. 월렛은 여러 가지 속임수를 써서 얻어낸, 의도치 않은 필적 샘플들을 연구하며 찰스 워드의 현재 글씨체에 대해 점점 더 큰 우려를 느끼고 있었다. 월렛은 마침내 그 글씨체의 기묘한 친숙함이 무엇인지 알아냈다고 확신했다. 그것은 어렵פות이 옛 조지프 커웬의 필체와 닮아 있었다. 하지만 동료 의사들은 이를 그저 이런 광기에서 나타날 법한 모방 심리의 일환으로 치부했다. 그들은 그 필체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중요성도 갖지 않는다고 단정 지었다.

동료들의 이런 무미건조한 태도를 알아챈 월렛은 워드 씨에게 조언했다. 4월 2일, 트란실바니아의 라쿠스에서 앨런 박사 앞으로 도착한 편지는 혼자만 간직하라고 말이다. 그 편지는 허친슨 암호와 너무나도 강렬하고 근본적으로 닮아 있어서, 워드의 아버지와 의사 모두 봉인을 뜯기 전 경외감에 사로잡혀 잠시 멈칫할 정도였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페렌치 성, 1928년 3월 7일.

친애하는 C에게--

마을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확인하려 민병대 스무 명을 불러 모았다. 더 깊이 파묻어야 하고, 소문이 덜 나도록 해야 한다. 이 루마니아 놈들은 참으로 지독한 골칫거리다. 술과 음식 좀 대접하면 매수할 수 있는 마자르인과 달리, 사사건건 참견하며 까다롭게 군다. 지난달에는 M.이 석관을 구해다 주었다. 내가 불러낸 그자가 거기 있을 것이라 말한 바로 그 아크로폴리스에서 '다섯 스프링크스'의 석관을 가져온 것이다. 나는 그 안에 매장되어 있던 것과 세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 석관은 곧장 프라하의 S. O.에게로, 그다음에는 당신에게로 갈 것이다. 놈이 고집스럽긴 해도, 당신은 그런 존재를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예전보다 주변에 두는 것을 줄인 것은 현명한 처사다. 경비병들을 제대로 유지하며 먹여 살릴 필요도 없을뿐더러, 당신도 잘 알다시피 그렇게 두었다간 만일의 사태가 닥쳤을 때 발각될 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제는 필요하다면 살생의 번거로움 없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곧 그런 번거로운 수단을 써야 할 상황이 오지는 않기를 바란다. 당신이 '외부의 존재들'과 너무 자주 거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그런 거래에는 언제나 치명적인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자비를 베풀 뜻이 없는 존재에게 보호를 요청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당신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다른 이'가 주문을 성공적으로 외울 수 있도록 공식들을 구해오는 데 있어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지만 보렐루스는 오직 정확한 단어들만 갖춰진다면 그 또한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 소년이 주문을 자주 사용하는가? 그놈이 점점 나약해지는 것이 안타깝다. 내가 그놈을 여기 거의 15개월간 데리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긴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그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알고 있으리라

민는다. 주문만으로는 그놈을 굴복시킬 수 없다. 그 주문은 다른 공식으로 소금 속에서 불려낸 존재들에게만 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여전히 강인한 손과 칼, 그리고 권총이 있다. 무덤을 파는 일은 어렵지 않고, 산(酸)으로 태우는 것도 그리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O.의 말로는 당신이 그에게 B. F.를 주기로 약속했다던데, 그다음에는 내가 그를 차지해야 한다. B.가 곧 당신에게 갈 것이다. 멤피스 지하에 있는 그 어두운 존재로부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무엇을 불려내든 각별히 주의하고, 그 소년을 경계하라. 1년 뒤면 지하에서 군단들을 불러낼 때가 무르익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것에 한계란 없다. 내 말을 믿어도 좋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와 O.는 당신보다 150년이나 더 오래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 왔으니까.

Nephreu--Ka nai Hadoh Edw: H.

프로비던스, 조지프 커웬 씨에게.

월렛과 워드 씨가 이 편지를 정신과 의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삼갔을지 모르나, 편지의 내용대로 행동하는 것까지 삼가지는 않았다. 찰스의 광기 어린 편지에서 괴물 같은 위협으로 묘사된, 기이한 수염과 안경을 쓴 앨런 박사가 불길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그 어떤 현학적인 논리로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워드가 여행 중에 만났던, 스스로를 커웬의 옛 세일럼 동료들이 환생했거나 그 화신이라 주장하는 정체불명의 존재 두 명과 긴밀하고도 불길한 서신을 주고받고 있었다. 게다가 앨런 박사는 스스로를 조지프 커웬의 환생이라 여기고 있었으며, 찰스 워드 외에는 다른 누구라고도 볼 수 없는 한 '소년'을 살해하려는 음모

를 품고 있었다. 적어도 그런 조언을 받고 있었다. 조직적인 공포가 꿈틀대고 있었다.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든, 행방이 묘연해진 앨런 박사는 이미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찰스가 이제 병원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에 하늘에 감사하며, 워드 씨는 지체 없이 탐정들을 고용했다. 그는 탐정들에게 수염 난 정체불명의 박사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포터킷 사람들이 그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야 했다. 워드 씨는 찰스가 넘겨준 방 열쇠 중 하나를 탐정들에게 건네며, 환자의 유품을 정리할 때 확인했던 앨런의 빈 방을 살살이 뒤져보라고 당부했다. 그가 남겼을지도 모를 물건들에서 단서를 찾아내라는 것이었다.

워드 씨는 아들의 옛 서재에서 탐정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탐정들은 서재를 나설 때 뚜렷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곳에는 모호하고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마도 한때 벽난로 위 패널에 걸려 있던 악명 높은 옛 마법사의 초상화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 때문일지도 몰랐고, 혹은 전혀 다른 무관한 무언가 때문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그들은 모두 그곳에서 형체 없는 독기를 느꼈다. 그 독기는 오래된 저택의 흔적인 조각된 벽난로를 중심으로 맴돌며, 때로는 마치 실재하는 물질처럼 강렬하게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5. 악몽과 대재앙

마리누스 비크넬 월렛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공포의 낙인을 남긴 끔찍한 경험이 뒤따랐다. 그 사건은 이미 청춘을 지나고 있던 한 남자

의 겉모습을 순식간에 열 살이나 늙게 만들었다. 윌렛 박사는 워드 씨와 긴 대화를 나누었고, 정신과 의사들이 들으면 비웃을 법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 두 사람 모두 세상 속에 무시무시한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것은 세일럼의 마녀사냥보다도 훨씬 오래된 강령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했다. 또한 살아있는 두 남자—그리고 감히 떠올리기조차 두려운 또 다른 한 명—가 1690년 혹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정신이나 인격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알려진 모든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서도 거의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

이 끔찍한 괴물들, 그리고 찰스 텍스터 워드 역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하려 하는지는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와 이 사건에 스며든 구식 및 신식의 모든 단서들을 통해 꽤 명확히 드러났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현명하고 위대한 인물들의 무덤을 포함하여, 모든 시대의 무덤을 약탈하고 있었다. 한때 그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지혜를 채워주었던 의식의 흔적과 지식을, 지나간 시대의 재 속에서 되살려내려는 희망을 품은 채 말이다.

이 악몽 같은 구울들 사이에서는 끔찍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학생들이 책을 맞바꾸듯, 아주 침착하고 계산적인 태도로 고귀한 유골들을 주고받았다. 이 수백 년 된 먼지 속에서 무엇을 뜯어낼 수 있을지,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 한 인간이나 집단에 응축된 힘과 지혜 중, 우주가 지금까지 목격한 그 어떤 것보다도 거대한 힘을 말이다. 그들은 같은 몸 혹은 서로 다른 몸을 빌려 정신을 살아있게 유지

하는 불경한 방법을 찾아냈다. 또한 그들이 모아들인 죽은 자들의 의식을 끌어내는 법도 분명히 터득한 듯 보였다.

아주 오래전, 기괴한 망상가로 불리던 보렐루스가 남긴 기록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었던 모양이다. 그는 가장 오래된 유해에서조차 특정한 '에센셜 살테스(Essential Saltes)'를 추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오래전에 죽은 생명체의 그림자를 불러올 수 있다고 썼다. 그런 그림자를 불러내는 주문이 있었고, 다시 가두는 주문도 따로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은 성공적으로 전수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다듬어진 상태였다. 다만 소환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오래된 무덤의 표식들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월렛과 워드 씨는 결론에 결론을 거듭하며 몸서리쳤다. 무덤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심연으로부터도 무언가—어떠한 존재나 목소리—를 불러낼 수 있었고, 그 과정 또한 매우 조심스러워야만 했다. 조지프 커웁이 금기된 존재들을 수없이 불러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면 찰스는 어떻게 했는가? 조지프 커웁의 시대로부터 어떤 '구체의 바깥'에 있는 힘이 그에게 닿아, 그의 정신을 잊힌 것들로 돌려놓았던 말인가? 그는 특정한 길을 찾아냈고, 그 길을 따라갔다. 그는 프라하에서 공포스러운 존재와 대화를 나누었으며, 트란실바니아의 산맥에서 그 괴물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조지프 커웁의 무덤을 찾아냈음이 분명했다. 신문 기사에 실린 내용과 그의 어머니가 밤중에 들었던 소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의미심장했다. 그 후 그는 무언가를 소환했고, 그것은 반드시 응답하여 나타났을 것이다. 성금요일에 하늘 높이 울려 퍼지던 그 거대한 목소리, 그리고 잠긴 다락방 실험

실에서 들려오던 그 '이질적인' 음조들. 그 깊고 공허한 소리들은 대체 무엇이였을까? 유령처럼 낮은 저음을 내뿜던 그 두려운 이방인, 앨런 박사의 모습이 이곳에서 불길하게 예견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다, 워드 씨가 전화기 너머로—그것이 인간이라면 말이다—그 존재와 단 한 번 대화를 나누었을 때 느꼈던 막연한 공포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 잠긴 문 너머에서, 찰스 텍스터 워드가 행한 비밀스러운 의식에 응답한 것은 대체 어떤 지옥 같은 의식이나 목소리였을까? 병적인 그림자였을까, 아니면 어떤 존재였을까? 말다툼 중에 들려왔다는 그 목소리들, "석 달 동안 붉은색이어야만 해"라고 하던 그 말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세상에, 그건 흡혈 현상이 터지기 직전의 일 아니었나! 에즈라 워든의 오래된 무덤을 파헤친 일과 이후 포터킷에서 들려온 비명 소리들까지. 대체 누구의 머릿속에서 그런 복수를 계획하고, 금기시된 고대의 신성모독이 깃든 근거지를 다시 찾아낸 것일까? 뒤이어 나타난 방갈로와 수염을 기른 낯선 이, 떠도는 소문과 공포가 이어졌다.

찰스가 보여준 마지막 광기는 그의 아버지도, 의사도 차마 설명해낼 수 없었다. 다만 그들은 조지프 커웁의 정신이 다시 이 땅에 내려와, 과거의 병적인 습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확신만큼은 들었다. 악령에 쓰인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이었을까? 앨런 역시 이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였으므로, 형사들은 젊은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존재에 대해 더 조사해야만 했다. 한편, 방갈로 아래에 거대한 지하 묘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거의 부정할 수 없는 듯 보였기에, 그곳을 찾아내려는 시도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다. 월렛과 워드 씨는 정신과 의사들의 회의적인 태도를 의식하여, 마지막 회의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 비밀스러운 합동 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 날 아침, 건축 구조 조사와 지하 탐사에 적합한 도구와 부속품들을 챙겨 방갈로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4월 6일 아침은 맑게 밝아왔다. 두 탐사가는 오전 10시쯤 방갈로에 도착했다. 워드 씨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에, 안으로 들어가 대략적인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앨런 박사의 방이 어지럽게 흐트러진 상태인 것을 보니, 형사들이 이미 이곳을 다녀갔음이 분명했다. 뒤이어 도착한 조사단은 형사들이 가치 있는 단서라도 찾아두었기를 바랐다.

물론 핵심적인 조사는 지하실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그들은 지체 없이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미친 젊은 주인이 곁에 있던 시절 각자 헛되이 훑었던 경로를 다시 한번 더듬어 나갔다. 한동안은 모든 것이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흙바닥과 돌벽은 구석구석 너무나 견고하고 평범해 보여서, 그 아래에 입을 벌린 틈새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였다.

윌렛은 생각에 잠겼다. 원래의 지하실은 지하 카타콤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파헤쳐진 곳이었다. 따라서 통로가 시작되는 지점은, 워드와 그의 동료들이 최근에 파놓은 구멍일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결코 건전한 방식으로 알 수 없었을 고대의 지하 묘지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곳을 찾아내려 땅을 파헤쳤던 것이다.

의사는 찰스 텍스터 워드의 처지가 되어, 탐구자가 어떤 식으로 일을 시작했는지 가늠해 보려 애썼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별다른 영감을 얻지 못했다. 결국 그는 하나씩 지워나가는 방식을 택했다. 지하 공간의 수직과 수평 면을 살살이 훑으며, 단 한 치의 공간도 빠짐없이 조사했다. 조사를 거듭할수록 조사 범위는 눈에 띄게 좁아졌고, 마침내 이전에 헛수고를 했던 세탁통 앞의 작은 플랫폼만이 남았다.

이번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두 배의 힘을 쏟으며 실험한 끝에, 마침내 그 상판이 모서리 축을 중심으로 수평으로 회전하며 미끄러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상판 아래에는 철제 맨홀이 설치된 깔끔한 콘크리트 바닥이 드러났다. 워드 씨는 흥분과 열의에 휩싸여 곧장 그곳으로 달려갔다. 덮개는 들어 올리기가 어렵지 않았다. 워드 씨가 덮개를 완전히 치워버렸을 때, 월렛은 그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어지러운 듯 몸을 비틀며 고개를 꾸벅거리고 있었다. 곧이어 검은 구덩이 아래에서 불쾌한 악취를 머금은 바람이 치솟아 올랐고, 의사는 그 이유를 곧 명확히 깨달았다.

월렛 박사는 곧 정신을 잃은 동행인을 위층으로 옮겨 찬물을 끼얹으며 의식을 되찾게 했다. 워드 씨는 힘겹게 반응했으나, 지하 묘지에서 뿔어져 나온 그 불길하고 악취 나는 기운이 그를 심각하게 병들게 했다는 사실은 명백해 보였다. 월렛은 혹시 모를 위험을 피하고자 서둘러 브로드 스트리트로 나가 택시를 불렀다. 그리고 환자의 힘없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를 서둘러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 후 월렛은 손전등을 꺼내 들고 멸균 거즈로 코를 가린 채, 새로 발견한 그 심연을 들여다보려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

악취 섞인 공기는 이제 조금 가라앉아 있었다. 덕분에 월렛은 스틱스 강처럼 어둡고 깊은 구멍 아래로 빛줄기를 쏘아 보낼 수 있었다. 약 10피트 정도는 콘크리트 벽과 철제 사다리가 달린 매끄러운 원통형 수직 통로였다. 그 아래로는 오래된 돌계단이 나타났다. 이 계단은 원래 지금의 건물보다 다소 남쪽 지점에서 지상으로 이어져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 * * * *

월렛은 솔직히 인정했다. 그 악취 나는 구렁 속으로 홀로 내려가려던 찰나, 오래된 커웬 전설의 기억이 잠시 그의 발길을 붙잡았다고 말이다. 그는 루크 페너가 그 마지막 괴기스러운 밤에 보고했던 내용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곧 의무감이 그를 일깨웠고, 그는 결단을 내렸다. 무엇이든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서류들을 옮기기 위해 커다란 여행 가방을 챙겨 들고 몸을 던졌다.

그는 나이에 걸맞게 조심스럽게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아래쪽의 미끈거리는 계단에 발을 디뎠다. 햇불이 비추는 벽면을 보니 고대의 석조 구조물이었다. 뚝뚝 물이 떨어지는 벽에는 수 세기 동안 자라난 불결한 이끼들이 뒤덮여 있었다. 계단은 나선형이 아니라 세 번의 급격한 꺾임이 있는 형태로 아래로, 아주 깊은 곳까지 이어졌다. 계단 폭은 성인 남성 두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았다. 계단을 서른 개쯤 내려갔을 때, 아주 희미한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들은 후, 그는 더 이상 계단을 셀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것은 신조차 외면한 듯한 소리였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낮게 깔리면서도 은밀하게 파고드는 불길한 비명이었다. 단순히 둔탁한 통곡이나 운명에 끌려가는 듯한 신음, 혹은 이성 없는 육신이 겪는 절망적인 울부짖음이라 부른다면, 그 소리가 지닌 본질적인 혐오감과 영혼을 쪼먹는 듯한 불길한 기운을 결코 다 담아낼 수 없을 것이다. 워드가 끌려가던 그날, 그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소리였던 말인가? 월렛이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소리였다.

의사가 계단 끝에 다다라 손전등을 비추자, 소리는 어느 한 지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거대한 석조 아치로 덮인 높은 복도와 수많은 검은 아치형 입구들이 빛에 드러났다. 그가 서 있는 홀은 아치 중앙까지 높이가 약 14피트였고, 폭은 10~12피트 정도였다. 바닥은 커다란 판석을 깎아 깔아 놓았으며, 벽과 천장은 다듬은 석재로 이루어져 있었다. 복도가 어둠 속으로 끝없이 뻗어 있었기에 그 길이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아치형 입구 중 일부에는 식민지 시대 양식의 6분할 목재 문이 달려 있었지만, 어떤 곳은 문도 없이 뚫려 있었다.

냄새와 울부짖는 소리가 불러일으키는 공포를 이겨내며, 월렛은 아치형 통로들을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다. 통로 너머에는 돌로 된 아치형 천장이 있는 방들이 이어졌다. 방들은 모두 중간 크기였으나, 용도는 도무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기이했다. 대부분의 방에는 벽난로가 있었는데, 굴뚝의 윗부분은 공학적으로 꽤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될 법한 구조였다. 1세기 반 동안 쌓인 먼지와 거미줄 사이로, 월렛은 어디를 가나 기묘한 도구들을 마주했다. 그 도구들은 마치 고대의 약탈자들에

게 부서진 듯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것도 많았지만, 그 형태만으로도 이전에 본 적 없는 생경한 물건들이었다. 이 방들 중 상당수는 근래에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은 듯 보였으며, 조지프 커웨이가 실험을 시작했던 가장 초기이자 가장 오래된 단계의 흔적임이 분명했다.

그러다 마침내, 최근까지 누군가 머물렀던 것이 분명한 현대적인 방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석유 난로와 책장, 탁자, 의자, 그리고 찬장들이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주 오래된 서류부터 최근의 것까지 다양한 종이들이 높게 쌓여 있었다. 곳곳에는 촛대와 석유 램프도 놓여 있었다. 월렛은 근처에서 성냥을 찾아내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램프들에 불을 붙였다.

빛이 더 환하게 비치자, 이 방은 찰스 텍스터 워드가 최근까지 사용하던 서재나 도서관임이 분명해 보였다. 의사가 이전에 보았던 책들이 꽤 섞여 있었고, 가구의 상당 부분도 프로스펙트 가에 있는 저택에서 가져온 것이 틀림없었다. 곳곳에 월렛에게 익숙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친숙함이 밀려들자, 계단 아래에서 느꼈던 그 지독한 악취와 울음 소리조차 잠시 잊을 정도였다. 물론 그 불쾌한 감각들은 계단 밑에서보다 이곳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오래전 세워둔 계획대로,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을 찾아 압수하는 것이었다. 특히 찰스가 아주 오래전 올니 코트의 그림 뒤에서 찾아냈던 그 불길한 문서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했다. 수색을 이어가던 그는 이 사건의 실체를 완전히 밝혀내는 일이 얼마나 막대한 작업이 될지 깨달았다. 서류철마다 기묘한 필체와 기괴한 문양이 새

겨진 종이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철저히 해독하고 편집하려면 몇 달, 어쩌면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수색 도중 프라하와 라쿠스의 소인이 찍힌 편지 꾸러미들을 발견하기도 했다. 필체는 분명 오른과 허친슨의 것이었다. 그는 이 편지들을 모두 챙겨 자신의 여행 가방에 담긴 서류 뭉치 속에 함께 넣었다.

마침내 월렛은 한때 워드 가문의 저택을 장식했던 마호가니 서랍장 안에서, 잠긴 채 보관되어 있던 커웬의 옛 서류 뭉치를 찾아냈다. 수년 전 찰스가 마지못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떠올라, 그는 단번에 그것들이 그 서류임을 알아차렸다. 찰스는 서류를 처음 발견했을 때와 거의 같은 상태로 잘 모아두었던 모양이었다. 일꾼들이 언급한 제목들은 오른과 허친슨에게 보낸 서류, 그리고 해독표가 포함된 암호문만을 제외하고 모두 그곳에 있었다. 월렛은 서류 뭉치 전체를 여행 가방에 넣고 서류 조사를 이어갔다.

젊은 워드의 현재 상태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였기에, 그는 가장 최근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면밀히 살폈다. 그런데 방대한 양의 현대 원고들 사이에서 매우 당혹스러운 기이함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찰스의 평소 필체가 아주 적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글씨는 아무리 최근 것이라 해도 두 달 전의 기록이 전부였다. 반면, 기호와 공식, 역사적 기록, 철학적 논평이 적힌 종이들은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 글들은 분명 현대의 것이었으나, 그 필체만큼은 조지프 커웬의 고대 서체와 완전히 일치할 정도로 뒤튼린 악필이었다.

분명 찰스는 최근의 계획 중 하나로 옛 마법사의 글씨체를 정성스럽게 모방해 왔으며, 그 솜씨는 경이로울 정도로 완벽한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앨런의 것일 수도 있는 제삼의 필체는 어디에서도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만약 앨런이 실제로 이 일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면, 그는 분명 젊은 워드에게 자신의 필기 대행인 역할을 강요했을 것이 틀림없다.

이 새로운 자료들 속에서 어떤 신비로운 주문, 아니 정확히는 한 쌍의 주문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월렛은 조사를 절반도 마치기 전에 그 주문을 통째로 외울 정도였다. 주문은 두 개의 평행한 열로 이루어져 있었다. 왼쪽 열의 상단에는 역법에서 승교점을 나타낼 때 쓰는 '용의 머리'라는 고대 기호가 붙어 있었고, 오른쪽 열의 상단에는 그에 대응하는 '용의 꼬리' 혹은 강교점 기호가 붙어 있었다.

전체적인 모양은 대략 이러했다. 의사는 거의 무의식중에 두 번째 열이 첫 번째 열을 거꾸로 적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지막 단음절들과, 이 끔찍한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봐왔던 여러 표기법을 통해 익히 알고 있던 기묘한 이름 '요그 소토스(Yog-Sothoth)'를 제외하면 말이다. 주문은 다음과 같았다. 월렛이 충분히 증언할 수 있듯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이러했다. 그리고 첫 번째 주문을 읽는 순간, 그의 뇌리에는 불쾌하고 막연한 기억의 파편이 스쳤다. 그는 나중에 작년 그 끔찍했던 성금요일의 사건들을 되짚어보며, 그 느낌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삽화:]

이알 아이 '응가, 요그 소토스 흐----르게브 파이 스로독 우아아아!

[삽화:]

오그스로드 아이프 게블----이이흐 요그 소토스 응가응 아이 즈로

그 공식들은 너무나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의사는 그것들을 너무나 자주 마주쳤다. 결국 의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나지막이 그 주문들을 읊조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윽고 그는 현재 소화할 수 있는 서류들을 모두 확보했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회의적인 정신과 의사들을 대거 불러모아, 더 방대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벌일 수 있을 때까지는 더 이상 자료를 살펴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직 숨겨진 실험실을 찾아내지 못한 상태였기에, 그는 여행 가방을 붙이 켜진 방에 그대로 둔 채 다시 밖으로 나섰다. 그가 발을 내디딘 곳은 다시금 검고 악취나는 복도였다. 그 아치형 천장에는 낮고 기괴한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가 뒤이어 살펴본 방들도 모두 버려진 상태였다. 그곳에는 부서져 가는 상자들과 불길한 기운을 풍기는 납 관들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방들은 조지프 커웁이 과거에 얼마나 거대한 규모의 일을 벌였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다. 그는 사라져 버린 노예들과 선원들을 떠올렸다. 전 세계 곳곳에서 파헤쳐진 무덤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마지막 습격대가 목격했을 광경을 상상했다. 그러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고 결심했다.

오른편으로는 거대한 돌계단이 솟아 있었다. 그가 내려온 계단이 경사진 지붕의 농가에서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계단은 커웬의 부속 건물 중 하나로 연결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었다. 어쩌면 높고 가느다란 틈새 모양의 창문이 달린 그 유명한 석조 건물일지도 몰랐다.

갑자기 눈앞에서 벽들이 멀어지는 듯하더니, 악취와 울부짖는 소리가 더욱 강해졌다. 월렛은 자신이 광활한 빈 공간에 들어섰음을 깨달았다. 그 공간이 어찌나 넓은지 햇불의 빛조차 끝에 닿지 않을 정도였다. 그는 앞으로 나아갔고, 천장의 아치를 받치고 있는 튼튼한 기둥들을 간간이 마주했다.

얼마간 지나자 그는 스톤헨지의 거석들처럼 모여 있는 기둥 원형지에 다다랐다. 그 중심에는 세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기단 위에 커다란 조각 제단이 놓여 있었다. 제단에 새겨진 문양들이 너무도 기이했기에,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려 다가갔다. 하지만 제단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그는 몸서리치며 뒤로 물러났다. 제단 윗면을 변색시키고 옆면을 따라 가느다란 줄기처럼 흘러내린 검은 얼룩들을 조사하기 위해 멈춰 서는 일 따위는 없었다.

대신 그는 멀리 떨어진 벽을 찾아냈다. 벽은 거대한 원을 그리며 굽어 있었는데, 곳곳에 검은 문들이 뚫려 있었고 수많은 얇은 감옥들이 파여 있었다. 그 감옥들에는 철창이 달렸으며, 오목하게 들어간 뒷벽의 석조 구조물에는 손목과 발목을 묶을 수 있는 사슬이 달린 구속구가 고정되어 있었다. 감옥들은 비어 있었지만, 끔찍한 악취와 음산한 신

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 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집요하게 들려왔고, 때로는 무언가 미끄러지며 쿵쿵거리는 소리로 변하기도 했다.

* * * * *

그 끔찍한 악취와 기괴한 소음 때문에 월렛은 더 이상 주의를 돌릴 수 없었다. 거대한 기둥들이 늘어선 홀에서는 그 소리와 냄새가 그 어느 곳보다 선명하고 흉측하게 느껴졌다. 심지어 이 어둡고 신비로운 지하 세계조차도, 그 모든 것이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들려오고 풍겨오는 듯한 막연한 인상을 주었다.

의사는 더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은 아치형 통로들을 살피기 전, 우선 빛을 비추어 돌로 된 바닥을 훑었다. 바닥은 매우 성기게 깔려 있었다. 불규칙한 간격으로 나타나는 석판들에는 정해진 규칙 없이 작은 구멍들이 기묘하게 뚫려 있었고, 어느 지점에는 아주 긴 사다리 하나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이상하게도, 주변을 뒤덮은 그 끔찍한 악취는 이 사다리에 유독 심하게 배어 있는 듯했다.

천천히 주위를 살피던 월렛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소음과 악취가 모두 그 구멍 뚫린 석판 바로 위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이였다. 마치 그 석판들이 공포가 도사리는 더 깊은 심연으로 이어지는 조잡한 함정 문인 것처럼 말이다.

그는 석판 하나 옆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그것을 만져보았다. 엄청난 힘을 들여야 겨우 조금 움직일 수 있었다. 그가 석판을 건드리자 바

닥 아래에서 들려오던 신음 소리가 한층 높은 음으로 치솟았다. 월렛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면서도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무거운 돌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바닥 아래에서 형언할 수 없는 악취가 치솟았다. 의사는 석판을 뒤로 젖히고 드러난 1제곱야드의 아득한 어둠 속으로 손전등을 비추었다. 그와 동시에 머리가 어지럽게 휘청거렸다.

만약 월렛이 궁극적인 혐오가 도사리는 거대한 심연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기대했다면, 그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악취와 갈라진 듯한 울음소리 사이로 그가 발견한 것은 지름이 약 1.5야드쯤 되어 보이는 원통형 우물의 벽돌 윗부분뿐이었기 때문이다. 그 우물에는 사다리도, 내려갈 만한 다른 수단도 전혀 없었다.

빛이 아래로 비치자, 울음소리는 갑자기 소름 끼치는 비명으로 변했다. 그 비명과 함께 눈먼 존재가 헛되이 발버둥 치며 미끄러운 곳을 쿵쿵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탐험가는 그 심연 속에 어떤 해로운 것이 숨어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어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는 곧 용기를 내어 거칠게 깎인 우물 가장자리 너머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몸을 길게 뻗은 채 햇불을 팔을 뻗어 아래로 비추며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려 애썼다.

잠시 동안은 이끼 낀 미끈거리는 벽돌 벽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벽은 어둠과 악취, 그리고 고통스러운 광기가 뒤섞인 반쯤 실체화된 안개 속으로 끝없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그는 좁은 구멍 바닥에서 검은 무언가가 서투르고 미친 듯이 위아래로 뛰어오르

는 것을 보았다. 그곳은 그가 엎드려 있는 돌바닥으로부터 최소 20에서 25피트는 아래에 있는 듯했다.

손에 든 횃불이 떨어졌지만, 그는 이 비정상적인 우물의 어둠 속에 어떤 생명체가 갇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눈을 돌렸다. 의사들이 워드를 데려간 뒤로 긴 한 달 동안, 젊은 워드가 돌보지 않아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또한 그 존재는 거대한 아치형 동굴 바닥에 촘촘히 박힌 구멍 뚫린 돌 덮개들 아래, 비슷한 우물들에 갇힌 수많은 존재 중 하나임이 분명했다.

그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좁은 공간에서 편히 누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그 끔찍한 몇 주 동안, 그것들은 웅크린 채 울부짖으며 기다렸고, 힘겹게 뛰어오르며 버텼을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마리누스 월렛은 다시금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을 후회했다. 그는 외과 의사이자 해부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음에도, 그날 이후 예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었다. 측정 가능한 치수를 지닌 실재하는 물체를 단 한 번 보았을 뿐인데, 어떻게 한 인간의 정신이 그토록 뒤흔들리고 변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윤곽이나 형체에는 상징과 암시의 힘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뿐이다. 그 힘은 예민한 사색가의 관점을 공포스럽게 뒤흔들며, 평범한 시야가 제공하는 보호막 같은 환상 너머에 숨겨진, 모호한 우주적 관계와 이름 붙일 수 없는 실체들에 대해 끔찍한 암시를 속삭인다.

월렛은 두 번째 눈길을 던졌을 때 바로 그 형체 혹은 존재를 보았다. 그 직후 몇 분 동안,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웨이트 박사의 개인 병원에 수용된 환자들만큼이나 처참하게 미쳐버렸다. 그는 근육의 힘과 신경의 조절 능력을 모두 상실한 채 손에서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손전등이 구덩이 바닥에 떨어지며 무언가에 짓씹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또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은 너무나도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는 가성이라,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을 목소리였다. 그는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한 채, 축축한 포장도로 위를 필사적으로 기고 굴렀다. 그곳에는 수십 개의 지옥같은 우물들이 입을 벌린 채, 그의 광기 어린 울부짖음에 응답하듯 잣아드는 신음과 깹깹거리는 소리를 쏟아내고 있었다. 거칠고 험거운 돌 바닥에 손이 찢기고, 곳곳에 세워진 기둥에 머리를 수없이 부딪치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칠흑 같은 어둠과 악취 속에서 그는 서서히 정신을 차렸다. 깹깹거리는 소리가 잣아들며 웅웅거리는 통곡 소리로 변하자, 그는 귀를 틀어막았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빛을 낼 방법조차 없었다. 심연 같은 어둠과 공포에 짓눌려 정신이 나간 그는, 결코 지울 수 없는 기억에 짓밟혔다. 그의 발밑에는 여전히 수십 마리의 그것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고, 그 구멍 중 하나에서는 덮개가 치워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이 미끄러운 벽을 타고 올라올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혹시라도 어딘가에 모호한 발디딤처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몸서리쳤다.

그것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옥 같은 제단에 새겨진 조각물 중 일부를 닮아 있었으나, 분명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자연은 결코 그런 형상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미완성'이었기 때문이다. 결여된 부분들은 경악스러울 정도였고, 기괴하게 뒤틀린 비율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었다. 월렛은 그저 이런 존재들이 워드가 '불완전한 염류'로부터 불러낸 것들이며, 그가 노예처럼 부리거나 의식용으로 보관해 온 실체임에 틀림없다고만 밝혔다. 만약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면, 그 저주받은 돌 위에 그런 형상이 새겨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돌에 묘사된 것 중 가장 끔찍한 것이 그것은 아니었으나, 월렛은 다른 구덩이들을 결코 들여다보지 않았다. 당시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오래전 읽어 치웠던 커웬에 관한 옛 기록 중 한 구절이었다. 그것은 사이먼이나 제데다야 론이, 이미 오래전 사라진 마법사에게 보냈던 그 불길한 압수 편지에서 사용했던 문구였다.

"분명히, 그가 겨우 일부만을 모아 불러낸 그 존재에게서는 오직 가장 생생하고도 끔찍한 공포만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때, 앞서 떠올린 형상을 밀어내기는커녕 오히려 기괴하게 덧씌우듯 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커웬의 습격이 있던 지 일주일 후, 들판에서 발견된 불타며 뒤틀린 형체에 관한 오래된 소문들이었다. 찰스 텍스터 워드는 예전에 의사에게 슬로컴 노인이 그 물체에 대해 했던 말을 전한 적이 있었다. 그 물체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도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포터킷 사람들이 보거나 들어본 적 있는 그 어떤 동물과도 온전히 닮지 않았다는 이야기였다.

의사는 아질산염 석재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머릿속에서는 그 단어들이 끊임없이 웅웅거렸다. 그는 그 소리를 몰아 내려 애쓰며 주기도문을 나직이 읊조렸다. 하지만 결국 기도는 힘을 잃고 흩어졌다. 마치 T. S. 엘리엇의 현대시 「황무지」처럼, 의미를 알 수 없는 암기용 단어들이 뒤섞인 잡탕이 되어버렸다. 그러다 그는 결국 최근 워드의 지하 서재에서 발견한, 반복되는 이중 주문으로 되돌아갔다. "_Y'ai 'ng-'ngah, Yog-Sothoth_" 그는 마지막에 밑줄이 그어진 "_Zhro_"를 읊을 때까지 그 주문을 계속해서 되풀이했다.

주문을 외우자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듯했다. 그는 한참 뒤에야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공포에 질려 놓쳐버린 손전등을 비통하게 한탄하며, 그는 차가운 공기 속을 움켜쥐는 듯한 칠흑 같은 어둠 사이로 한 줄기 빛이라도 찾으려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서재에 두고 온 밝은 조명이 반사되거나 희미하게라도 비치기를 바라며 사방으로 눈을 부릅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주 멀리서 희미한 빛줄기가 느껴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는 고통스러운 조심성을 유지하며 손과 무릎을 이용해 그 빛을 향해 기어갔다. 악취와 울부짖는 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그는 눈앞에 놓인 거대한 기둥들에 부딪히거나 자신이 파헤쳐 놓은 그 끔찍한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앞을 살피며 나아갔다.

떨리는 손가락이 지옥의 제단으로 이어지는 계단임을 직감한 순간, 그는 혐오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또 다른 때는 자신이 치위두었던 구멍 뚫린 석판을 마주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가련할

정도로 극도로 조심하며 움직였다. 하지만 끝내 그 공포스러운 틈새에는 다다르지 못했고, 그 틈새에서 그를 붙잡으려 무언가 튀어나오는 일도 없었다. 그 아래에 있는 존재는 아무런 소리도, 움직임도 내지 않았다. 분명 바닥에 떨어진 손전등을 짓이긴 탓에 상태가 좋지 않은 모양이었다. 월렛은 구멍 뚫린 석판을 만질 때마다 몸을 떨었다. 석판 위를 지나갈 때면 가끔 아래쪽에서 신음 소리가 커지기도 했으나, 그가 워낙 소리 없이 움직였기에 대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나아가는 동안 앞을 비추던 빛이 눈에 띄게 흐려지는 일이 몇 번 있었다. 그가 남겨두고 온 촛불과 등불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성냥도 없이 이 악몽 같은 지하 미로 속에서 완전한 어둠에 갇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다. 열린 구덩이를 지나온 터라 이제는 달려도 안전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그가 살아남아 구조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워드가 그를 찾지 못해 걱정할 즈음 보낼 구조대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그는 탁 트인 공간을 벗어나 더 좁은 복도로 들어섰고, 오른쪽 문에서 빛이 새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차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문 앞에 다다랐다. 다시금 젊은 워드의 비밀 서재에 들어선 그는 안도감에 몸을 떨며,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한 마지막 등불이 파르르 떨리며 꺼져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 * * * *

잠시 후, 그는 미리 봐두었던 기름통에서 불이 꺼진 등잔들에 서둘러 기름을 채워 넣었다. 방 안이 다시 밝아지자, 그는 더 깊이 탐색할 때 쓸 랜턴이 있는지 주위를 살폈다. 공포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비장한 결의를 다졌다. 찰스 텍스터 워드의 기괴한 광기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파헤치리라 굳게 마음먹었다.

랜턴을 찾지 못한 그는 가장 작은 등잔 하나를 들고 가기로 했다. 주머니에는 양초와 성냥을 가득 채웠고, 기름 한 갤런이 든 통도 채웠다. 불결한 제단과 이름 모를 덮개로 덮인 우물들이 있는 그 끔찍한 빈 공간을 지나, 만약 숨겨진 실험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비상용으로 쓰기 위함이었다. 그 공간을 다시 가로지르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다행히도 공포스러운 제단이나 열려 있는 구덩이는 동굴 구역을 둘러싼 거대한 벽 근처에 있지 않았다. 그 벽에는 감옥처럼 움푹 들어간 공간들이 줄지어 있었고, 검고 신비로운 아치형 입구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논리적인 탐색을 이어간다면, 다음 목표는 바로 저 아치형 입구들이 될 터였다.

월렛은 악취와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가득한 그 거대한 기둥 홀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지옥 같은 제단이나, 구멍 뚫린 석판이 놓인 노출된 구덩이가 멀리서라도 보이지 않도록 등불의 빛을 낮추었다. 검은 문들 대부분은 작은 방들로 이어졌는데, 어떤 방은 비어 있었고 어떤 방은 창고로 쓰이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창고로 쓰이는 방들 중 몇 곳에서는 기이한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 방에는 찢어 문드러지고 먼지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여벌 옷 꾸러미들이 가

득했는데, 탐사자인 월렛은 그것들이 분명히 150년 전의 의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을했다. 또 다른 방에서는 현대의 옷가지들이 잡동사니처럼 널려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수많은 사람에게 입힐 옷을 점진적으로 준비해 두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가 무엇보다 혐오스러워했던 것은 간간이 나타나는 거대한 구리 통들이었다. 그 통들에 엉겨 붙은 불길한 침전물들은 더욱 가관이었다. 기괴한 문양이 새겨진 납 그릇들도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그릇의 잔해에는 역겨운 퇴적물이 남아 있었고, 지하 묘지 전체에 진동하는 악취를 뚫고 나올 만큼 고약한 냄새가 그 주변에 감돌았다. 벽을 따라 전체 경로의 절반쯤을 돌았을 때, 그는 자신이 들어왔던 곳과 비슷한 복도를 발견했다. 그 복도에서도 여러 개의 문이 열려 있었다.

그는 조사를 이어 나갔다. 중간 크기의 방 세 개를 지나쳤으나 그곳에는 별다른 내용물이 없었다. 마침내 그는 커다란 직사각형 형태의 방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탱크와 테이블, 가열로와 현대식 기구들이 놓여 있었다. 간간이 보이는 서적들과 끝없이 늘어선 유리병 및 병들이 가득한 선반들은, 이곳이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찰스 텍스터 워드의 실험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이전에 조지프 커웨이가 사용했던 실험실이기도 했다.

월렛 박사는 미리 채워져 있던 세 개의 등불에 불을 붙인 뒤, 그곳의 모든 시설과 부속품을 아주 세밀하게 살폈다. 선반 위에 놓인 각종 시약의 양을 보니, 젊은 워드가 주로 몰두했던 분야는 유기 화학의 일종임이 분명해 보였다. 기괴하게 생긴 해부대까지 갖춰진 이 과학 실험실

의 구성품들을 보아하니, 전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인지 방의 상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서가에는 고딕체(블랙레터) 활자로 인쇄된 낡고 너덜너덜한 보렐루스의 책 한 권이 꽂혀 있었는데, 워드가 밑줄을 그어 놓은 구절이 150여 년 전 커웨이의 농가에서 선량한 메릿 씨를 그토록 당혹게 했던 바로 그 대목이라는 사실은 기묘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물론 그 오래된 책은 과거 습격 당시 커웨이의 오컬트 서적들과 함께 모두 소실되었을 것이다.

실험실에서는 세 개의 아치형 통로가 갈라져 있었고, 박사는 차례대로 그 통로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충 훑어본 결과 두 곳은 그저 작은 창고에 불과해 보였으나, 그는 그곳들까지도 주의 깊게 살폈다. 창고에는 다양한 정도로 훼손된 관들이 쌓여 있었는데, 박사는 그중 겨우 판독할 수 있었던 두세 개의 관 명패를 보고는 몸서리를 치며 강한 전율을 느꼈다. 창고에는 옷가지들도 많이 보관되어 있었고, 못이 촘촘히 박힌 새 상자들도 여러 개 있었으나 그는 그것들을 일일이 조사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옛 조지프 커웨이가 사용하던 실험 도구의 파편들로 보이는 기묘한 물건들이었을 것이다. 습격자들에게 의해 훼손되긴 했으나, 그것들은 여전히 조지언 시대의 화학 도구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형태가 남아 있었다.

세 번째 아치형 통로를 지나자 아주 커다란 방이 나타났다. 방 전체에는 선반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었고, 중앙에는 등잔 두 개가 놓인 탁자가 있었다. 월렛은 등잔에 불을 붙였다. 밝아진 빛 속에서 그는 자신

을 둘러싼 끝없는 선반들을 살폈다. 위쪽 선반 중 일부는 완전히 비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공간은 기이하게 생긴 납제들로 가득했다. 제형은 크게 두 종류였다. 하나는 그리스식 레키토스나 기름병처럼 손잡이가 없는 긴 형태였고, 다른 하나는 팔레론 항아리처럼 손잡이가 하나 달린 형태였다. 모든 병에는 금속 마개가 씌워져 있었으며, 표면에는 기묘한 문양들이 낮게 부조되어 있었다.

잠시 후, 의사는 이 병들이 매우 엄격한 규칙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레키토스들은 방 한쪽에 모여 있었고 그 위에는 "Custodes"라고 적힌 커다란 나무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반면 팔레론 항아리들은 반대편에 모여 있었으며, 그 위에는 "Materia"라고 적힌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위쪽 선반에 놓인 빈 병들을 제외하면, 모든 병에는 카탈로그 번호로 보이는 숫자가 적힌 종이 태그가 달려 있었다. 월렛은 조만간 그 카탈로그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진열된 물건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갔다. 그는 대략적인 특징을 파악하고자 레키토스와 팔레론 병 몇 개를 무작위로 골라 실험 삼아 열어 보았다. 결과는 매번 같았다. 두 종류의 병 모두에는 단 한 종류의 물질이 소량 들어 있었다. 그것은 아주 가볍고, 탁한 무채색의 다양한 색조를 띤 고운 가루였다. 유일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는 색상 분포에는 어떠한 규칙도 보이지 않았다. 레키토스에 든 것과 팔레론에 든 것 사이에도 아무런 구분이 없었다. 청회색 가루 옆에 분홍빛이 도는 흰색 가루가 놓여 있기도 했고, 팔레론에 든 가루와 정확히 일치하는 색상의 가루가 레키토스에서도 발견되기도 했다.

가루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전혀 달라붙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월렛이 가루를 손바닥에 쏟아부었다가 다시 병에 담아도, 손바닥에는 아무런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두 표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그는 혼란에 빠졌다. 게다가 왜 이 화학 약품들이 실험실 선반 위 유리병에 담긴 것들과는 이토록 판이하게 분리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Custodes', 그리고 'Materia'. 각각 라틴어로 '파수꾼'과 '물질'을 뜻했다. 그 순간, 이 끔찍한 미스터리와 관련하여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는 기억이 번뜩 스쳤다.

그것은 당연히, 오래전 에드워드 허친슨이 쓴 것처럼 꾸며진 앨런 박사 앞의 최근 편지 내용이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적혀 있었다. "파수꾼들의 형체를 유지하며 그들의 머리를 먹어 치울 필요는 없었으며, 당신도 잘 알다시피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낼 것이 많았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란 말인가? 하지만 잠시만, 허친슨의 편지를 읽을 때는 전혀 떠올리지 못했던 '파수꾼'에 관한 또 다른 언급이 이 사건에 있지 않았던가?

비밀이 없던 옛 시절, 위드는 그에게 엘라자르 스미스의 일기에 대해 말해준 적이 있었다. 그 일기에는 스미스와 위든이 커웁의 농장을 감시했던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연대기에는, 늙은 마법사가 완전히 지하로 숨어버리기 전에 엿들었던 대화 내용도 언급되어 있었다. 스미스와 위든의 주장에 따르면, 그 대화 속에는 커웁과 그

가 붙잡아 둔 포로들, 그리고 '그 포로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등장했다.

허친슨 혹은 그의 대역이 말하기를, 그 파수꾼들은 "머리를 먹어 치웠기에" 이제 앨런 박사는 그들의 "형체를 유지"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만약 형체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 마법사 무리가 가능한 한 많은 인간의 몸이나 해골을 분해하여 만들려 했던 그 '염분' 이외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 레키토이(lekythoi) 안에 담긴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말인가. 신성하지 못한 의식과 행위가 낳은 괴물 같은 결실. 지옥 같은 주문이 울려 퍼질 때, 그 불경한 주인을 수호하거나 순순히 따르지 않는 자들을 심문하기 위해, 아마도 굴복시키거나 억지로 굴복시켜 불러낸 무언가 말이다. 윌렛은 자신이 손으로 붓고 따랐던 것들이 무엇이었을지 생각하며 몸서리쳤다. 잠시 동안, 침묵 속에 서서 어쩌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를 파수꾼들이 즐비한 그 끔찍한 선반의 동굴로부터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마저 느꼈다.

그러다 그는 방 건너편에 놓인 무수한 팔레론(Phaleron) 항아리 속에 든 '물질(Materia)'을 떠올렸다. 소금들도 있었다. 그것이 '파수꾼'의 소금들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의 소금이란 말인가? 세상에! 혹시 모든 시대의 거대한 사상가들 중 절반에 달하는 이들의 유해(遺骸)가 이곳에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무덤에서 지고의 구울들이 그들을 낚아채 온 것이라면? 그리고 그들은, 미친 자들의 부름에 따라 움직이는 노예가 되어버린 것일까? 그 미친 자들은

더 광기 어린 목적을 위해 지식만을 빨아들이려 하고 있었다. 불쌍한 찰스가 그 광기 어린 기록에서 암시했듯, 그 끝에 닥칠 결과는 "모든 문명과 모든 자연 법칙, 어쩌면 태양계와 우주의 운명"마저 뒤흔들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리고 마리누스 비크넬 월렛은, 바로 자신이 그들의 먼지를 손으로 일일이 걸러냈던 것이다!

그때 그는 방 저편 끝에 작은 문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문으로 다가가 그 위에 새겨진 투박한 표식을 살펴보았다. 단순한 상징에 불과했으나, 그것은 그에게 막연하고 영적인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과거에 한 기괴한 꿈을 꾸는 친구가 종이에 그 문양을 그려주며, 깊은 잠의 심연 속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몇 가지 들려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코스의 표식이었다. 황혼 속에 홀로 서 있는 어느 검은 탑의 아치형 입구 위로 꿈꾸는 자들이 목격한다는 바로 그 표식 말이다. 월렛은 친구 랜돌프 카터가 그 표식의 힘에 대해 말했던 내용이 못내 불쾌했다.

하지만 잠시 후, 악취가 진동하는 공기 속에서 새로운 자극적인 냄새가 느껴지자 그는 표식을 잊어버렸다. 그것은 동물의 사체에서 나는 냄새라기보다 화학적인 냄새에 가까웠으며, 문 너머의 방에서 분명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의사들이 찰스 텍스터 워드를 데려가던 날, 그의 옷에 깊게 배어 있던 바로 그 냄새였다. 그렇다면 청년이 마지막 부름을 받고 하던 일을 멈춘 곳이 바로 여기란 말인가? 그는 노인 조지프 커웁보다 현명했다. 적어도 저항하지는 않았으니까.

이 저승 같은 세계가 품고 있을 모든 경이와 악몽을 파헤치겠노라 굳게 결심한 월렛은 작은 등불을 움켜쥐고 문턱을 넘었다. 이름 모를 공포의 파도가 그를 맞이하듯 밀려왔으나, 그는 어떤 변덕에도 굴하지 않았고 직관의 경고에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이곳에는 그를 해칠 생명체 따위는 없었다. 그는 환자가 휩싸인 이 기괴한 안개를 뚫고 나아가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 * * * *

문 너머의 방은 중간 크기였으며, 탁자 하나와 의자 하나, 그리고 기묘한 기계 두 세트 외에는 가구가 없었다. 클램프와 바퀴가 달린 그 기계들을 보고 월렛은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그것들이 중세의 고문 도구임을 알아차렸다. 문 한쪽에는 잔혹한 채찍들이 걸린 거치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 선반에는 그리스식 킬릭스 모양을 한 납제 받침 컵들이 빈 줄을 이룬 채 놓여 있었다. 문 반대편에는 탁자가 있었다. 탁자 위에는 강력한 아르강 램프와 메모장, 연필, 그리고 바깥 선반에 있던 마개가 꽃힌 레키토스 두 개가 마치 급히 혹은 임시로 가져다 놓은 듯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월렛은 램프에 불을 붙이고, 짧은 워드가 기록을 중단하기 전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 확인하려 메모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하지만 커웬 특유의 악필로 휘갈겨 쓴 파편들 외에는 알아볼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그 단편적인 기록들은 사건 전체를 밝히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B는 죽지 않았다. 벽 속으로 도망쳐 아래쪽에 자리를 찾아냈다."

"늑은 V가 사바오스(Sabaoth)를 외우는 것을 보고, 그 길을 배웠노라."

"요그 소토스를 세 번 불러내었으나, 이튿날 구원을 얻었노라."

"F는 외부에서 온 존재들을 불러내는 방법에 관한 모든 지식을 말살하려 했다."

강렬한 아르강 등불이 방 안 전체를 환하게 비추자, 의사는 문 맞은편 벽의 모습을 확인했다. 양쪽 구석에 놓인 고문 도구들 사이의 벽면에는 수많은 못이 박혀 있었고, 그 못에는 기분 나쁜 황백색을 띤 형태를 알 수 없는 옷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은 비어 있는 두 벽면이었다. 매끄럽게 다듬어진 돌벽 위에는 신비로운 상징과 공식들이 거칠게 새겨져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축축한 바닥에도 조각된 흔적이 있었다. 월렛은 그리 어렵지 않게 바닥 중앙에 거대한 오망성이 새겨져 있음을 읽어냈고, 오망성에서 각 구석을 향해 중간 지점마다 지름 약 3피트 정도의 원이 하나씩 그려져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네 개의 원 중 하나, 황백색 옷이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진 곳 근처에는 채찍 길이 위 선반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형태의 얇은 킬릭스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원의 경계 바로 바깥에는 다른 방 선반에 있던 팔레론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118번이라는 번호표가 붙어 있었다. 항아리의 마개는 열려 있었고 조사 결과 안은 비어 있었으나, 탐험가는 킬릭스만큼은 비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서리쳤다. 킬릭스의 얇은 안쪽에는 바람 한 점 없는 이 외딴 동굴의 정적 덕

분에 흩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마른 상태의 칙칙한 녹색 결정 가루가 조금 담겨 있었다. 그것은 분명 항아리 안에 들어있어야 할 것이었다.

월렛은 이 현장의 여러 요소와 전조들을 하나씩 연결해 나가며 밀려드는 암시 앞에 휘청거렸다. 채찍과 고문 도구들, '마테리아'라고 적힌 항아리에서 나온 가루 혹은 염분, '쿠스토데스' 선반에서 나온 두 개의 레키토스, 옷가지들, 벽에 새겨진 공식들, 메모장 위의 기록들, 편지와 전설이 주는 암시들, 그리고 찰스 워드의 친구들과 부모를 괴롭혔던 수 천 가지의 단서와 의구심과 추측들까지. 바닥의 납제 킬릭스 위에 펼쳐진 그 마른 녹색 가루를 바라보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거대한 공포의 해일이 되어 의사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월렛은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벽에 새겨진 주문들을 살피기 시작했다. 얼룩지고 때가 낀 글자들을 보니, 그것들이 조지프 커웁 시대에 새겨진 것임은 분명했다. 그 내용은 커웁에 관한 자료를 많이 읽었거나 마법의 역사를 깊이 파고든 사람이라면 어렵פות이 익숙할 법한 문구들이었다. 의사는 그 주문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것은 1년 전 불길했던 성금요일에 워드 부인이 아들이 읊조리는 것을 들었던 바로 그 내용이었으며, 어떤 권위자가 그에게 알려주기를 통상적인 영역 너머에 존재하는 비밀스러운 신들에게 바치는 매우 끔찍한 기원문이라고 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비록 이곳에 적힌 철자가 워드 부인이 기억을 되살려 기록한 방식이나, 권위자가 금서 『엘리파스 레비』의 금지된 페이지를 통해 보여준 방식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그 정체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

었다. *Sabaoth*, *Metraton*, *Almonsin*, 그리고 *Zariatnatmik*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자, 코스믹 호러의 끔찍함을 이미 수없이 목격하고 체감해 온 조사관의 몸에는 공포의 전율이 일었다.

방에 들어서면 왼쪽 벽면에 이 글귀가 보였다. 오른쪽 벽면 역시 그에 못지않게 빼곡한 글자로 가득했다. 월렛은 벽면을 살피던 중, 최근 도서관의 기록물에서 자주 마주쳤던 한 쌍의 공식과 똑같은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멈춰 섰다. 대략적인 내용은 같았다. 워드의 낙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공식의 앞머리에는 '용의 머리'와 '용의 꼬리'를 뜻하는 고대 상징들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철자는 현대의 판본들과 판이하게 달랐다. 마치 옛날의 커웨이를 거치며 해당 주문들이 더 강력하고 완벽한 형태로 진화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월렛은 벽에 새겨진 글귀를 머릿속에 맴도는 문구와 대조해 보려 애썼지만, 좀처럼 일치시키기가 어려웠다. 그가 암기했던 문구는 "_Y'ai 'Ng'ngah, Yog-Sothoth_"로 시작했으나, 이 비문은 "_Aye, cngengah, Yogge-Sothotha_"로 시작하고 있었다. 월렛이 보기에 이 방식은 두 번째 단어의 음절을 나누는 데 심각한 혼란을 줄 것이 분명했다.

나중에 읽게 된 텍스트가 의식 속으로 스며들수록, 그 불일치는 그를 괴롭혔다. 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소리와 눈앞에 새겨진 글자를 일치시키려 애쓰며, 첫 번째 주문을 소리 내어 읊조리기 시작했다. 고대

의 신성모독이 가득한 심연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기괴하고도 위협적이었다. 그 음조는 마치 과거와 미지의 세계가 건네는 주문에 걸린 듯, 혹은 저 멀리 악취와 어둠 너머에서 들려오는 지옥의 울음 소리를 닮아 있었다. 인간의 것이 아닌 리듬에 맞춰 높낮이를 반복하며 들려오는, 그 무신론적이고 둔탁한 통곡을 따라 그의 목소리 또한 웅얼거리는 듯한 노래처럼 울려 퍼졌다.

"Y'AI 'NG'NGAH _YOG-SOTHOTH_ H'EE----L'GEB F'AI'
THRODOG _UAAH_!"

* * * * *

하지만 주문을 읊기 시작하자마자 불어닥친 이 차가운 바람은 대체 무엇이였을까? 등불은 비참할 정도로 파르르 떨리며 꺼져갔고, 어둠은 점점 짙어져 벽에 새겨진 글자들이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연기도 피어올랐다. 멀리 떨어진 우물에서 풍겨오는 악취를 완전히 집어삼킬 만큼 매캐한 냄새였다. 예전에도 맡아본 적이 있는 듯한 냄새였으나, 그때보다 훨씬 강렬하고 자극적이었다.

그는 벽면의 비문에서 눈을 돌려 기괴한 물건들로 가득한 방 안을 마주했다. 그러자 바닥에 놓인 킬릭스 잔이 보였다. 불길한 꽃가루 같은 가루가 담겨 있던 그 잔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거대하고 불투명한 녹흑색 증기가 구름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 가루는—맏소사! 분명 '물질(Materia)' 선반에 있던 것이었다. 대체 그 가루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며, 무엇이 이 현상을 일으킨

것인가? 그가 읊조리던 주문, 그 두 가지 중 첫 번째 구절인 '용의 머리, 상승점(Dragon's Head, ascending node)'—복된 구원자여, 설마 이것이야—

의사는 비틀거렸다. 조지프 커웁과 찰스 텍스터 워드라는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해 그가 보고, 듣고, 읽었던 모든 파편이 머릿속을 미친 듯이 휘저으며 스쳐 지나갔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네가 스스로 제압할 수 없는 존재는 결코 불러 내지 말게.... 언제든 악령을 눕힐 수 있는 주문을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하며, 네가 불러낸 존재가 '누구'인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게. 그곳에 매장된 '무엇'과의 세 차례 대화——"

하늘이여, 자비를. 흠여지는 연기 너머로 보이는 저 형체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 * * * *

마리누스 윌렛은 자신의 이야기가 마음이 통하는 몇몇 친구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믿음을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전했을 뿐, 그 외의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 외부인 중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그들 대부분은 그저 의사 선생님이 노망이 났다며 웃어넘길 뿐이다. 사람들은 그에게 긴 휴가를 다녀오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정신 질환 환자는 말지 말라고 권하기도 한다.

하지만 워드는 이 노련한 의사가 말하는 것이 끔찍한 진실임을 알고 있다. 월렛이 방갈로 지하실에서 그 불쾌한 구멍을 직접 보지 않았던가? 그 불길한 아침 11시, 월렛이 정신을 잃고 병색이 완전한 워드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던가? 그날 저녁과 다음 날까지 워드가 헛되이 전화를 걸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다음 날 정오, 워드가 직접 방갈로로 달려갔을 때, 위층 침대 위에서 의식을 잃은 채 다친 곳 하나 없이 누워 있던 친구를 발견하지 않았던가?

당시 월렛은 거칠고 천명하는 듯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워드가 차에서 가져온 브랜드를 건네자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러더니 월렛은 몸을 떨며 비명을 질렀다.

“그 수염, 그 눈빛이라니…… 세상에, 당신 대체 누구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푸른 눈에 깔끔하게 면도한 단정한 신사에게 던지기에는 너무나도 기괴한 외침이었다.

밝은 정오의 햇살 아래, 방갈로는 전날 아침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월렛의 옷차림은 무릎 부분이 해지고 얼룩이 좀 묻어 있는 것 외에는 흐트러진 데가 없었다. 워드 씨는 아들이 병원으로 실려 가던 날 아들에게서 말았던 그 희미하고 매캐한 냄새를 떠올리며, 그저 아주 미세하게 남아 있는 악취를 느꼈을 뿐이다. 의사의 손전등은 사라졌지만, 가방은 가져왔을 때처럼 텅 빈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

월렛은 어떤 설명도 덧붙이기 전, 분명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견뎌 내려는 듯 비틀거리며 지하로 내려가 통들 앞에 있던 그 운명적인 발판

을 건드려 보았다. 발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미처 쓰지 못하고 두고 왔던 연장 가방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 정을 가져왔다. 그리고는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판자들을 하나씩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매끄러운 콘크리트 바닥이 드러났으나, 구멍이나 틈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의사를 따라 내려온, 당혹감에 휩싸인 아버지를 구역질 나게 할 만한 구멍은 이번에 나타나지 않았다. 판자 아래에는 매끄러운 콘크리트 뿐이었다. 역겨운 우물도, 지하의 공포스러운 세계도, 비밀스러운 서재도, 커원의 서류들도 없었다. 악취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악몽 같은 구덩이도, 실험실이나 선반, 새겨진 공식들도, 그 무엇도 없었다. 윌렛 의사는 안색이 창백해진 채 젊은 남자를 붙들었다.

"어제," 그가 나직하게 물었다. "여기서 그것을 보고, 냄새도 맡았나?"

공포와 경악에 사로잡힌 워드 씨가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자, 의사는 한숨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으며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말해주겠네." 그가 말했다.

한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위층에서 가장 햇살이 잘 드는 방을 찾아 들어갔다. 의사는 경악에 빠진 아버지를 향해 그 끔찍한 이야기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킬릭스 잔에서 피어오른 녹흑색 증기가 걷히자 그 형체가 불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 외에, 더 이상 전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 윌렛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스스로에게 되물

을 기력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두 남자는 그저 허망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러다 워드 씨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넸다. "혹시 땅을 파헤쳐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의사는 침묵했다. 미지의 영역에서 온 초자연적인 힘이 거대한 심연의 이편을 이토록 위태롭게 침범해 버린 상황에서, 인간의 지성으로 대답을 내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워드 씨가 다시 물었다. "하지만 그건 어디로 갔습니까? 그 형체가 당신을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러고는 어떻게든 그 구멍을 막아버렸고요."

월렛은 다시금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마지막 단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던 월렛 박사는 손수건을 집으려다 주머니 속에서 종이 한 장을 만져 잡았다. 전에는 없던 종이였다. 그 종이 곁에는 그가 사라진 지하 금고에서 챙겨온 양초와 성냥이 함께 들어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종이였다. 지하 어딘가에 있는 그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방에 놓여 있던, 싸구려 메모장에서 뜯어낸 것이 분명했다. 종이 위에는 일반적인 연필로 글씨가 쓰여 있었는데, 아마도 메모장 옆에 놓여 있던 바로 그 연필이었을 것이다. 종이는 아주 대충 접혀 있었고, 그 은밀한 방에서 풍겨 나온 희미하고 매캐한 냄새 외에는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할 만한 흔적이나 표식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적힌 내용만큼은 실로 기이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그곳에 적힌 글씨는 건전한 시대의 필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중세의 암흑기에 서나 볼 법한, 힘겹게 눌러 쓴 필체였다. 지금 그것을 들여다보며 애를

쓰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읽기조차 힘들었지만, 묘하게 익숙한 듯한 기호들이 조합되어 있었다.

짧게 휘갈겨 쓴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 수수께끼 같은 문구는 충격에 빠진 두 사람에게 새로운 목적을 부여했다. 두 사람은 즉시 차분하게 걸어 나와 워드의 차로 향했고, 먼저 조용한 식당에 들렀다가 그 후 언덕 위에 있는 존 헤이 도서관으로 가달라고 명령했다.

* * * * *

도서관에서 고문서학에 관한 훌륭한 지침서들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두 남자는 거대한 상들리에에서 저녁 불빛이 새어 나올 때까지 그 책들을 붙들고 씨름했다. 마침내 그들은 필요한 답을 찾아냈다. 그 글자들은 결코 환상 속에서 만들어진 허구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암흑 같았던 시대에 쓰인 평범한 필체였다.

서체는 서기 8세기나 9세기에 쓰인 뾰족한 색슨 소문자였다. 그 글자들은 투박한 시대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기독교라는 걸치레가 새로 덧씌워졌음에도, 그 아래에서는 고대의 신앙과 의식들이 은밀하게 꿈틀대던 시절이었다. 영국의 창백한 달빛이 카를레온과 헉스하우스의 로마 유적, 그리고 허물어져 가는 하드리아누스 방벽의 탑들을 비출 때면, 그곳에서는 때때로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다.

문장들은 야만적인 시대가 기억할 법한 라틴어로 적혀 있었다. "Corvinus, necandus est. Cadaver aq(ua) forti dissolvendum, nec aliq(ui)d retinendum. Tace ut potes." 이 문장을 대략 번역하

면 다음과 같다. "커웬을 죽여야 한다. 시신은 강한 산(aqua fortis)에 녹여 없애야 하며, 그 어떤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가능한 한 침묵을 지켜라."

윌렛과 워드 씨는 할 말을 잃은 채 망연자실했다. 그들은 미지의 존재와 마주했으나, 마땅히 느껴야 한다고 막연히 믿어왔던 그 감정들을 도저히 끌어낼 수 없었다. 특히 윌렛은 경외심이라는 새로운 감각을 받아들이 수 있는 능력이 거의 바닥나 있었다. 두 남자는 도서관 문을 닫을 때까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이후 그들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프로스펙트 가에 있는 워드 저택으로 차를 몰았다. 밤이 깊도록 대화를 나누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의사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시 눈을 붙였으나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일요일 정오가 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앨런 박사를 수색하라는 명령을 받은 형사들로부터 전화 메시지가 도착했다.

가운 차림으로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이던 워드 씨가 직접 전화를 받았다. 그는 그들의 보고서가 거의 준비되었다는 말을 듣고, 다음 날 일찍 올라오라고 사람들에게 일렀다. 윌렛과 워드 두 사람 모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 기괴하고 작은 쪽지의 출처가 어디든, 반드시 제거해야 할 '커웬'은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쓴 그 낯선 사내임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찰스는 그 남자를 두려워해 왔으며, 광기에 젖은 쪽지에서도 그를 반드시 죽여 산에 녹여버려

야 한다고 적었다. 게다가 앨런은 유럽의 기이한 마법사들로부터 '커웬'이라는 이름으로 편지를 받아왔고, 스스로를 과거의 강령술사가 현신한 존재로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런데 이제는 전혀 새로운 출처로부터 "커웬을 죽여 산에 녹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날아든 것이다. 이 연결 고리는 인위적으로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명백했다. 게다가 앨런은 허친슨이라 불리는 괴물의 조언에 따라 젊은 워드를 살해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지 않았던가? 물론 그들이 보았던 편지가 수염 난 사내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편지의 내용을 보면, 앨런은 워드가 너무 '겁을 먹는' 상황이 올 경우를 대비해 이미 그를 처리할 계획을 세워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앨런을 체포해야 했다. 설령 가장 극단적인 처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를 찰스 워드에게 어떠한 해도 끼칠 수 없는 곳에 격리해야만 했다.

그날 오후, 유일하게 실마리를 쥐고 있을지도 모를 그 인물로부터 내밀한 비밀에 관한 단 한 줄기의 정보라도 얻어내고자 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워드의 아버지와 의사는 만을 따라 내려가 병원에 있는 젊은 찰스를 찾아갔다. 월렛은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담담하고도 엄숙하게 전했다. 묘사가 이어질수록 찰스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려가는 것을 월렛은 놓치지 않았다. 의사는 최대한 극적인 효과를 노리며 말을 이어갔고, 덮여 있는 구덩이들과 그 안에 갇힌 이름 모를 혼종들에 관한 이야기에 다다랐을 때 찰스가 움찔하는지 살폈다.

하지만 워드는 움찔하지 않았다. 월렛은 말을 멈추었다. 그 안에 갇힌 존재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월렛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렸다. 그는 찰스의 충격적인 비인간성을 꾸짖었으나, 돌아온

것은 냉소적인 웃음뿐이었다. 찰스는 지하 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익한 발뺌을 그만두고,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떤 끔찍한 농담을 발견한 듯 보였다. 그는 무언가 즐겁다는 듯 거친 웃음을 흘렸다. 그러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그 음성이 두 배는 더 섬뜩하게 들릴 만큼 낮은 속삭임으로 내뱉었다.

"빌어먹을, 그놈들이 먹기는 먹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기가 막힌 점이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요? 세상에, 선생님은 너무 겸손하시군요! 그거 아세요? 그 고결한 척 떠들어대던 불쌍한 늙은 휘플에게는 그게 아주 큰 농담이었다는 걸요! 다 죽여버리겠다고요? 젠장, 그 노인네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귀까지 먹먹해서 우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그곳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을 거라고요! 빌어먹을, 커웁이 죽고 나서 157년 동안 그 저주받은 것들은 줄곧 밑바닥에서 울부짖고 있었다고요!"

윌렛이 청년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였다. 윌렛은 공포에 질렸으나, 동시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청년이 유지하고 있는 저 기괴할 정도로 차분한 태도를 깨뜨릴 만한 사건이라도 일어나길 바라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던 의사는 최근 몇 달 사이 그 얼굴에 새겨진 변화를 보며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소년은 참으로, 하늘로부터 이름 붙일 수 없는 공포를 불러내고 있었다.

공식들이 적힌 방과 초록빛 가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찰스 텍스터 워드는 처음으로 생기를 띠었다. 월렛이 메모장에서 읽어 내려간 내용을 들은 그의 얼굴에는 의아한 기색이 스쳤다. 그는 마법의 역사에 깊이 입문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저 기록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오래된 것일 뿐이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었다. "만약 당신이 내가 컵 속에 담아두었던 그것을 불러낼 수 있는 주문을 알았더라면, 지금 여기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건 118번이었죠. 저쪽 방에 있는 제 목록에서 그 번호를 찾아보셨다면 당신도 분명 몸을 떨었을 겁니다. 제가 직접 불러낸 적은 없지만, 당신이 저를 이곳으로 초대하러 온 바로 그날, 그것을 불러낼 생각이었거든요."

월렛은 자신이 말했던 주문과 그때 피어오른 암녹색 연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월렛은 찰스 텍스터 워드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가 서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이... 나타났단 말인가,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워드가 쉼 목소리로 내뱉은 말은 마치 구속에서 막 벗어난 듯했고, 기괴한 울림을 머금은 채 심연의 구렁텅이로 가라앉는 듯했다.

찰나의 영감이 스친 월렛은 상황을 파악하고, 기억 속에 남아 있던 편지의 문구를 인용해 경고를 섞어 대답했다. "118번이라고 했나? 하지만 잊지 말게. 열 번 중 아홉 번은 돌의 상태가 변해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확신할 수 없네!" 그러고는 예고도 없이 아주 작은 쪽지를 꺼내 환자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월렛은 이보다 더

확실한 결과는 바랄 수 없었다. 찰스 텍스터 워드는 그 즉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 모든 대화는 철저한 비밀 속에 이루어졌다. 정신과 의사들이 워드의 부친과 주치의를 향해, 미친 자의 망상을 부추겼다고 비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윌렛 박사와 워드 씨는 도움 없이 직접 쓰러진 청년을 부축해 소파에 눕혔다. 의식을 되찾은 환자는 오른과 허친슨에게 당장 가야 한다는 말을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환자가 완전히 정신을 차린 듯 보이자, 박사는 그 기괴한 존재들 중 적어도 하나는 그의 지독한 원수이며, 그를 암살하라고 앨런 박사에게 조언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이 폭로에도 환자에게는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 그 사실을 말하기도 전부터, 방문객들은 이미 주인이 마치 쫓기는 사람 같은 형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후로 워드는 더 이상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다. 결국 윌렛 박사와 부친은 곧 자리를 떴다. 떠나기 전 그들은 수염을 기른 앨런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남겼으나, 청년은 그저 그 자가 아주 안전하게 처리되었으니 설령 마음을 먹는다 해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 말은 듣기 괴로울 정도로 사악한 웃음과 함께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찰스 텍스터 워드가 유럽에 있는 그 괴물 같은 두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까 봐 걱정하지 않았다. 병원 당국이 검열을 위해 모든 발송 우

편물을 압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기괴하거나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 담긴 서신은 결코 통과시키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오른과 허친슨의 사건에는 기묘한 후일담이 하나 남아 있다. 만약 그 추방된 마법사들이 정말로 그런 존재들이었다면 말이다. 당시의 공포 속에서 막연한 예감을 느꼈던 월렛은 국제 신문 스크랩 대행사에 의뢰하여 프라하와 트란실바니아 동부에서 발생한 주목할 만한 범죄와 사고 기록들을 수집했다. 6개월 후, 월렛은 수많은 자료를 번역하던 중 매우 의미심장한 두 가지 사건을 발견했다고 믿었다. 하나는 프라하 구시가지에서 밤사이 발생한 어느 저택의 완전한 파괴 사건이었다. 그 저택에는 요제프 나데라고 불리는 사악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기억이 닿는 한 그는 줄곧 그곳에서 홀로 지내왔다. 또 다른 사건은 라쿠스 동쪽 트란실바니아 산맥에서 일어난 거대한 폭발이었다. 이 폭발로 페렌치 성은 그 안에 있던 모든 이들과 함께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성주에 대해서는 농민과 병사들 모두가 험담을 일삼을 정도로 평판이 나빴다. 만약 이 사건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미 모든 일반적인 기억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그 기이한 행보 때문에 조만간 부쿠레슈티로 소환되어 엄중한 조사를 받았을 것이다. 월렛은 그 소문자들을 써 내려갔던 손이 더 강력한 무기 또한 휘둘 수 있었으리라 확신한다. 또한 커웬은 자신이 처리할 수 있었지만, 필자는 오른과 허친슨을 직접 찾아내어 처단할 수 있다고 느꼈던 모양이다. 그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지, 의사는 필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윌렛 박사는 형사들이 도착할 때 자리에 함께하고자 서둘러 워드 저택으로 향했다. 그는 앨런을 파멸시키거나 감금하는 일—혹은 환생이라는 그 암묵적 주장을 타당한 것으로 본다면, 조지프 커웁을 처리하는 일—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느꼈다. 수사관들을 기다리며 앉아 있는 동안, 박사는 이러한 자신의 확신을 워드 씨에게 전했다. 이번에 그들은 아래층에 머물렀다. 저택 위층에는 정체 모를 메스꺼움이 끊이지 않고 감돌고 있어, 사람들이 점차 그곳을 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오래된 하인들은 그 불쾌한 기운이 사라진 커웁의 초상화가 남긴 저주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9시 정각에 세 명의 형사가 도착했다. 그들은 곧바로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을 전부 쏟아냈다. 안타깝게도 형사들은 원했던 대로 브라바 토니 고메스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앨런 박사가 어디서 왔는지, 혹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조차 전혀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입이 무거운 이 이방인에 관해 현지에서 수집한 상당한 양의 인상과 사실들을 파헤쳐냈다.

포터킷 사람들에게 앨런은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존재로 비쳤다.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의 덩수룩한 반다이크 수염이 염색했거나 가짜라고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은 결정적인 증거로 확인되었다. 불길한 사건이 일어났던 그 방 안에서, 가짜 수염과 두꺼운 검은색 안경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워드 씨가 단 한 번의 전화 통화로 직접 경험했듯이, 앨런의 목소리는 잊을 수 없을 만큼 깊고 공허했다. 또한 그는 색이 들어간 빨테 안경 너머로도 악의적인 눈빛을 내비치는 듯했다.

협상 과정에서 한 상인은 앨런의 필적을 본 적이 있다며, 글씨가 매우 기괴하고 알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말은 앨런의 방에서 발견된, 의미를 알 수 없는 연필 메모들을 상인이 확인해 줌으로써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여름 발생했던 흡혈귀 소동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수다쟁이는 워드가 아니라 앨런이 진짜 흡혈귀라고 믿었다. 트럭 강도 사건이라는 불쾌한 일이 벌어진 뒤, 그 오두막을 방문했던 관리들로부터 진술도 확보했다. 관리들은 앨런 박사에게서 불길한 기운을 덜 느꼈지만, 그 기묘하고 어두운 오두막을 지배하는 인물은 그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내부가 너무 어두워 그를 명확히 관찰할 수는 없었으나, 다시 마주친다면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의 수염은 기묘해 보였으며, 검은 안경을 쓴 오른쪽 눈 위에는 열은 흉터가 있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앨런의 방을 수색했으나 수염과 안경 외에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휘갈겨 쓴 연필 메모 몇 장이 발견되었는데, 윌렛은 그것을 보자마자 직감했다. 그 필체는 오래된 커웨이의 원고들과, 사라진 공포의 지하 묘지에서 발견된 젊은 워드의 방대한 메모에서 나타난 필체와 정확히 일치했다.

데이터가 서서히 드러남에 따라, 윌렛 박사와 워드 씨는 심오하고도 미묘하며, 은밀하게 스며드는 우주적 공포를 느꼈다.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동시에 모호하고 광기 어린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그들은 그 생각을 쫓아가며 거의 몸을 떨 정도였다. 가짜 수염과 안경, 투박한 커웨이의 필체, 오래된 초상화와 그 속의 작은 흉터, 그리고 그 흉터를 가진 채 병원에서 변해버린 청년의 모습,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 깊고

공허한 목소리까지. 아들이 지금은 그렇게 변해버렸다고 주장하는 그가려한 말투를 내뱉었을 때, 워드 씨가 떠올린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던 말인가? 찰스와 앨런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는가? 예, 한때 몇몇 관리들이 본 적은 있었으나, 그 이후로 본 사람이 또 있었는가? 앨런이 떠나자마자 찰스가 갑자기 커져가던 공포를 멈추고 온종일 방갈로에서만 생활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가 아니었나? 커웬, 앨런, 그리고 워드. 이 얼마나 신성모독적이고 끔찍한 융합인가. 두 시대와 두 인물이 어떻게 이토록 뒤엉키게 되었던 말인가? 초상화 속 인물이 찰스와 그토록 저주스럽게 닮아있던 것은, 그 눈동자가 소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방 안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던 것은 아니었나? 게다가 왜 앨런과 찰스 모두, 혼자 있거나 방심한 순간조차 조지프 커웬의 필체를 흉내 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일들은 또 무엇인가. 하룻밤 사이에 의사를 노쇠하게 만든 그 공포스러운 지하 묘지, 악취 나는 구덩이 속에서 굶주린 채 꿈틀대던 괴물들, 이름 붙일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그 소름 끼치는 주문, 월렛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소문자 메시지, 그리고 무덤과 '소금', 그리고 발견들에 대해 떠들던 그 모든 서류와 편지들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결국 워드 씨는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스스로 깨닫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으며, 그는 형사들에게 물건 하나를 건넸다. 불길한 징조를 보였던 앨런 박사를 목격했던 포터킷의 상점 주인들에게 보여달라는 물건이었다. 그것은 불운한 아들의 사진이

었다. 워드 씨는 그 사진 위에, 형사들이 앨런의 방에서 가져온 두꺼운 안경과 검고 뾰족한 수염을 잉크로 정성스럽게 그려 넣고 있었다.

그는 의사와 함께 그 압도적인 저택에서 두 시간 동안 기다렸다. 위층 서재의 빈 벽면이 기괴한 눈빛으로 끊임없이 노려보는 가운데, 집 안에는 공포와 독기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이윽고 남자들이 돌아왔다. 그렇다, 변형된 사진 속 모습은 앨런 박사의 인상과 매우 흡사했다. 워드 씨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월렛은 갑자기 땀이 배어 나온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앨런, 워드, 그리고 커웁까지. 이 이름들이 뒤엉키며 사고를 마비시킬 만큼 끔찍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 소년은 허공의 심연을 향해 무엇을 불러냈으며, 그 존재는 소년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일까? 처음부터 끝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찰스를 너무 '겁쟁이'라며 죽이려 했던 이 앨런이라는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그 광기 어린 편지의 후기에서 그가 죽이려던 희생자는 정작 그(앨런)를 산성 용액에 완전히 녹여 없애야 한다고 적었던 말인가? 또한, 그 출처를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 작은 쪽지에는 왜 '커웁' 역시 똑같이 녹여 없애야 한다고 적혀 있었는가?

그 '변화'란 무엇이며, 마지막 단계는 언제 일어난 것인가? 그가 광기 어린 편지를 보냈던 그날, 그는 아침 내내 불안해하다가 돌연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몰래 빠져나갔고, 자신을 감시하도록 고용된 남자들 앞을 당당하게 가로질러 지나갔다. 그가 밖으로 나갔던 바로 그때가 변화의 시점이었을까? 아니, 그럴 리 없다. 그는 서재로 들어서며, 바로 이 방으로 들어서며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지 않았던

가?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했단 말인가? 아니, 기다려 보자. 무엇이 그를 발견한 것인가?

나가는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왔던 그 형상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단 한 번도 밖으로 나간 적 없는 떨고 있는 인간에게 강제로 들이닥친, 이질적인 그림자이자 공포였던 말인가? 집사가 기이한 소음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가?

* * * * *

월렛은 그 남자를 불러 낮은 목소리로 몇 가지를 물었다. 분명히 끔찍한 사건이었다. 비명과 혈떡임, 숨이 막히는 소리가 들렸고, 무언가 달그락거리거나 삐걱거리는, 혹은 쿵쿵거리는 소리까지 났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을지도 모른다. 한마디 말도 없이 성큼성큼 걸어 나가는 찰스 씨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집사는 말을 내뱉으며 몸을 떨었고, 위층 열린 창문에서 내려오는 눅눅하고 무거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코를 쿵쿵거렸다. 공포가 이 저택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오직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형사들만이 그 공포를 온전히 들이키지 않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조차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형사들의 기분을 몹시 불쾌하게 만드는 모호한 요소들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월렛 박사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그리고 깊게 생각에 잠겼다. 그가 떠올린 생각들은 하나같이 끔찍했다. 그는 악몽 같은 사건들이 엮어내는 새롭고도 소름 끼치며, 점점 더 명백해지는 인과관계를 머릿속으로 되짚으며 때때로 중얼거릴 뻔했다.

워드가 손짓으로 회의가 끝났음을 알리자, 의사와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방을 나갔다. 정오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밤이 찾아오기라도 한 듯한 그림자들이 유령이 출몰하는 저택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월렛은 집주인에게 매우 진지한 태도로 말을 건넸다. 그는 앞으로 이어질 조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자신에게 맡겨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월렛은 조사가 진행되다 보면 불쾌한 상황이 반드시 생길 것이며, 그런 일은 친척보다는 친구가 감당하기에 더 수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족 주치의로서 그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했다. 무엇보다 그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위층의 버려진 서재에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홀로 머물 시간이었다. 그곳의 오래된 벽난로 선반 위에는, 조지프 커웁의 얼굴이 그려진 판넬에서 교활한 눈빛이 내려다보일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불쾌한 공포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사방에서 밀려드는 기괴하고 병적인 광경들,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기 어린 암시들에 정신을 잃은 워드 씨는 그저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30분 뒤, 의사는 올니 코트에서 가져온 판벽으로 꾸며진, 모두가 꺼리는 그 방에 갇혔다. 문밖에서 귀를 기울이던 그의 아버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방 안에서 무언가를 더듬고 뒤지는 소리를 들었다. 마침내 딱 닫힌 찬장 문을 여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과 빠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억눌린 비명과 함께 킁킁거리는 듯한 소리가 터져 나왔고, 무언가 열렸던 것이 급하게 광 하고 닫혔다.

거의 동시에 열쇠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월렛이 복도에 나타났다. 그는 초췌하고 창백한 모습이었으며, 방 남쪽 벽에 있는 진짜 벽난로에 넣을 땔감을 요구했다. 그는 난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

다. 전기 장작은 별로 쓸모가 없다는 이유였다. 워드 씨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필요한 조치를 명령했다. 한 남자가 튼튼한 소나무 장작을 가져왔으나, 서재의 오염된 공기 속으로 들어와 화로에 장작을 넣을 때는 몸을 떨었다. 그사이 월렛은 해체된 실험실로 올라갔다가, 지난 7월 이삿짐에 포함되지 않았던 잡동사니 몇 가지를 가지고 내려왔다. 그것들은 덮개가 있는 바구니에 담겨 있었는데, 워드 씨는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끝내 보지 못했다.

의사는 다시 서재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굴뚝을 타고 창문 너머로 연기 구름이 뭉게뭉게 흘러내리는 것을 보니, 그가 불을 지핀 모양이었다. 잠시 후, 신문지를 거칠게 뒤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금 기괴한 뒤틀림과 빠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뒤이어 었던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둔탁한 두드림 소리가 이어졌다. 그 직후 월렛이 억눌린 비명을 두 번 내질렀고, 곧바로 형언할 수 없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스르륵거리는 소리가 뒤따랐다. 마침내 굴뚝에서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연기가 아주 검고 매캐해지자, 사람들은 날씨가 이 숨 막히고 독한 기묘한 연기의 범람을 막아주었기를 간절히 바랐다. 워드 씨는 머리가 어지러워 비틀거렸고, 하인들은 무시무시한 검은 연기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려 한데 뭉쳐 모여들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연기가 열리는 듯하더니, 빗장 걸린 문 너머로 무언가를 굵고 쓰는 듯한 소리와 기타 자잘한 움직임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마침내 안쪽에서 찬장 문을 쿵 닫는 소리가 나고 나서야 월렛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슬프고 창백하며 초췌한 모습이었고, 위층 실험실에서 가져온 천으로 덮인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가 창문을 열

어둔 덕분에, 한때 저주받았던 그 방에는 소독약의 기묘한 냄새와 섞인 맑고 신선한 공기가 가득 밀려들고 있었다. 벽난로 위의 오래된 장식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으나, 이제는 그 사악한 기운이 사라진 듯했다. 하얀 판넬이 덧대어진 그 장식물은 마치 조지프 커웁의 초상화를 걸어본 적도 없었다는 듯, 차분하고 위엄 있게 서 있었다. 밤이 찾아오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어둠 속에 잠재된 공포 대신 부드러운 우울함만이 감돌았다.

의사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결코 입 밖에 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워드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없네만, 마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말은 해두겠네. 나는 거대한 정화를 마쳤네. 이 집 사람들은 덕분에 더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거야."

* * * * *

윌렛 박사가 겪은 '정화'의 과정이, 사라진 지하 묘지에서 해매던 그 끔찍한 방황만큼이나 신경을 갇아먹는 시련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그 날 저녁 집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탈진해 버렸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이후 사흘 동안 줄곧 방 안에서 휴식을 취했다. 다만 나중에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말을 듣기로는, 수요일 자정 너머에 바깥문이 아주 부드럽게 열렸다가 기이할 정도로 조용히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다행히 하인들의 상상력은 그리 넓지 않은 편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목요일 자 _이브닝 불레틴(Evening Bulletin)_ 지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기사로 인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노스 앤드의 구울들이 다시 활동 중이다

북쪽 묘지 위딘 구역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파괴 행위 이후 10개월 동안 평온이 이어졌다. 하지만 오늘 새벽, 야간 경비원 로버트 하트가 같은 묘지에서 밤을 배회하는 괴한을 목격했다. 새벽 2시경, 하트가 잠시 대피소 밖을 내다보았을 때였다. 그는 북쪽 멀지 않은 곳에서 랜턴이나 손전등 같은 불빛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하트가 문을 열고 나가자, 근처 가로등 불빛을 등진 한 남자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남자는 손에 모종삽을 들고 있었다. 하트가 즉시 추격을 시작했으나, 괴한은 정문을 향해 급히 달려갔다. 남자는 곧장 거리로 빠져나갔고, 하트가 접근하거나 붙잡기도 전에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지난 1년 동안 활동했던 첫 번째 구울과 마찬가지로, 이 침입자 역시 발각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워드 가문의 부지 중 비어 있는 구역에서 굴뚝기식으로 땅을 판 흔적이 조금 발견되기는 했으나, 무덤이라 부를 만한 규모의 시도는 전혀 없었다. 기존에 있던 무덤이 파헤쳐진 흔적 또한 없었다.

하트는 침입자에 대해 수염이 덩수룩한 작은 체구의 남성일 것이라고만 짐작할 뿐, 그 외에는 자세히 묘사하지 못했다. 그는 세 차례에 걸친 도굴 사건이 모두 동일한 배후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제2경찰서 소속 형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두 번째 사건의 잔혹한 양상에 주목했다. 당시 도굴꾼들은 고대 관을 꺼내 간 뒤, 관의 머리 부분을 덮은 비석을 무자비하게 박살 내 놓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매장하려던 시도가 저지된 것으로 추정되는 첫 번째 사건은 작년 3월에 발생했다. 당시에는 밀주범들이 숨겨둔 물건을 찾으려던 행동으로 여겨졌다. 라일리 경사는 이번 세 번째 사건 또한 그와 비슷한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2경찰서 소속 경관들은 이처럼 반복되는 만행을 저지른 악당 일당을 검거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목요일 내내 월렛 박사는 휴식을 취했다. 마치 지나간 일로부터 기력을 회복하려는 듯, 혹은 다가올 일에 대비해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저녁 무렵 그는 워드 씨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전달된 그 편지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던 워드의 부모를 깊은 고뇌에 빠뜨렸다. 월요일에 겪은 충격적인 사건과 그 뒤를 이은 당혹스러운 보고들, 그리고 불길하기 짝이 없던 '정화' 작업 때문에 워드 씨는 도저히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박사의 편지는 절망을 예고하고 새로운 수수께끼를 불러일으키는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하게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1928년 4월 12일,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반스 가 10번지.

친애하는 테오도르에게:

내일 내가 하려는 일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당신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일로 우리가 겪어온 이 끔찍한 사건도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괴물 같은 장소는 그 어떤 삽질로도 결코 파헤칠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이 얼마나 확실한 결말을 가져올지 분명히 약속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자네는 아주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나를 알고 지냈으니, 어떤 일들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파헤치지 않은 채로 두는 편이 가장 좋다는 내 암시에 자네가 불신을 품지는 않으리라 믿네. 찰스 텍스터 워드의 사건에 대해 더는 추측하려 들지 않는 것이 좋겠네. 또한 그의 어머니에게는 그녀가 이미 의심하고 있는 것 이상의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하네. 이걸 거의 의무에 가까운 일이라네. 내일 내가 자네를 찾아갈 때쯤이면 찰스는 이미 도망친 상태일 것이네.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하게 나. 그는 미쳤었고, 그래서 도망쳤다네. 이것 말고는 더 생각할 필요도 없네.

그러니 내가 찾아가더라도 아무것도 묻지 마라. 일이 잘못될지도 모르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직접 말해주겠다. 하지만 별일 없을 것 같다. 더는 걱정할 것도 없다. 찰스 텍스터 워드는 아주, 아주 안전할 테니까. 그는 지금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상태다. 앨런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는 조지프 커웁의 초상화만큼이나 과거의 일부일 뿐이다. 내가 당신의 초인종을 누를 때쯤이면, 그런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주 작은 글씨로 메시지를 남긴 존재 또한,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을 결코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마음을 굳게 먹고 슬픔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내에게도 똑같이 일러두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찰스 텍스터 워드가 탈출에 성공한다 해도 그가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기이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보여준 미묘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보셨다면 당신도 이미 짐작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품지 마십시오. 그는 필멸의 인간이 결코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을 건드렸고, 그 누구도 발을 들여서는 안 될 과거의 세월 속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속에서 무언가가 기어 나와 그를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저를 가장 깊이 믿어주셔야 할 대목이 나옵니다. 찰스의 운명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찰스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원하신다면, 약 1년 뒤쯤 그 아이의 마지막을 적절히 꾸며내어 기록해도 좋습니다. 당신은 북쪽 묘지의 당신 부친 묘역에서 정확히 서쪽으로 10피트 떨어진 곳에, 부친의 묘와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비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당신 아들의 진정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그 비석이 무언가 기이하거나, 혹은 다른 존재로 뒤바뀐 아이의 흔적을 나타낼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무덤에 담길 재는 변함없는 당신의 뼈와 살점, 즉 당신이 갓난아기 때부터 그 정신을 지켜보아 온 진짜 찰스 텍스터 워드의 것입니다. 엉덩이에 올리브색 반점이 있고, 가슴에는 검은 마녀의 표식이 없으며, 이마에 구멍 같은 흉터도 없는, 바로 그 진짜 찰스 말입니다. 그는 결코 악행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단지 그 "결벽증" 때문에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부다. 찰스는 도망쳤을 것이니, 일 년 뒤면 네가 그의 비석을 세워도 좋다. 내일은 내게 아무것도 묻지 마라. 그리고 네 가문의 명예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도 좋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디 용기를 잃지 말고 침착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친구, 마리누스 B. 월렛 올림.

1928년 4월 13일 금요일 아침, 마리누스 비크넬 월렛은 코나니컷 섬에 있는 웨이트 박사의 개인 병원을 찾아 찰스 텍스터 워드의 병실을 방문했다. 두 사람은 긴장된 태도로 몇 마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었다. 하지만 곧 새로운 종류의 압박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워드는 박사의 가면 같은 얼굴 뒤에서, 이전에는 결코 느껴본 적 없는 끔찍한 의도를 읽어낸 듯 보였기 때문이다.

워드는 실제로 안색이 창백해졌고, 먼저 입을 연 것은 의사였다. "더 많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솔직히 경고하건대,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왔습니다."

"또 땅을 파헤쳐서, 굶주려 죽어가는 가여운 애완동물들을 더 찾아 내기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비아냥 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그 청년은 마지막 순간까지 허세를 부릴 작정인 게 분명했다.

"아니오," 월렛이 천천히 대답했다. "이번에는 땅을 팔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앨런 박사를 수색하던 중에, 방갈로에서 가짜 수염과 안경을 찾아냈거든요!"

"훌륭하군." 불안에 휩싸인 주인은 재치 있게 모욕을 주려 애쓰며 한마디 던졌다. "그것들이 지금 자네가 기르고 있는 수염이나 안경보다는 훨씬 잘 어울렸기를 바라네!"

"그것들은 당신과 아주 잘 어울리게 될 겁니다." 차분하고도 계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제로 이미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월렛이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마치 태양 위로 구름이 지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바닥에 드리운 그림자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때 워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토록 격렬하게 대가를 요구하는 실체란 말인가? 만약 어떤 사람이 때때로 두 개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유용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대체 무슨 문제란 말인가?"

"아니오." 월렛이 엄숙하게 말했다. "당신은 또 틀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중성을 추구하든 그건 내 알 바가 아닙니다. 다만 그가 존재할 권리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하며, 자신을 이 공간으로 불러낸 존재를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을 뿐입니다."

워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떨었다. "대체 무엇을 찾아내셨기에 저를 찾아오신 겁니까?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의사는 답변을 하기 전 잠시 침묵을 지켰다. 마치 가장 효과적인 대답을 내놓기 위해 단어를 고르는 듯했다.

"결국 찾아냈습니다." 그가 마침내 낮게 읊조렸다. "예전에 그림이 걸려 있던 오래된 벽난로 선반 뒤편, 그 뒤쪽 찬장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태워버렸고, 찰스 텍스터 워드의 무덤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재를 묻었습니다."

미친놈은 숨이 막히는 듯 킁킁거리더니, 앉아 있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빌어먹을, 대체 누구에게 말한 거냐? 내가 이렇게 살아 있는데, 두 달이나 지난 지금 누가 그놈이 그놈이었다고 믿어줄 것 같으냐? 대체 무슨 속셈이지?"

윌렛은 체구는 작았으나, 손짓 하나로 환자를 진정시키는 모습에서는 마치 사법권의 위엄을 갖춘 듯한 기품이 느껴졌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소. 이건 평범한 사건이 아니요. 시공간을 초월한 광기이자, 저 너머의 구체(球體)들로부터 건너온 공포요. 경찰도, 변호사도, 법원도, 정신과 의사도 결코 이해하거나 맞설 수 없는 존재란 말이요. 조지프 커웁, 당신을 속일 수는 없소. 당신의 저주받은 마법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나는 당신이 세월의 틈새에서 맴돌며 당신의 분신이자 후손을 옮겨 매는 주문을 어떻게 엮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과거로 끌어들이, 그가 당신을 그 가증스러운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게 한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실험실에 숨겨두는 동안 당신이 현대의 것들을 공부하고, 밤마다 흡혈귀처럼 세상을 떠돌아다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나중에 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써서, 그와 닮은 당신의 불경한 모습에 아무도 의구심을 갖지 않게 만든 수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의 그 끔찍한 무덤 도굴 행위를 가로막았을 때 당신이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는지,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을 계획했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나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수염을 깎고 안경을 벗어 집 주변을 지키던 경비병들을 속였지. 당신이 그를 목 졸라 죽여 숨긴 뒤, 그가 안으로 들어갔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고 경비병들은 믿었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두 정신이 지닌 접촉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계산에 넣지 않았어. 커웬, 고작 외양만 같으면 충분할 거라 믿다니 당신은 어리석었어. 말투나 목소리, 그리고 필체는 왜 생각하지 않았나? 결국, 당신의 계획은 실패했어. 그 소문자 메시지를 누가, 혹은 무엇이 썼는지는 나보다 당신이 더 잘 알겠지만, 헛되이 쓰인 글이 아니라고 경고해 두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가증스러운 것들과 신성모독들이 존재하니까. 나는 그 글을 쓴 자가 오른과 허친슨을 처리할 것이라 믿네. 그 괴물 중 하나가 예전에 당신에게 이렇게 썼었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존재를 불러내지 마라’라고 말이야. 커웬, 인간은 정해진 한계를 넘어 자연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네. 당신이 자아낸 모든 공포가 결국 당신을 멸망시키기 위해 되살아날 것이야.”

하지만 그때, 눈앞의 괴물이 내지른 발작적인 비명에 의사의 말은 끊기고 말았다. 조지프 커웁은 무기도 없이 막다른 길에 몰린 절망적인 상태였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해 봤자 수십 명의 조력자가 달려와 의사를 도울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커웁은 유일하고도 오래된 동맹에게 의지하기로 했다. 그는 검지를 움직여 기괴한 주문의 동작을 취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이제는 쉼 목소리를 가장할 필요도 없어진 그의 깊고 공허한 목소리가 끔찍한 주문의 첫 구절을 포효하듯 내뿜었다.

"PER ADONAI ELOIM, ADONAI JEHOVA, ADONAI SABAOTH, METRATON...."

하지만 월렛은 그보다 빨랐다. 마당 밖에서 개들이 울부짖기 시작하고, 만(灣)에서 갑자기 찬 바람이 몰아치던 바로 그 순간, 의사는 처음부터 읊조리려 했던 그 엄숙하고 절제된 어조의 주문을 내뿜기 시작했다. 눈에는 눈, 마법에는 마법을. 심연의 교훈을 얼마나 잘 익혔는지는 그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마리누스 비크넬 월렛은 맑은 목소리로 그 한 쌍의 공식 중 두 번째 공식을 읊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공식은 이 기괴한 소문자 기록의 저자를 불러낸 것이었다. '용의 꼬리', 즉 하강점의 상징을 제목으로 삼은 그 은밀한 기원문 말이다.

"OGTHROD AI'F GEB'L----EE"H _YOG-SOTHOTH_ 'NGAH'NG AI'Y _ZHRO_!"

월렛의 입에서 첫마디가 떨어지자마자, 환자가 읊조리던 주문이 뚝 끊겼다. 말을 할 수 없게 된 괴물은 팔을 미친 듯이 휘둘러댔으나, 이내

그 움직임마저 멈추고 말았다. 요그 소토스(Yog-Sothoth)라는 그 끔찍한 이름이 불리자, 가공할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형체가 무너져 내리는 해체가 아니었다. 차라리 어떤 변형이자,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회귀에 가까웠다. 윌렛은 남은 주문을 다 외우기도 전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아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그는 기절하지 않았다. 불경한 세월과 금지된 비밀을 품은 그 남자는 그 후로 다시는 세상에 나타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시공간을 초월한 광기는 잦아들었고, 찰스 텍스터 워드 사건은 종결되었다. 윌렛 박사는 공포가 서린 그 방을 비틀거리며 나서기 전, 눈을 떠 확인했다. 기억 속에 간직했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이다. 그의 예측대로 산성 용액을 사용할 필요는 없었다. 1년 전 그 저주받은 그림처럼, 조지프 커웁 역시 이제는 얇고 고운 청회색 먼지가 되어 바닥에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